

국내 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추세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 |
|-------|--|
| 연구책임자 | 박인우(고려대학교) |
| 공동연구원 | 이은화(신라대학교) |
| 전임연구원 | 김대영(고려대학교) |
| 연구보조원 | 문은경(고려대학교) 변희준(고려대학교) 강민아(고려대학교) 송창용(고려대학교) |
| 연구협력관 | 박상열(교육부) |

이 연구는 교육부의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소의 견해를 밝힙니다.

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지식강국을 구현하고 국가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제도와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06년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를 정책중점연구소로 지정하여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2014년은 지정 후 8년차(3단계 2차년도)가 되는 해입니다. 8년차에 연구소가 수행한 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단계 2차년도 (2013.10.16 ~ 2014.10.15) 수행 연구과제 목록

| 구분 | 제목 | 과제번호 |
|-------|---------------------------------------|-----------|
| 기본과제 |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 RR2014-01 |
| 기본과제 |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추세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RR2014-02 |
| 수시과제 | 바람직한 학사운영을 위한 방안 연구 | RR2014-03 |
| 수시과제 | 강사제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RR2014-04 |
| 수시과제 | 국내외 의과대학 교육 특성 및 교육과정 분석 연구 | RR2014-05 |
| 수시과제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모델 개발 | RR2014-06 |
| 수시과제 | 대학원 종류, 특성별 학사, 학위 관리 우수모델 분석 | RR2014-07 |
| 수시과제 | 국립대학 재정·회계기준 및 재정·회계 규정 개발 | RR2014-08 |
| 수시과제 | UNESCO ERI-Net 2014 국제 공동 연구 (대학교원승진) | RR2014-09 |
| 이슈페이퍼 | 학교법인운영권양도양수 대응방안 연구 | IP2014-01 |

올 해에도 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부, 연구재단 및 대학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들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2014년 10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 봉

차 례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
| II. 대학 교육과정 평가 | 4 |
| 1. 대학 교육과정의 필요성 | 4 |
| 2.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체계 | 5 |
| 1)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목적 | 5 |
| 2)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초점 | 6 |
| 3)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대상 | 7 |
| 4)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준거 | 9 |
| 5)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지표 | 12 |
| 3. 대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모형화 | 14 |
| 1) 교과목 수준의 교육과정 평가 | 16 |
| 2) 프로그램 수준의 교육과정 평가 | 19 |
| 3)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 평가 | 21 |
| 4.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최신 동향 | 23 |
| 1) 한국의 대학 교육과정 평가 | 23 |
| 2) 미국의 대학 교육과정 평가 | 34 |
| 3) 일본의 대학 교육과정 평가 | 43 |
| III.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 66 |

| | |
|---------------------------------|----|
| 1.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 66 |
| 1)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개발 절차 | 66 |
| 2)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항목 | 67 |
| 2.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 69 |
|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70 |
| 2)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 71 |
| 3)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71 |
| 4) 폐강률 | 72 |
| 3. 기존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의 문제점 | 72 |
| 4. 평가 지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 75 |

IV.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분석(2008-2014) 80

| | |
|-------------------------------|-----|
| 1.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분석 방법 | 80 |
| 2.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항목별 분석 | 81 |
| 1) 2008년 건전성 지수 | 81 |
| 2) 2009년 건전성 지수 | 89 |
| 3) 2010년 건전성 지수 | 97 |
| 4) 2011년 건전성 지수 | 106 |
| 5) 2012년 건전성 지수 | 114 |
| 6) 2013년 건전성 지수 | 122 |
| 7) 2014년(1학기) 건전성 지수 | 130 |
| 3.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추이 분석 | 138 |
|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분석 | 138 |
|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43 |
| 3. 지역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48 |
|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53 |

| | |
|------------------|-----|
| V. 결론 및 제언 | 158 |
| 1. 결론 | 158 |
| 2. 제언 | 163 |
| 참고 문헌 | 165 |
| 부록 | 169 |

표 차 례

| | |
|---|----|
| <표 II-1> 대학 교육과정 평가 지표 사례 | 13 |
| <표 II-2> 국내 대학 평가 | 23 |
| <표 II-3> 대학기관 평가 인증 평가지표와 산식 | 25 |
| <표 II-4> 중앙일보 대학 평가지표와 산식 | 28 |
| <표 II-5> 사립대학 평가지표 | 29 |
| <표 II-6> 국공립대학 평가지표 | 29 |
| <표 II-7> 교원양성대학 평가지표 | 30 |
| <표 II-8>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평가지표 및 산식 | 31 |
| <표 II-9>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평가 지표와 산식 | 33 |
| <표 II-10>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연방교육부의 실행계획 | 39 |
| <표 II-11> 문부과학대신의 대학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 | 45 |
| <표 II-12>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의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기준 | 47 |
| <표 II-13>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 기준(2011) | 56 |
| <표 II-14> 일본고등평가기구의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기준 | 58 |
| <표 II-15> 일본의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구들의 평가 기준 비교 | 62 |
| <표 III-1>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안) | 68 |
| <표 III-2>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 | 73 |
| <표 III-3> 기존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 73 |
| <표 III-4>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들의 설명력 | 74 |
| <표 III-5> 설문지 문항 | 75 |
| <표 III-6> 학교 소재지별 자료수집 대상 대학 현황 | 76 |
| <표 III-7> 대학의 유형별 자료수집대상 대학 현황 | 76 |
| <표 III-8> 대학의 유형별 자료수집대상 대학 현황 | 77 |
| <표 III-10> 교육과정 평가 지표영역의 중요성 | 78 |

| | |
|---|-----|
| <표 IV-1>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분석 대상 학교 분포 (2014년 기준) | 80 |
| <표 IV-2> 2008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표 수 | 82 |
| <표 IV-3> 2008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83 |
| <표 IV-4> 2008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84 |
| <표 IV-5> 2008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84 |
| <표 IV-6> 2008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85 |
| <표 IV-7> 2008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86 |
| <표 IV-8> 2008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87 |
| <표 IV-9> 2008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87 |
| <표 IV-10> 2008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88 |
| <표 IV-11> 2009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표 수 | 90 |
| <표 IV-12> 2009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1 |
| <표 IV-13> 2009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2 |
| <표 IV-14> 2009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2 |
| <표 IV-15> 2009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3 |
| <표 IV-16> 2009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4 |
| <표 IV-17> 2009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5 |
| <표 IV-18> 2009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6 |
| <표 IV-19> 2009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7 |
| <표 IV-20> 2010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표 수 | 98 |
| <표 IV-21> 2010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99 |
| <표 IV-22> 2010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0 |
| <표 IV-23> 2010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0 |
| <표 IV-24> 2010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1 |
| <표 IV-25> 2010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2 |
| <표 IV-26> 2010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3 |
| <표 IV-27> 2010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4 |

| | |
|---|-----|
| <표 IV-28> 2010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5 |
| <표 IV-29> 2011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106 |
| <표 IV-30> 2011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07 |
| <표 IV-31> 2011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8 |
| <표 IV-32> 2011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08 |
| <표 IV-33> 2011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09 |
| <표 IV-34> 2011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10 |
| <표 IV-35> 2011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11 |
| <표 IV-36> 2011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12 |
| <표 IV-37> 2011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13 |
| <표 IV-38> 2012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114 |
| <표 IV-39> 2012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15 |
| <표 IV-40> 2012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16 |
| <표 IV-41> 2012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16 |
| <표 IV-42> 2012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17 |
| <표 IV-43> 2012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18 |
| <표 IV-44> 2012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19 |
| <표 IV-45> 2012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20 |
| <표 IV-46> 2012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21 |
| <표 IV-47> 2013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122 |
| <표 IV-48> 2013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23 |
| <표 IV-49> 2013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24 |
| <표 IV-50> 2013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24 |
| <표 IV-51> 2013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25 |
| <표 IV-52> 2013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26 |
| <표 IV-53> 2013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27 |
| <표 IV-54> 2013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28 |

| | |
|---|-----|
| <표 IV-55> 2013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29 |
| <표 IV-56> 2014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130 |
| <표 IV-57> 2014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31 |
| <표 IV-58> 2014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32 |
| <표 IV-59> 2014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32 |
| <표 IV-60> 2014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33 |
| <표 IV-61> 2014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34 |
| <표 IV-62> 2014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35 |
| <표 IV-63> 2014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136 |
| <표 IV-64> 2014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137 |
| <표 IV-65>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38 |
| <표 IV-66> 설립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139 |
| <표 IV-67> 설립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140 |
| <표 IV-68>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141 |
| <표 IV-69>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142 |
| <표 IV-70>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43 |
| <표 IV-71> 학교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143 |
| <표 IV-72> 학교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145 |
| <표 IV-73>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146 |
| <표 IV-74>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147 |
| <표 IV-75> 지역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48 |
| <표 IV-76> 지역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149 |
| <표 IV-77> 지역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150 |
| <표 IV-78> 지역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151 |
| <표 IV-79>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152 |
| <표 IV-80>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53 |
| <표 IV-81> 학교규모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154 |

| | |
|--|-----|
| <표 IV-82> 학교규모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155 |
| <표 IV-83>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156 |
| <표 IV-84>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157 |

그 립 차 례

| | |
|---|-----|
| [그림 II-1] 교육과정의 유형 | 8 |
| [그림 II-2] 대학 교육과정 평가 모형 | 15 |
| [그림 II-3] 대학기준협회의 평가 절차 | 57 |
| [그림 II-4]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의 평가 절차 | 61 |
| [그림 III-1]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개발 절차 | 67 |
| [그림 III-2] 교육과정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 79 |
| [그림 IV-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38 |
| [그림 IV-2] 설립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139 |
| [그림 IV-3] 설립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140 |
| [그림 IV-4]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141 |
| [그림 IV-5]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142 |
| [그림 IV-6]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44 |
| [그림 IV-7] 학교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144 |
| [그림 IV-8] 학교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145 |
| [그림 IV-9]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146 |
| [그림 IV-10]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147 |
| [그림 IV-11] 지역별 건전성 지수 추이 | 148 |
| [그림 IV-12] 지역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149 |
| [그림 IV-13] 지역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150 |
| [그림 IV-14] 지역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151 |
| [그림 IV-15]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152 |
| [그림 IV-17] 학교규모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154 |
| [그림 IV-18] 학교규모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155 |
| [그림 IV-19]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156 |
| [그림 IV-20]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157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정책 비전 제시와 함께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2)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3)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4)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사회의 나라라는 4개의 핵심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대학 교육과 관련하여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 교육과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대학 평가 체제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 방향은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능은 교육, 연구, 봉사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교육과 연구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의 핵심적 기능에 해당된다. 그런데 ‘Publish or Punish’로 대변되는 대학의 최근 트렌드는 교육보다는 연구에 무게 중심이 더 쏠려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의 수준을 연구 업적과 같이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은 대학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이며 좀 더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됨을 부정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즉 대학의 교육과정이 “한 대학의 교육운영의 철학과 방향,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며, 교육과정의 개편작업은 결국 대학교육을 보다 경쟁력 있고 질 높은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강현석, 한신일, 2002: 240)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와 교육과정은 한 대학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대학에서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관리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소는 2008년부터 교육부와 전국학사행정관리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www.hepri.korea.ac.kr 참조) 대학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계속하여 현재 국내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왔다(박인우 외, 2010, 2011, 2012, 2013).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하였던 연구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은 그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건전성 지수(박인우 외, 2011: 71-99)를 활용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개설된 교과목을 학생들이 고르게 선택하고, 이러한 교과목이 전임교원에 의해 강의되는 경우”(박인우 외, 2011: 80)를 원칙으로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2) 정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3) 전임교원의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4) 폐강률을 그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한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들 중 폐강률은 정확한 현황 조사가 힘들다는 점, 폐강률과 관련하여 국내대학들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의 추이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국내대학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설문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항상 문제시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학생 수, 폐강 교과목 수, 전임교원 강의 비율 등과 같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통해 학생 만족도 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개발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지표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새롭게 수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산출하여 여러 배경변인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문헌연구: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사례연구: 고등교육 평가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분석연구
- 조사연구: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의 문제점 분석 및 새로운 지표에 대한 설문 조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도출 및 분석
- 개발연구: 고등교육과정 지원 체제에 관한 개발 연구

II. 대학 교육과정 평가

1. 대학 교육과정의 필요성

한국의 대학이 전임교원 임용 확대, 교수들의 연구 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영어 강의 확대, 현대식 교육 시설의 확보라는 점에서 외형성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있어서는 매우 정체되어 있음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성연, 1995; 이은화, 김대현, 2005). 그러한 근거로 현재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대학 간 역할 분담과 특성화 미비, 전체의 틀과 기준 결여, 질 관리 주체 미비, 주관적 강좌 개설,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율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대학들이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나머지 질적 향상을 소홀히 한데서 출발하고 있다(홍후조, 2004).

또한 대학 교육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미비도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에 대한 관심은 학사관리나 학습관리체제(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체계적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학이 교육과정을 쉽게 만들고 운영을 위한 지원에 투자하지 않고,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에 소홀하다면 질 높은 대학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 변화, 산업과 노동구조의 변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 국가 간 및 기관 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 대학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대학들이 교육의 질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타 기관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비단 경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육자료 개방 확대 분위기로 인한 대학교육 콘텐츠의 공유 활성화는 국제적 수준에 걸 맞는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 스스로 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판단은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그 때문에 대학의 주요한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국제적 수준의 대학교육을 가늠하기 위

해서는 그 대학의 교육적 설계와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관리와 연관성을 갖는 부분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판단의 핵심 활동인 대학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대학 교육과정의 질을 판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체계

1)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목적

권기욱(2001)은 교육과정 평가의 목적을 평가활동을 통해 성취하려는 결과로 보고, 책무성과 질 개선의 두 가지 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먼저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첫 번째 목적인 책무성을 대략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고객에게 대답할 수 있는 책임(answerability)으로 부모와 학생에 대한 도덕적 책무성이며, 둘째는 자신과 동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으로 직업적 책무성이며, 셋째는 고용자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으로 계약적 책무성이다. 그러나 이처럼 책무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는 제재를 포함하므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의 감축이나 추가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대학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기 어렵다.

대학 교육과정은 특성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무성도 함께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과정 평가 시에는 교육과정 평가의 준거와 기준 설정에서 균형성을 갖추고, 평가 결과를 여러 가지 제재에 활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두 번째 목적인 질 개선을 위한 평가는 문제해결을 지향하면서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개발, 실천, 평가하며,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실재를 조정한다. 교육과정 평가는 기관차원보다 프로그램 차원에

서 교육적, 직업적 요구에 더 관련되고, 더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는 교육과정의 설계모형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이 관련자들의 광범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초점

Lattuca와 Stark(2009)은 교육기관 간 교육과정의 질을 비교하거나 교육과정을 평가할 때에 다음 4가지 영역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평가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용과 범위의 측면으로, 내용의 범위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수준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교육과정 평가의 결과, 즉 대학 교육과정의 질을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시퀀스와 구조의 측면으로,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관심이었던 영역이다. 과학이나 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퀀스와 구조가 분명한 특성이 있다. 반면 다른 분야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따라 상당한 융통성과 선택권이 허용되기도 한다. 시퀀스와 구조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은 다시 집중화 경향과 선택화 경향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집중화 경향은 특정 학문이나 영역에 집중하여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된 것을 가리키며, 선택화 경향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대폭 위임하는 교육과정 설계를 가리킨다.

셋째, 내용 전달이나 적용이냐의 측면으로, 비교적 새롭게 부각되는 관심점이다. 대학 교육과정의 역할을 학문분야 내용의 전달이라는 전통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과, 학습된 기술의 적용이나 실천을 강조하는 최근의 관점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도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좋은 실천 사례의 측면으로,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교육과정 성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효과적인 수업 실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과 맥을 함께 한다. 1987년 보고된 Chickering과 Gamson의 대학교육에 있어 좋은 실천을 위한 7가지 원칙(Seven Principles for Good Practice in Undergraduate Education)은 매우 강력하게 전파되어 나

갔다. 이는 좋은 실천들을 간결하게 체계화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 적용 정도를 평가해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장 연구에 대한 관심 증대는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실천 사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좋은 실천 사례를 평가할만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설계에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더 요구하게 되는데, 주로 교수와 학습자의 기록물들이 이러한 영역을 평가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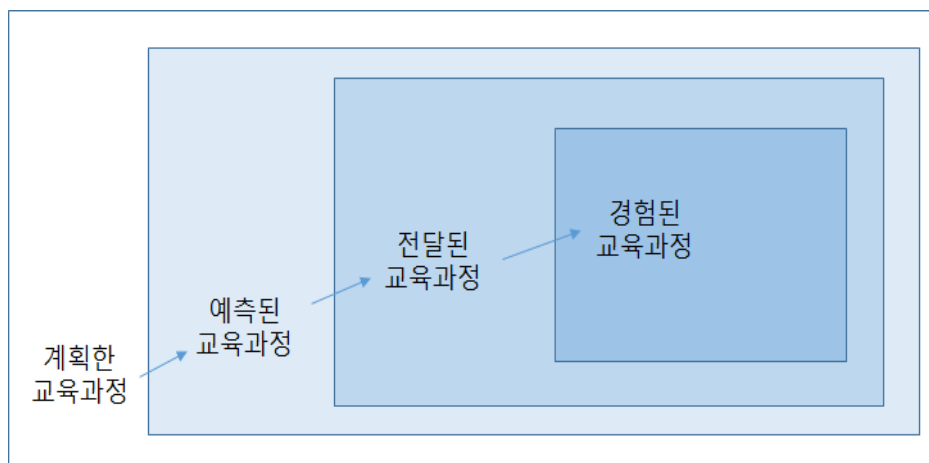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학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수준에 따라 그 평가 목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은 첫째, 대학 수준에서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가장 광범위한 수준에서 교과과정인 전공과정과 교양과정을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과대 수준에서 단과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공과정과 교양과정의 비율을 다시 재조정하며, 비교과과정으로 봉사활동이나 영어자격기준 등과 같이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을 규정한다. 셋째, 학(부)과 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며, 이는 위의 두 수준에 비해 상당히 세부적인 항목에서 전공과정과 교양과정의 학점을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부)과의 특성에 고려하여 전공과정을 다시 세분화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의 교과목을 지정하고, 그 최소이수학점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교수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는 해당 학기에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강의계획서 작성에서 실제 수업,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며, 이 수준에서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영역과의 중첩이 가장 높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개발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각 수준에 맞는 내용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내용의 범위 혹은 전공과 교양의 비율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대학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3)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대상

흔히 대학 교육과정 질 판단의 대상을 공식적 교육과정, 즉 교육과정 편성에 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은 공식적 교육과정에 비해 실제적 교육과정의 범위와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상세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Stark 등(1986)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개념 유형은 설계된 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정, 전달된 교육과정, 경험된 교육과정 등 4가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흔히 이들 유형간 교육과정의 내용, 범위, 효과성 등에 있어서 서로 관련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학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구분된 개념 유형들 각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각 유형의 평가에 따라 교육과정 평가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정 전체적 질 판단을 위해서는 이들 개념 유형을 모두 반영한 평가 지표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1] 교육과정의 유형

첫째, 계획된 교육과정은 실천 유무를 떠나 교수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명시적 학습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커지고는 있으나 설계된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교육내용과 교과목 시퀀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예측된 교육과정은 구체적 과제와 학생에게 예상된 수행의 수준, 그리고 학습자 수행이 측정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특정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관점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설계된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교과목의 내용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나 수행의 수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양교육과정의 기술된 목표에 학생의 효율적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 있다고 하자. 실은 실제 교양교과목의 운영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그러한 효율적 의사소통 능력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목표로 설정은 하였으되, 실제로 평가에서는 그것의 달성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셋째, 전달된 교육과정은 교수가 실제로 가르친 것을 가리킨다. 설계와 달리,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으로 이는 강의마다 매우 다양하며 원 설계 내용과도 달라질 수 있다.

넷째, 경험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것을 가리킨다. 이 또한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며,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하나는 학생별 교과목 이수패턴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별 학습 행동 측면이다. 흔히 학교 경영진들도 주로 설계 과정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 반해, 이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마련이다. 실러버스 분석과는 별개로, 학습자들이 그 수업의 과제에서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느냐, 그들이 실제로 수행해야 했던 글쓰기 과제가 어떤 유형이었느냐, 수업 동안 실제로 목표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가졌는가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특히 경험된 교육과정 중에서 비의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 교사 혹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생활양식, 관점, 인식 등을 잠재적 교육과정(Jackson, 1968)으로 칭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교육과정 분야에서 증대되고 있다.

흔히 교육과정 평가의 초점을 계획된 교육과정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계획된 대로 실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 유형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이들 간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조정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준거

교육과정 평가의 준거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개념을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볼 때,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옥남(2007)은 이들 각 구성요소별 평가 준거를 검토함으로써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준거를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교육목표 평가의 준거를 살펴보면, 교육목표 평가준거에 있어서는 철학적 준거, 심리적 준거, 사회적 준거라는 Tyler의 세 가지 준거에 의사소통적 준거를 덧붙인 김인식과 최호성(1993)의 제안을 종합하였다. 또한, 홍후조(2006)가 제안한 교육목표가 갖추어야 하는 속성을 교육목표 평가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들 속성에 포함되는 준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으로, 개인(학습자), 사회, 학문(교과) 측면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와 연관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성으로, 개인(학습자), 사회, 학문(교과) 측면에 포함되는 대상과 현상을 대부분 포함해야 한다. 셋째, 배타성으로, 진술된 교육목표들 사이에 상호 중복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 넷째, 위계성으로,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소수의 교육목표에서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다수의 것에까지 상하, 전후의 계열적 순서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의사 소통성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한 사람들과 읽거나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실천가능성으로, 교육목표를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도달가능성으로, 교육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구성요소 중 교육내용의 평가 준거에 있어서는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Tyler(1949), 김대현과 김석우(2005), 홍후조(2006), Oliva(2001) 등의 교육내용 구성과 조직의 원리를 평가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 중 Oliva(2001)의 준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Oliva(2001)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조직 원리로 스코프(scope), 적절성(relevance), 균형성(balance), 통합성(integration), 계열성(sequence), 계속성(continuity), 연계성(articulation),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등으로 꼽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스코프는 주로 교육과정의 범위로 정의되며, 주제, 학습경험, 활동, 조직요소, 통합요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스코프(scope)는 수평적 조직 원리로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개념, 기능, 지식, 태도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적절성은 교육내용이 적절하다고 인식되는가의 문제를 의미하며, 이는 학문적 연구와 직업교육과정, 사회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해야 하는 것의 개념,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상대적 이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균형성(balance)은 학생중심과 교과중심, 사회의 요구와 학습자의 요구,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 폭과 깊이,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 개별화 교육과 대중교육, 개별화 수업과 집단 수업, 혁신과 전통, 논리적 성격과 심리적 성격, 특수아의 요구와 일반아의 요구, 영재아의 요구와 지체아의 요구, 방법·경험·전략, 시공간적 거리, 일과 놀이, 학교와 공동체, 학문간, 프로그램간, 학문 내에서의 균형을 의미한다. 넷째, 통합성(integration)은 교과목간, 교과목 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유관한 내용을 묶어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섯째, 계열성(sequence)은 조직 요소들의 순서와 관련된 배치의 문제이다. 여섯째, 계속성(continuity)은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내용을 반복 제시하는 것으로 Bruner의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일곱째, 연계성(articulation)은 조직 요소들의 연결을 의미하며, 계열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수직적 조직 원리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은 학교 학습이 학교 밖에서 적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며, 교육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데에 기반하고 있다.

세 번째, 교육방법의 평가 준거는 교육방법, 교수방법, 교수·학습원리 등을 기준으로 탐색한 결과, Cole와 Chan(1998)의 연구를 적용하여 다음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르칠 과목과 학생의 적성에 알맞은 교수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둘째, 흥미 있고 도전적인 학습경험이 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셋째,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여야 하고, 넷째, 학생들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교육평가의 평가 준거로 평가의 일반 원리를 검토하였는데, 그 중 Sudweeks와 Diamond(1998)는 단과대학 코스에 대한 평가 질문을 프로그램의 논리, 변천사와 현황, 학점과 교육과정 함의, 목표, 맥락, 교수전략, 학생 성취평가를 위한 절차와 준거, 조직, 결과물로 나누어 열거하고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평가 의도에 적합한 질문들을 고르고 추가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중 학생 성취 평가의 절차와 준거, 결과물에 대한 평가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학생 성취 평가의 절차와 준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진보와 성취 증거 수집을 위해 어떤 도구와 절차를 활용하는가?’, ‘학생들의 작업과 성취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떤 준거가 사용되는가?’, 이런 준거들은 어떤 근거로 선택되었는가?’, ‘평가 절차가 코스 내용 및 목표와 일치하는가?’, 어떤 목표나 내용 영역이 평가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가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가?’, ‘평가 도구와 절차가 타당하며, 신뢰로운 결과를 보인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평가 결

과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결과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학생들 간에 공유되는가?', '평가 준거가 교수들 간, 학기 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가?', '평가 양이 적당한가?' 등이 다루어져야 할 질문들이다.

또한 결과 평가와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 '수강생의 몇 퍼센트가 정규 학기 동안 학점이 있는 강좌를 마쳤는가?', 이수 비율은 교수 간, 학기 간 어떻게 다양한가?', '수강생의 몇 퍼센트가 중도탈락을 하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도탈락이 강좌 요인과 어느 정도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는가?', 감소율은 교수 간, 학기 간 어떻게 다른가?', '강좌의 마지막에 학생들이 진술된 목표를 성취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강좌는 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게 충족하도록 돕는가?', 어떤 학생들이 그 강좌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덜 성공적인가?', '이 강좌가 학생들에게 주는 기타 효과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가치, 태도, 강조점, 관심, 열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학생들의 공부 습관이나 다른 행동 패턴이 변화하는가?', 이러한 효과들이 확산되거나 의미가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5)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지표

평가 지표의 결정은 대학 교육과정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검토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설계된 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정, 전달된 교육과정, 경험된 교육과정 등 대학 교육과정의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평가 지표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며, 평가의 초점에 따라서도 다양할 수 있다. 아래 <표 II-1>은 Ewell(1997)이 제시한 지표의 예시를 재구성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는 여러 측면의 교육과정 평가나 초점을 달리하는 교육과정 평가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학 교육과정의 평가 자료는 대학요람 및 교수 계획서, 증명서 및 각종 학생기록부, 교수 및 학생의 기록물들, 직접적 평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범위, 학생 선택권, 시퀀스 및 구조, 교육목표 간 정합성, 그 실현정도, 교수와 학습자의 교수(teaching) 및 학습정도 등이 평가 가능할 것이다.

<표 II-1> 대학 교육과정 평가 지표 사례

| 평가 검토 자료 | 대학 교육과정 평가 지표 | |
|-----------------------|--|---|
| | 예시 지표 | 설 명 |
| 대학요람 및 교수계획서 | 교육과정의 내용 범위 | 전체 교양교육 이수 학점 비중 혹은 특정 분야 교과목에 할애된 이수 학점 비중 기초학습기능 개발(쓰기, 수학, 의사소통 등)에 할애된 이수 학점 비중 |
| | 학생 선택권 | 교육과정 이수 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의 수에 대비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수 |
| | 학문분야 집중화 경향 | 주 전공분야 수료를 위해 필요한 해당 전공 분야 교과목 이수 학점 수(혹은 비중) |
| | 시퀀스 및 구조 | 특정 프로그램 이수에 필요한 선수 필수 이수과목의 비중 |
| | 기초학습기술 | 특정 프로그램 이수에 요구되는 글쓰기 평균 과제량 |
| | 교육목표간 정합성 | 명기된 학습 성과 혹은 일반 교육목표들 간의 관련성 및 일치성 |
| 증명서 및 각종 학생 기록부 | 특정 학문분야 혹은 기술 경향성 | 외국어로 진행되는 특저 교과목에 등록한 적이 없는 졸업생의 비율 |
| | 특정 시점 기준 경향성 | 당해 학생의 최소 3/4 이상이 수강한 과목의 비율 |
| | 교육과정 정책의 실행 여부 | 대체과목, 선수과목 등록 비율 |
| | 교육과정 설계 시퀀스 실현 정도 | 선수과목 이수 완료 후 특정 교과목 이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 |
| | 교육과정 선 이수 준비 과정의 적절성 | 다양한 조건별(선수과목 이수한 학생 및 이수하지 않은 학생, 선수과목 이수 후 오랜 시간 경과한 후 수강한 경우 및 선수과목 이수 전 수강한 경우) 수강생들의 상급 과정 교과목의 평균 학점(또는 C 이상 비율) |
| | 학습 성과 측면에서, 교육과정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기여 정도 측정 | 표준화검사, 인증, 자격증 취득 등 외부 평가 및 성취와 관련되어 학생들이 이수한 교과목 |
| 교수 및 학생의 | 학습자 노력의 질 정도 | 수업 이외에 학생들이 학습에 소비한 주별 평균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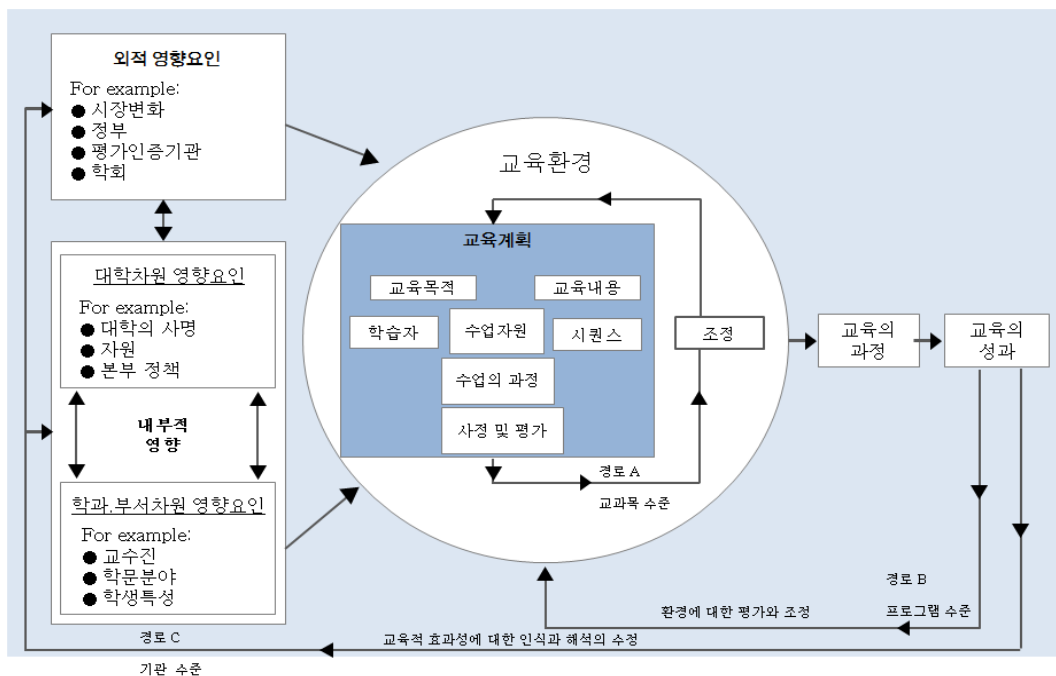
| | | |
|-----------|-----------------|--|
| 기록물들 | 능동적 학습 정도 | 교과목에 관련된 주제에 관해 동료들과 토론한 높은 수준의 과제 경험, 수업 이외에 교과목에 관련된 주제에 관해 교수와 면대면 대화한 경험 |
| | 학습 연관성 정도 | 교양과목에서 제시된 자료 혹은 다루어진 아이디어와 동시에 수강한 다른 과목들 간의 연계성 체감 정도 |
| | 피드백 빈도 | 교수자로부터 한 주 내에 피드백 받은 과제를 되돌려 받는 비율 |
| | 수업 비중 | 교수의 주당 수업, 상담, 기타 수업 관련 과제의 수당 시간 |
| | 수업 풍토 | 교수가 수업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받거나 지원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 |
| | 교실 행동 | 그룹 과제, 능동적 학습 기술, 현장 연구 등을 실행한다고 응답하는 비율 |
| 직접적 평가 자료 | 전달된 교육과정의 통합 | 교양과목의 글쓰기 과제 수 |
| | 전달된 교육과정의 내용 범위 | 전체 교과목에서 글쓰기 과제 수 |
| | 교육과정의 통합성 | 사전검사에서 발생하는 실수의 수 및 형태 |
| | 학사 정책 | 선수기능의 사전 검사에 관련된 수행 |

3. 대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모형화

본 절에서는 Lattuca & Stark(2009)이 대학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그림 II-2]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수준과 각 수준의 평가 특성을 모형화하고자 한다. 이는 곧 한 대학의 교육과정이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질 높은 교육과정임을 인정받게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대학 교육과정의 질 비교 및 판단을 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II-2]는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전체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경로 A는 교과목 수준에서 교육과정 평가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과목 목표를 고려한 교육내용이 선정 및 조직되고 수업자원을 통해 수업이 실제 진행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와 사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

로 A와 경로 B는 프로그램 수준에서 교육과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성과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내의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을 점검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판단을 거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경로 C는 프로그램 모니터, 평가 인증, 외부에 위임한 프로그램 점검 등과 같은 대학수준에서의 평가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2] 대학 교육과정 평가 모형

위 모형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 평가의 최종 관심은 학생의 교육성과에 모아지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Lattuca & Stark(2009)는 경로 A와 경로 B는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형성평가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 성과가 평가의 주요 관심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다음으로 정리하고 있다.

- 학생의 성장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 교과목 계획, 프로그램 기획, 수업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서

- 교수자간 대화를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적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 책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 공적 연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 교·강사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 학습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

위의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인가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과정 평가 활동은 교육의 최종 성과가 무엇인가와 그것을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다. 결국 교육과정 평가의 최종 목적이 학습자의 학습성과 도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 교과목 수준의 교육과정 평가

Stark 등(1988)의 연구에 따르면, 교과목 계획에 대해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에서 교수들 대부분이 자신이 담당할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문적 배경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수업의 수준에서 교육내용이 빈번하게 조정되지만 학(부)과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는 그 교과목에 대해 교수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둘째는 그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셋째는 학생들이 교과목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는가, 넷째는 동료 교수들이 그 교과목을 어떻게 판단하는 가로 이하에서 하나씩 검토해보기로 한다.

첫째, 전문가적 판단을 통한 교과목 교육과정의 평가 방식이다. 교수진들은 자신들의 교과목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한다. 교과목들이 주로 교수들의 전공 내용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과목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교수들은 주로 글쓰기 과제, 퀴즈, 월별 시험, 문제해결

중심의 과제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자신들이 해결해주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혹은 수업시간이나 개별 상담시간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실습 동안 보여지는 기능 수준 등을 통해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하기도 한다.

둘째, 학생의 의견을 기초로 한 교과목 교육과정 평가 방식이다. 교수들에 따라서는 주기적인 학생들의 피드백을 교과목 교육과정의 평가에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생 위원회를 만들어 매주 학생의 향상 정도와 반응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학기말에 학생들을 면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기말 수업평가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교과목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의 피드백을 취합하여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Beck, 2006; Seldin, 1999). 많은 연구들(Cashin, 1988; Feldman, 1976; Marsh, 1984, 1987; Marsh & Bailey, 1993; Marsh & Dunkin, 1991)에서 밝혀진 바,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과목 평가는 학생들에게 있어 “좋은 수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면서 수업 행동에 대한 타당한 정보 자원이라는 점이다.

학생 피드백을 교과목 교육과정 평가의 자원으로 삼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미국 국립 고등교육 교수학습연구센터(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Postsecondary Teaching and Learning; NCRPTAL)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들의 48%가 학생의 피드백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학기 교과목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 수업 수행에 대한 평가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 과정에 대한 선택은 교수가 결정한 교육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내용 선택, 수업 자료의 유용성, 교과목 내용 계열의 적절성, 평가의 효과성 등과 같은 교육과정의 다른 측면 역시 교과목 교육과정의 질과 학생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긴 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교과목 교육과정 평가에 늘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학생의 성취를 근거로 하는 교과목 교육과정 평가 방식이다. 교과목 교육과정의 성공 여부와 개선점을 학생이 그 교과목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체계적 교과목 설계 모형을 따르는 교수들은 흔히 명문화된

교과목 교육목표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그 목표들을 성취해야 할 범위까지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한다. 교과목 교육목표를 명문화하지 않은 교수들조차도 학생들이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학생의 인지적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명문화된 목표 진술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은 교과목 교육목표를 습득할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교수들이 어떻게 교과목을 평가하고, 학생들이 교과목 교육목표를 성취하였는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을까?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교수들이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시험 결과(62%), 학생 보고서(51%), 토론 및 학생 참여 관찰(50%), 과제 완성도(47%), 학생 얼굴 관찰(46%), 수업 출석(40%), 수업 후 토론 관찰(21%), 학생 평가(21%), 연구실 방문 횟수(15%), 학생의 글 쓰기(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tark et al., 1990).

또한 미국 국립 고등교육 교수학습연구센터(NCRIPTAL)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과 수학 등의 학문분야 교수들은 시험을 통해 문제 해결이나 정보 수집 능력 등에 근거하여 학생 성취를 정량화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들이 그 분야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개념이나 원칙의 습득을 확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의 교수들은 학생의 학습을 계량화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선다형 시험 등 계량화된 시험보다는 에세이, 연구보고서, 학생 활동의 포트폴리오, 글 쓰기 과제, 대화 등을 활용하는 경향이 컸다. 이 분야의 교수들은 학생 발달을 개별화된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구조화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정답을 강조하는 데 비해, 학생 활동에 있어 개인적 통찰이나 창의성 등에 보상을 주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교수들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학생의 성취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넷째, 동료 교수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교과목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미국 국립 고등교육 교수학습연구센터(NCRIPTAL) 연구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계획과 조정에 가까운 동료의 판단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함이 드러났다. 학과 동료, 학과장은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동일 분야의 다른 대학 교수들, 다른 분야의 학내 교수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사는 다른 동료 강사

들보다 교과목 설계와 조정에 대한 견해를 학과장으로부터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Lowther et al., 1990).

또한 교수들 상호 간에 교과목을 평가하고 향상을 도와주는 방식이 만족도와 유용성이 크다고 보고되었으며, 수업 컨설턴트가 교과목 설계의 조정을 도와준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Diamond, 1998). 이는 교수들 간의 대화에 기초하고 있고, 자신의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원천에서 모아진 견해를 얻게 되고, 그 견해가 유용함을 경험한 다음에는 컨설팅을 다시 요청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수준의 교육과정 평가

흔히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나 고등 교육기관들은 통상 프로그램 내의 교육과정 효과성과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교수진들 자체적으로 실시하곤 한다. 대개의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자체 평가, 프로그램 검토, 프로그램 인증 등의 세 가지 측면 중 한 가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들 각자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자체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평가 방식이다. 이는 프로그램 계획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다. 주로 교수진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하게 되는데, 특히 학생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후속되는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잘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프로그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와 조정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이다. 수행 검사(performance examination)를 통해 학습 성과를 사정하는 방법과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평가하게 하는 방식(assessing student perceptions)은 프로그램 평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평가방식이다. 최근 수십 년간 국회의원, 정부 관료, 인증평가기관 등에 의해 가장 강조되어 온 것이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성과물에 대한 수행 평가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거나 그것을 활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두고 본다면 외부 시험을 통해 평가받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기에 가장 돋보이는 반면, 일반교육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목표와 비직업적 전

공 프로그램으로 그 입지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자체 평가는 내부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보통이나, 교과목 평가에 비해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이 더 많이 포함되는 경향은 있다. 프로그램 자체 평가에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각종 자료 검토, 학생 및 교수, 행정가 면담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자체 평가에서는 기관 연구부서 수준에서 이미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그 정보는 학생, 교직원, 예산, 학점, 공간 활용 등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 교육의 질에 대한 의견과 같은 투입 측정치들은 프로그램이 의도하였던 교육의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기관의 연구 부서에서 프로그램 수준의 자체 평가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는 학습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점검의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점검에서,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교직원 집단에서 그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할지, 이후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합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점검은 상급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한 것이거나 위기 시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평가에서는 (1) 그 프로그램이 목적 달성을 잘하고 있는지, (2) 그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3) 이상적 효과와 가치와 괴리된 부분들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특히 “가치”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Lincoln & Guba, 1980). 기술적으로 장점과 가치에 관한 결정은 평가 과정이 형성적인지 총괄적인지와는 무관하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형성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사전에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총괄평가에서 가치에 대한 결정을 확정짓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효과(merit)와 가치(worth) 간의 현격한 괴리의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한 프로그램이 공학 분야로 해당 대학의 미션을 수정한 경우 그 프로그램의 효과와 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그 사회사업 프로그램이 우수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효과도 높은 것으로 입증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학은 자체의 미션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그 사회사업 프로그램은 그

대학에 그다지 높은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지는 못할 것이다.

기관 차원에서 위임받은 프로그램 점검은 때때로 교직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데 그 이유는 다른 학과의 동료들에게 냉혹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학문 영역의 특성상 점검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관 점검이 프로그램의 폐지나 축소로까지 이어지는 치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적 프로그램 인증을 통한 프로그램 평가 방식이다. 모든 직업 프로그램이 인증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은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몇몇 프로그램들에서는 특정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문 인증을 받기도 한다. 흔히 프로그램 인증 평가 방식에서는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안할 유사 분야의 동료 교수진으로 구성된 평가팀이 일정 기간 방문하는 실사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인증협회와 미 교육부가 위임한 인증평가 기관은 60여 개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인증평가들은 대부분 실사 방문에 앞서 프로그램 자체 평가가 실시되고, 평가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실사는 흔히 자체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 평가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평가는 목적이나 미션을 수정하기보다 교육과정의 개별 요소들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학 수준의 미션은 프로그램 목적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들은 시대와 요구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를 주게 된다. 여기에서는 대학 수준에서 외적 요인의 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수준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한 교육과정 평가가 가능하다. 많은 대학들은 모든 소속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정부의 관리감독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사립대학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대학 수준의 평가에서는 흔히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자신의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의 학생들로부터 얻는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대학 수준의 자체 평가 보고서는 프로그램과 교과목에 대한 기존 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취합하여 교육과정 전체를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학생 교과목 평가를 변화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고, 몇몇 프로그램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센터나 수업공학센터 등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수준의 평가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미션 측면에서의 변화보다는 계열성 측면의 조정이나 수업 과정과 자원 등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인증을 위한 자체 보고서를 통한 교육과정 평가가 가능하다. 대학들이 협회 등과 연합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변화를 위해 필요한 권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지의 자발적 인증 시행은 20세기 초반부터 실시되고 있다. 인증제는 1945년 미국 정부가 인증기관들에 대학의 질을 확인해주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 수준의 평가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교육협의회, 공학교육인증원, 간호교육평가원 등의 인증기관이 부여받은 인증 권한으로 인해 대학 수준의 평가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모든 대학들은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적 향상을 위해 효과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그 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증기관들은 기관의 인증 평가 시에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수행을 통해 평가해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부 검토를 통한 교육과정 평가가 가능하다. 외부 주도의 평가는 자체 보고서를 위한 이해관계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공립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프로그램 점검을 필수로 하고 있다. 외부 검토의 과정은 다소 상이하지만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주 정부 당국이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평가받는 기관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자체 보고서를 통해 입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에서는 주 정부 당국이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다음 유형은 대리기관을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 유형은 주 정부 당국의 감독 하에 절차와 준거를 지정해주고, 해당 기관에서 검토를 직접 수행하게 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4. 대학 교육과정 평가의 최신 동향

1) 한국의 대학 교육과정 평가

국내 대학 교육과정 평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대학평가는 그 목적과 주관 기관에 따라 대학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인증, 언론사 대학평가, 정부재정 배분 사업평가, 정부재정지원 대학 평가, 자체진단 및 컨설팅 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평가항목은 대학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여,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중앙일보대학평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평가, 재정지원 대학 평가 등 국내 대표적인 대학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교육과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항목을 추출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II-2> 국내 대학 평가

| 구분 | 목적 | 주관 기관 | 평가유형 평가방법 | 평가지표 |
|------------------------|--|-------------|--|---|
| 대학기관 평가인증 (2011) | 세계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추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음 | 한국대학평 가원 | 평가유형: 절대평가 대학의 최소 기본요 건 충족 여부 확인 평가방법 정성평가(정량평가 일부 포함) 서면 및 현지방문평 가 | 6개 영역, 17개 부문, 54개 준거 |
| 중앙일보 대학평가 (1994) |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소비자에게 올바른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중앙일보 | 평가유형: 상대평가 각 지표별 각 대학 의 표준화 점수(Z값) 와 가중치를 활용한 점수를 합산하여 대 학별 순위 제공 | 평가지표 및 배 점: 30개, 300점 교육여건(90점) 국제화(50점) 교수연구(100점) 평판사회진출도 (60점) |

| | | | | |
|---------------------------------------|--|--|---|---|
| 교육역량 강화사업 (2013) |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학부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학부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학부교육 역량 제고의 핵심지표로 지원대학을 선정하여 교육성과 제고 유도 대학의 특성화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른 자율적 역량강화 지원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 교육부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 평가유형 및 방법: 상대평가-대학유형 별 평가지표를 적용 하여 대학별 순위에 따라 재정 지원 | 평가지표 (3개)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교원양성대학 |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평가 (2012) | 창의적인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 력 있는 선도대학 중점 지원 대학의 강점과 건학이념 등을 반영한 특성화된 다양한 학부 교육 선진 모델 창출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육성을 통해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의 정착을 유도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 의 총체적 개선 대학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창의적 융합시대에 걸맞는 교 육과정 개발·운영과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지원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내 학사조직 개선, 교육의 질관 리 체계 구축, 교수-학습체제 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 | 주 관 기 관 : (사)한국대학 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 가원 평가사 업관리팀 | 평가유형: 상대평가, 평가위원회의 서면 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 학 선정 및 대학별 지원금 최종 확정 | (학부교육 선진 화 역량, 70%) 기본적 교육여 건 및 성과, 학 부 교육 선진화 를 위해 특성화 된 교육역량 평 가 (학부교육 선진 화 계획, 30%)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등을 중 합 평가 |
| 재정지원 대학평가 (2013) | 하위 15% 대학 선별을 통한 대학구조조정 | 교육부 | 평가유형: 상대평가 재정 지원 제한대학 선정시에는 정량평 가로 하위 15%를 선별함 | 평가지표: 8개 |

(1) 교육과정 평가 지표 비교

국내 평가 인증으로부터 수집된 규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관련 평가 지표만

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대학기관 평가 인증 평가지표와 산식

대학기관 평가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과 교육이라는 두 개의 평가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7개의 평가 부분 및 각 평가 부분별 평가 준거 총 20개를 제시함으로써 가장 종합적으로 대학 교육과정을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며,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표 II-3> 대학기관 평가 인증 평가지표와 산식

| 평가영역 | 평가부문 | 평가준거 | 산식 |
|----------------|-----------------|------------------------|---|
|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 1.1.1 교육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요람 첨부 |
| |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서 및 특성화계획서 첨부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자료 |
| | |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연도별 평가자료와 반영 근거 자료 |
| | 1.3 자체평가 | 1.3.1 자체평가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자체평가 결과 반영 실적 보고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 첨부 대학 자체평가 결과 반영 자료 |
| 2. 교육 | 2.1 교육과정 |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목표와 인재상이 반영되어 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황 보고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기준 첨부 |
| | |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졸업 이수 보고 학점(단과대학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비율(단과대학별) |
| | |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관련 규정 대학요람 등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현황 자료 첨부 수강신청 안내 책자 첨부 |

| 평가영역 | 평가부문 | 평가준거 | 산식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간표 첨부 부전공, 복수전공, 다전공 졸업자 현황 자료: 최근 3년간 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연계한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목록) 전공 교육목표와 연계한 전공교육과정 운영 현황(목록) 단과대학 내 학과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 비율 현황 |
| | |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실습·실기 과목 비율(계열별) 보고 대표 10개 학과(계열별로 고르게 표집)의 실험·실습·실기 교육 실시 현황: 수업계획서, 실습일지 등 |
| | |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보고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목록 |
| | |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 $\text{외국대 학과의 학점교류 비율} = \frac{(\text{파견인원} + \text{유치 인원})(\text{명})}{\text{학부 정원 내외 재학생수}(\text{명})} \times 100$ <p style="text-align: right;">기준값 0.2</p> |
| | |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교육과정위원회 회의자료: 최근 5년간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개편 실적 자료: 최근 5년간 |
| 2.2 교수·학습 | | 2.2.1 수업 규모 | $\text{20명 이하 강좌 개설 비율}(\%) = \frac{\text{20명 이하 개설 강좌(수)}}{\text{총 개설 강좌(수)}} \times 100$ <p style="text-align: right;">기준값 25 이상</p> $\text{101명 이상 강좌 개설 비율}(\%) = \frac{\text{101명 이상 개설 강좌(수)}}{\text{총 개설 강좌(수)}} \times 100$ <p style="text-align: right;">기준값 2.5 이하</p> |
| | |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TL 조직 및 구성원의 전문성 보고 CTL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최근 3년간 보고 CTL 관련 규정 CTL 구성원의 개별 경력 사항 CTL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 자료: 최근 3년간 |

| 평가영역 | 평가부문 | 평가준거 | 산식 |
|----------|----------|----------------------------|---|
| | |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TL의 교수·학습 자료 자체 개발 현황: 최근 3년간 보고 CTL에서 실시한 교수·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목록 및 관련 발간물 자료: 최근 3년간 CT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 최근 3년간 |
| | 2.3 학사관리 | 2.3.1 학사관리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관리 관련 규정(성적평가, 강의평가 관련 규정 포함) |
| | | 2.3.2 성적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평가 결과 |
| | | 2.3.3 수업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평가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방법: 최근 3년간 보고 학사관리 관련 규정(성적평가, 수업평가 관련 규정 포함) 수업평가 결과 통계 자료: 최근 3년간 수업평가 사후 조치 결과: 최근 3년간 |
| | |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 실적: 최근 3년간 보고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최근 3년간 보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 결과 자료: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 현황: 최근 3년간 학사경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자료: 최근 3년간 |
| | 2.4 교육성과 | 2.4.1 졸업생의 취업률 | $\text{취업률 (\%)} = \frac{\text{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종사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명)}}{\text{졸업자 (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 직장가입제외대상자)(명)}} \times 10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기준값 45 (단, 종교 관련, 예체능 계열 학생 비율 50% 이상 대학은 기준값 30임)</div> </div> |
| | | 2.4.2 교육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교육만족도 조사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방법 보고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설문지, 분석 결과 등 |
| 평가영역: 2개 | 평가부문: 7개 | 평가준거: 20개 | |

나) 중앙일보 대학 평가지표와 산식

중앙일보의 대학 평가지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 자체보다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을 초점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 교육 질 제고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평가에서 그 핵심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그 주변부만 평가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다.

<표 II-4> 중앙일보 대학 평가지표와 산식

| 부문 | 지표 | 산식 | 가중치 |
|-------------------|-------------------|---|-----|
| 교육 여건 (90점) | 1. 교수당 학생수 | 학부+대학원 재학생/전임 이상교수수(2013년 4월1일 기준) | 10 |
| | 2.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율 | (장학금 총액/등록금 징수총액)*100 | 15 |
| | 3. 교수 확보율 | (전임이상 교수 수/교수 편제정원)*100 | 10 |
| | 4.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 | 도서자료 구입비/재정정원 | 5 |
| | 5.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 (교육비 총액/납입금 총액)*100 | 15 |
| | 6. 세입 중 납입금 비중 | (납입금/세입) * 100 | 10 |
| | 7. 학생 총원율 | (학부 재학생/학부 편제정원)*100 | 5 |
| | 8. 중도 포기율 | 중도탈락 학생수/ 학부재적생 수*100 | 5 |
| | 9. 세입 대비 기부금 | (기부금/세입)*100 | 5 |
| | 10.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 (현장실습프로그램 참여학생 수)/(전체 학부 재학생 수-예체능계열 재학생 수-사범계열 재학생 수-수·의약학 계열 재학생 수)*100 | 10 |

다) 교육역량강화사업(2013)

교육부와 대교협은 (1)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학부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현장중

심의 학부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2) 학부교육 역량 제고의 핵심지표로 지원대학을 선정하여 교육성과 제고 유도, (3) 대학의 특성화된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적 역량강화 지원, (4)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교원양성 대학 등 설립주체와 설립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성과지표와 여건지표로 구분되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 투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등 대학전반에 대한 평가를 아우르고 있다.

<표 II-5> 사립대학 평가지표

| 구 분 | 성과지표(32.5%) | | 여건지표(67.5%) | | | | |
|-----|-------------|---------|-------------|----------------|---------|----------|--------------|
| | 취업률 | 재학생 충원율 | 교원 확보율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장학금 지급률 | 학생 교육 투자 |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
| 비율 | 15% | 17.5% | 12.5% | 22.5% | 10% | 10% | 12.5% |

<표 II-6> 국공립대학 평가지표

| 구 분 | 선진화 지표(5%) | 교육역량강화지표(95%) | | | | | | |
|-----|------------|---------------|---------|------------------|----------------|---------|----------|--------------|
| | | 성과지표 | | 여건지표 | | | | |
| | 기성회 회계 건전성 | 취업률 | 재학생 충원율 | 배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장학금 지급률 | 학생 교육 투자 |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
| 비율 | 5% | 15% | 17.5% | 10% | 22.5% | 10% | 10% | 10% |

<표 II-7> 교원양성대학 평가지표

| 구 분 | 선진화 지표(5%) | 교육역량강화지표(95%) | | | | | | |
|-----|---------------|---------------|------------|-------------------|----------------------|------------|----------------|--------------------|
| | | 성과지표 | | 여건지표 | | | | |
| | 기성회 회계 건전성 | 임용시험 합격률 | 재학생 충원율 | 배정 전임교원 확보율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장학금 지급률 | 학생 교육 투자 |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
| 비율 | 5% | 22.5% | 10% | 10% | 17.5% | 12.5% | 12.5% | 10% |

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평가(201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1) 창의적인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 중점 지원, (2) 대학의 강점과 건학이념 등을 반영한 특성화된 다양한 학부 교육 선진 모델 창출, (3) “잘 가르치는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육성을 통해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의 정착을 유도, (4)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 (5) 대학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창의적 융합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지원, (5)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대학 내 학사조직 개선, 교육의 질관리 체계 구축, 교수-학습체제 개선 등을 동시에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목적 그 자체로만 판단한다면 교육과정 평가와 가장 가까운 평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항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1) 학점관리, (2) 소규모 강좌,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4) 시간강사 강의로 단가와 같이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 지표 중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영역의 평가지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 지표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여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구성 요소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평가지표의 수정이 요구된다.

<표 II-8>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평가지표 및 산식

| 영역 | 항목 | 평가 내용 | | 산식 |
|-------------------------|----------------------------------|-------------------------|------------|--|
| 학부교육선진화 역량 (700점) | 1. 기본 교육 여건 및 성과 (500점)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학점관리 현황 | <p>1. 전공과목 【등급(평점)】 :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평점). 전공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평점)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 대학정보공시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한 후 등급(평점)을 입력해야 함 【비율(%)】 : (해당 등급(평점) 성적인정학생수/전공과목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p> <p>2. 교양과목 【등급(평점)】 :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평점). 교양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평점)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 대학정보공시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한 후 등급(평점)을 입력해야 함 【비율(%)】 : (해당 등급(평점) 성적인정학생수/전공과목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p> <p>3. 교직과목 【등급(평점)】 :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등급(평점). 교직성적인정학생총수를 등급(평점)에 따라 분류하여 입력 ※ 대학정보공시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한 후 등급(평점)을 입력해야 함 【비율(%)】 : (해당 등급(평점) 성적인정학생수/성적인정학생총수) × 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p> <p>4. 졸업생의 졸업학점 졸업자 :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졸업자로 학사 등록이 된 자 【학과(전공)별 평균 졸업평점평균】 : 각 학과(전공)별 졸업자 평점평균의 평균 ※ 산식 : 학과(전공)별 졸업자 졸업평점평균의 합/학과(전공)별 졸업자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만점평점】 : 대학정보공시입력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학교별로 4.0/4.3/4.5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됨 【학과(전공)별 졸업 백분율점수 평균】 : 각 학과(전공)</p> |

| 영역 | 항목 | 평가 내용 | | 산식 |
|----|----|-------|----------------------|--|
| | | | | 별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평균 ※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는 학교 자체의 백분율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 산식 : 학과(전공)별 졸업자 학점당 백분율점수의 합/학과(전공)별 졸업자 수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 자리까지 입력 【백분율점수구간】: 9개로 분류한 백분율점수구간에 각 졸업자의 학점당 백분율점수를 학생수와 비율로 표시 【비율(%)】: (해당 백분율점수구간 졸업자 수/총 졸업자 수)×100,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시 |
| | | | 소규모 강좌 비율 | 학기별로 개설된 모든 강좌를 수강인원 20명 이하, 21~50명, 51~100명, 101~200명, 201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 $(\text{소규모 강좌 수} / \text{전체 강좌 수}) \times 100$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text{강의담당학점} / \text{총 개설 강의 학점}) \times 100$ |
| | |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 | 직접 입력 |

마)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지표와 산식

현재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평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계 및 대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특히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의 평가지표는 실제로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표 II-9>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평가 지표와 산식

| | 배점 | 대학 | 전문대 |
|----------------------|-----|--|--|
| 취업률 | 20 | $0.7 \times (\text{'12.6.1일자 취업률} + \text{국세DB취업률})$ $+ 0.3 \times (\text{'11.12.31일자 건보DB 취업률} + \text{예체능계 인정 취업률})$ ※ 나머 취업률은 각각 T점수화 | |
| 재학생 충원율 | 30 | $0.4 \times (\text{전체 재학생 수} / \text{편제정원})$ $+ 0.6 \times (\text{정원내 재학생 수} / \text{편제정원})$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로 환산하여 평가 | 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로 환산하여 평가 |
| 전임교원 확보율 | 7.5 | 전임교원 수 / 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 |
| 교육비 환원율 | 7.5 | 총 교육비 / 등록금 수입 ※ 총 교육비에 도서구입비, 교육용기계·기구매입비 추가 | |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10 | $0.5 \times \text{학점관리 현황}^*(\text{T점수}) + 0.2$ $\times \text{소규모 강좌 비율}(\text{T점수}) + 0.15$ $\times \text{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text{T점수}) +$ $0.15 \times \text{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 (T점수) * 학점관리 현황 : $1 - (0.4 \times \text{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times \text{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times \text{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학점관리 현황*(T점수) * $1 - (0.4 \times \text{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times \text{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times \text{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 장학금 지급률 | 7.5 | $0.8 \times \text{장학금 지급률}(\text{T점수}) + 0.2 \times \text{학비감면 실적}^*(\text{T점수})$ * 학비감면 실적 = $0.6 \times \text{등록금 감면율} + 0.4 \times \text{경제적사정곤란자 감면율}$ | |
| 등록금 부담 완화 | 7.5 | $100 - (0.4 \times \text{'11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6 \times \text{'12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4 \times \text{'11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ext{T점수}) + 0.6 \times \text{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text{T점수})$ ** $0.4 \times \text{'12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ext{T점수}) + 0.6 \times \text{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text{절대점수})$ | |
| 법인 지표 | 5 | $0.5 \times \text{법인전입금비율} + 0.5 \times \text{법정부담금 부담률}$ | |
| 산학협력 수익률 | 5 | | - '12년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산정방식과 동일 *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추후 공고 예정 |

바) 학사관리 관련 평가 지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대학기관 평가 인증 평가지표를 제외한 중앙일보 대학평가지표와 교육부의 평가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을 대학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핵심적 요소가 아닌 부수적 요인들을 평가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평가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지표는 ① 학점관리, ② 소규모 강좌 비율, ③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④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를 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개설된 교과목을 학생들이 고르게 선택하고, 이러한 교과목이 전임교원에 의해 강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Newman, 1982)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 요인들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원천인 학문, 학습자,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각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이들의 요구를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 평가는 학문, 학습자,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들의 요구를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먼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대학 교육과정 평가

(1) 미국의 대학평가인증 배경

미국의 고등교육은 양적 규모에 있어서나 질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었다. 미국에서의 학문분야 대학평가인증 제도의 역사는 100년 이상이 된다. 평가인증은 ‘비정부 조직에서 개별 대학과 대학의 프로그램을 미리 설정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인정여부를 결정·공표하는 절차’인데, 이 같은 평가인증의 개념은 미국 대학평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오성삼 외, 2005).

미국의 평가인증 제도는 미국 고등교육의 복잡성을 반영하듯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분권화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고등교육 평가인증이 미국 50개 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인증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수천 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고등교육평가는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이 각각 구분되어 실시된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지역 평가인증기구(Regional Accrediting Organizations)와 전국 평가인증기구(National Accrediting Organizations)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은 전문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구(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Accreditors)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들 평가인증기구는 기본적으로 민간 비영리 평가기구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평가인증과 대학교육의 질 보증 활동이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과 대비된다.

지역단위 평가인증기구는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전 지역을 뉴잉글랜드, 중부, 북중부, 남부, 북서부, 북부의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마다 지역평가인증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구는 해당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단위 평가인증기구의 전신인 지역협회(regional association)가 결성된 것은 대학 행정가들 및 학교들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을 구비도록하기 위함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고등교육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난립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대학과 중등학교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와 행정가들 간의 비공식적이고 사적이었던 기존의 관계로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좀 더 공식적인 기구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기관에 대한 최초의 인증은 1905년 중북부협회(North Central Associa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초의 기관 인증 대상은 대학이 아니라 학교였으며, 대학에 대한 기관 인증은 191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1910년부터 12개의 구체적인 평가인증기준을 개발하고 1913년에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이때부터 미국의 평가인증제 발달을 선도하였다. 인증의 주요

목적은 대학행정가들로 하여금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 혹은 다른 대학에서 지원한 지원자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남부지역기구(Southern Association)가 1917년에, 중부지역기구(Middle State Association)와 북부지역기구(Northwestern Association)가 1921년에, 서부지역기구(Western Association)가 1949년에 각각 평가인증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1952년에 뉴잉글랜드협회(New England Association)가 인증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증제도가 전체적으로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전국평가인증기구 역시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며 전국적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1개의 평가인증기구들이 있으며 이들 기구들이 평가하는 대상은 원격교육기관, 정보공학, 비즈니스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직업교육기관, 종교와 관련된 전문대·대학 등 단일목적의 가진 기관이다. 지역 평가인증 기구는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반면 전국 평가인증기구는 비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구는 주로 전문분야 고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미국 대학 최초의 프로그램 평가인증 사업은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의해서 1910년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평가인증 기구 수는 빠르게 증가되어 2014년 현재 62개의 평가인증기구가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학평가인증은 대학들이 대학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고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 간 질적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인증은 교육의 질과 내용의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대학들을 순위매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 기구가 주도적으로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질 관리 정책

가. 주정부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정부가 교육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해 왔으며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주교육부 혹은 고등교육평의회는 각 주의 정치 및 교육체제에 따라 그 역할과 권한이 매우 다양하다. 그 지배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대학들에 대하여 행재정적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대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해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주로 주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고등교육체제의 효율성, 주정부의 의사결정 능력 향상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개혁이 시도되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다양성에 바탕을 둔 수많은 고등교육의 재구조화가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시장주의에 따른 주정부의 권한이양이 화두가 되었다(LcLendon & Ness, 2003; 고장완, 2008 재인용).

그러나 주정부와 대학의 예산 지원을 통한 행정·재정적 감독이라는 관계는 1990년대 이후 점차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의 배경은 대학의 민영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들 수 있다(고장완, 2008). 대학의 민영화는 광의의 의미로는 주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규제를 최소화하는 행정적 자율성까지 포함하나 협의의 의미로는 대학재정에 중점을 두어 공립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외부 민간재원에 대한 의존 경향이 높아졌음을 지칭한다(Eckel, Couturier & Luu, 2005; 고장완, 2008 재인용). 주정부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재정배분의 우선순위에서 사회의 다른 분야에 밀려 주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한편으로는 등록금을 인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원확보의 다양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부금에 대한 적극적 유치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수익사업의 확대는 대학의 민영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최근의 대학 책무성 논의가 외적 책무성(external accountability)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감이 강조되었고, 또한 대학의 책무성 못지않게 주 차원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주정부들도 고등교육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의 감소에 따라 대학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대학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일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장완, 2008).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student learning assessment)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대학 차원의 분

권적 시도를 통해 자체적인 설립이념 및 교육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수단 개발에 목적을 두었으나, 이후에는 주정부와 지역사회 주민, 기업, 학부모 등 주요 관계자들의 이해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Ruppert, 1994; 김병주 외, 2010 재인용). 특히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방교육통계센터를 통한 IPEDS(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나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그리고 격년제로 시행되는 주별 고등교육 비교평가인 Measuring UP 등을 통해 결과와 성과중심의 교육경쟁을 유도하고 이에 기초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Measuring Up의 경우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표준적인 평가기준과 측정도구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김병주 외, 2010).

나. 연방정부

미국에서 교육의 영역은 주정부의 책임이자 권리로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고등교육 부문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이나 용자·연구비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방정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2006년 연방정부에서 마련한 “고등교육을 위한 실천계획: 접근성 향상, 부담 적정성, 그리고 책무성 확보”를 통해 연방정부가 바라보는 고등교육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다(박남기, 2007).

이 실천계획에 따라 연방정부는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12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전략·모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부담 적정성 차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학자금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 FIPSE 프로그램(FIPSE: 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을 통해 학부중심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중심 대학들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대학생, 이민자 등 비전통적인 대학생을 위한 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학제간 연구, 학부와 대학원 간의 공동 연구, 대학교수법 개발 등 대학교육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는 각 대학의 성과에 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연계하고 자료를 공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예컨대, 주정부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외부 접근이 차단된 고등교육 정보체제를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주와 대학이 학생학습 결과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왔다.

<표 II-10>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연방교육부의 실행계획

| 구분 | 현재 | 개선방안 |
|----------|---|---|
| 접근성 | 25-29세 성인의 학사학위(BA) 취득: 백인 34%, 흑인 18%, 히스패닉 10% 대학생의 40%는 적어도 1회의 보충교육과정 이수(연간 10억 달러 소요) 25-64세의 60% 이상이 고등교육 학위를 갖고 있지 않음 | 정규교육과정(K-12)에서 대학준비 교육 강화 및 대학의 기대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기준 마련 고등학교에서의 NCLB법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 의회와 공조 대학과 노동력 준비도에 대한 주수준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12학년에 대한 NAEP(Nation's Report Card) 검사 재설계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기회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인 문해력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리더십 동원 성인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전략, 모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연방정부의 연구주제 개발 |
| 비용부담 가능성 | '95-'05년간 4년제 대학의 평균 수업료가 51% 상승(사립은 36% 증가) 4년제 대졸자의 평균 부채수준은 공립의 경우 \$15,500, 사립의 경우는 \$19,400 고등교육에 대한 주정부 재정지원은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연방 재정정보조 무료신청처(FAFSA) 작성을 위한 학생들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소득 및 세금 자료를 사용하는데 주정부와 협력 고교 3년이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학자금 신청 적격 여부를 알려줌 연방차원의 요구중심 학자금 지원기금 제공(의회와 공조) 연방금융지원시스템 검토 위한 독립위원회 창립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향상기금(FIPSE)의 회생 일관된 지불능력 측정위해 연도별 대학 자료를 보고하는 기관 격려 |
| 책무성 | 대학 졸업율이 선진국 중 12위로 추락 고등교육분야의 학생 1인당 지출이 2001년 기준 연평균 \$22,000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의 2배 대졸자의 산문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의 비중이 지난 10년동안 40%에서 31%로 하락 | 40개의 고등교육정보시스템을 함께 연결하기 위한 주정부 컨소시엄과 협력 학생들의 학습경과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기관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검토 결과중심의 인증 표준으로의 전환을 권장하기 위해 인증 관련 기관을 소집 소비자들이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부의 대학탐색 사이트 개편(연방교육부는 수요자중심 고등교육통계시스템 구축 완료) |

자료: 김문희(2007). p. 54.

이상과 같이 연방정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발휘하고 있다(최정운 외, 2011). 우선, 성인학습자 증가 등 새로운 고등교육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대학교육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 기관 지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주정부에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교육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점차 연방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사기관들 혹은 연구소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특성상 대학 간 협력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함으로써 그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공개 및 공모경쟁 지원을 통해서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사업 형태를 통해서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3)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여는 주 정부 및 지역단위의 평가인증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대학의 책무성이 중시되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연방정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차원에서의 대학평가인증에 대한 개입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중등교육의 질적 저하와 이민의 확대, 그리고 성인대학생의 증가 등으로 대학교육에서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했으며, 이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미국이 선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현행 평가인증제 하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실력이 직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 실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에 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고등교육법(HEA: Higher Education Act, 1965)을 개정한 고등교육기회법(HEOA: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2008)을 마련하였다. HEOA는 특정 인증 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대학교육의 확대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보편적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최정운 외, 2011).

또한 미국연방정부는 평가인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 하에 주별로 흩어져 있고, 다양한 기관에 의해 다양한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인증을 감시하고 총괄하기 위한 기구의 조직을 모색하였다. 1995년 7월 24개 대학으로 구성된 평가인증에 관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8월에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1996년 5월 1603개 대학 중 약 54%의 참여와 참여대학 9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그해 7월 정식으로 고등교육인증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가. 목적과 성격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는 1996년 설립된 비영리·비정부 기구로서 미국의 대학평가인증을 총괄하는 전국 단위 조직체이다. 대학평가기구들에 대한 인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학생, 학부모,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 지원기관, 정부 및 고용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고등교육인증위원회는 대학 총·학장, 기관 대표 및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2014년 현재 3,000여개의 고등교육기관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으며, 60개의 대학평가기구(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고등교육인증위원회는 대학의 질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률, 그리고 각종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방 의회, 연방 교육부, 주정부를 상대로 활동한다.

나. 기능

고등교육인증위원회는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하는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을 위해 민간 평가기구들을 평가·인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고등교육인증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평가기구들은 전문분야별 평가인증기구(44개), 지역 평가인증기구(8개), 전국단위의 평가인증기구(6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등교육인증위원회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한다. 예컨대, 평가인증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추진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가 인증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확산시킴으로써 평가인증을 통한 자율 규제를

전국적으로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평가인증기구들과 대학 간의 갈등 조정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포럼 및 국제 질 평가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UNESCO, OECD, WTO, GATS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미국 평가인증기구들의 일을 대변하며, 개별인증기구의 국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평가인증기구 및 질 보장 기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미국 고등교육기관과 평가인증기구가 다른 국가들의 대학평가기구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다. 인정자격 및 인정요건

고등교육인증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기구는 자격요건 및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자격요건 | 인정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정부기관일 것 - 고등교육학위를 수여할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일 것 - 인증에 관한 의사결정, 정책, 절차, 그리고 인증범위, 평가준거, 단계별 인증 수준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자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포함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거나, CHED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대안적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 인증결정이 평가기구의 모기관이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것 - 인증을 한 기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재의 인증 효력을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적 수월성을 발전시킬 것 - 책무성을 입증할 것 - 의도적인 변화와 필요한 개선을 촉진할 것 - 의사결정에 있어서 적합하고 정당한 절차를 적용할 것 -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평가할 것 |

라. 인정 유형 및 절차

고등교육인증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정은 최초인정(initial recognition), 계속인정(continuing recognition), 사업변경허가인증(change of scop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평가기구는 최소 10년마다 한 번씩 인정심사(recognition review)를 받아야 하며, 그 사이에 5년마다 중간보고서를 고등교육인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고등교육인증위원회는 평가기구가 이미 인정된 평가활동 범위를 변화시키려할 경우 혹은 이미 다른 기구들로부터 서류상 제출된 민원 등이 있을 경우 평가주기와 관계 없이 해당 기구를 평가할 수 있다.

(4) 요약

미국의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해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와 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구인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지역단위의 평가인증기구, 전문분야 평가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학평가인증 제도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이 각각 구분되어 실시된다.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지역 평가인증기구 및 전국 평가인증기구가 담당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은 전문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등교육인증위원회는 모든 평가인증기관을 통합·관리하는 기구로서 1996년 새롭게 조직되었다. 한편, 이들 평가인증기구는 민간 비영리 기구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책무성 정책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3) 일본의 대학 교육과정 평가

(1) 일본의 대학평가 제도화의 배경

일본의 대학평가는 1947년 법률 26호 “학교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대학 설립과 인가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면서 그 개념이 등장했다. 당시 문부과학성은 독자적인 대학설립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민간단체인 대학기준협회가 회원자격에 관한 심사용으로 제정한 “대학기준”(1947)을 대학의 설립인가에 수반되는 사전심사용 평

가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 평가기준을 10년 후 수정하여 대학설립기준(1956)을 문부성령으로 제정, 대학의 설립인가에 대한 행정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여 대학평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후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학평가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며 이 시기에 대학 평가는 곧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에서 18세 인구, 즉 대학진학인구 예상 인구의 감소현상과 대학의 자기점검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이 사회로부터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즉 대학경쟁력제고를 위한 제 3자 평가 인증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고 1999년 국가조직인 학위수여기구(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 NIAD)에 「대학평가기관(가칭) 창설준비위원회」가 만들어 지면서 인증평가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세계화 추세와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었고, 기존의 대학설립인가기준에 대한 사전 규제는 완화하고 자율성은 부여하는 대신, 자기점검과 평가기능에 대한 쇄신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위수여기구의 법을 일부 개정하여(2000년 4월) 그 명칭을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로 개편하고 미국과 같은 대학평가인증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11월 국회의결을 거쳐 인증평가의 법적근거가 되는 “학교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이 인증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가. 일본의 대학평가제도

2002년 학교교육법 개정 후 일본의 현재 국공사립의 모든 대학,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는 정기적으로 문부 과학 대신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인증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인증평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첫째 평가결과가 공표됨으로써 대학이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평가결과를 통한 대학의 자체적인 개선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문부과학성, 2006). 이 제도는 교육연구, 조직운영 및 시설설비 등의 종합적인 현황 평가를 대학은 7년 이내, 전문직 대학원은 5년 이내를 주기로 실시한다. 평가는 각 인증평가기구가 정하는 평가기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대학 등은 복수의 인증평가기구 중에서 평가를 받을 기구를 선택하게 된다.

인증평가기구는 다음 <표 II-11>에 제시된 문부성의 인증기준을 따르면서 자체적

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11> 문부과학대신의 대학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

(기준 1) 대학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인증평가를 적확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기준 1에 관한 특성>

- 가. 평가 기준이 학교 교육법 및 각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있을 것. 또한 평가 기준의 항목을 대학의 특색 있는 교육 연구의 진전에 이바지 관점에서 설정하고 있을 것.
- 나. 평가 기준의 결정에 즈음하여 방안의 공표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을 것.
- 다. 평가 방법으로 자기 점검·평가의 분석 및 현장 조사를 포함할 것.
- 라.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은 간행물에 게재, 인터넷의 이용이 필수적임.
- 마. 법과 대학원의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이 자격 인증을 받고 있을 것.
 - 대학 평가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평가하고 있다.
 - 대학의 종합적인 상황 평가의 내용에 관해서는
 - 1) 교육 연구의 기본 조직
 - 2) 교원 조직
 - 3) 교육 과정
 - 4) 시설 및 설비
 - 5) 사무 조직
 - 6) 재무
 - 7) 기타 교육 연구 활동 등에 관한 일에 대해
 - 전문직 대학원의 평가에 관해서는
 - 1) 교원 조직
 - 2) 교육 과정
 - 3) 시설 및 설비
 - 4) 기타 교육 연구 활동에 관한 정보

출처: 문부과학성(2006). 인증제도의 개요.

나. 일본의 대학 평가기구

일본의 인증평가기구는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평가의 기준, 방법, 체제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인증기준)을 문부성령에 의해 규정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증평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구의 신청에 따라 문부 과학 대신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한 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다(문부과학성, 2006)

문부과학대신이 인증한 평가기구는 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대학평가),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법과대학원의 평가), 재단법인 단기대학기준협회(단기대학평가), 재단법인 일본변호사연합회 법무연구재단(법과대학원의 평가), 재단법인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대학평가)가 있다. 여기서는 평가기구 중 4년제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대학기준협회,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평가내용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独立行政法人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는 1991년 전문대학·고등전문학교 졸업자 및 전문학교 수료자와 기구가 인정하는 교육시설의 과정의 수료자에게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기구로 국립학교설치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가의 기관이다. 1998년 대학심의회 「21세기의 대학상과 향후 개혁방안에 관하여」의 답신에서 대학평가를 위한 제3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된 이후, 1999년 학위수여기구에 「대학평가기관(가칭) 창설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00년 4월에는 학위수여기구의 법을 일부 개정하여 학위수여기구에서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로 개편되었다. 이 기구는 대학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예비적인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외국(미국, 한국 등)의 평가인증제의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 7월부터는 최초로 대학평가를 시작하여 2002년에는 처음으로 대학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1) 평가 대상

이 기구는 크게 인증평가와 선택평가로 나누어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평가는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고등전문학교 기관별 인증평가, 법과대학 인증평가가 있다. 선택평가는 대학 기관별 선택 평가기구가 정하는 선택 평가 사항, 인증 평가와는 별도로 기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 3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이외의 타 인증 평가기관에서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기관이 선택 평가만을 기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평가는 대학이 원하는 연도에 신청이 가능하다.

(2) 평가 기준

대학평가기준은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가 학교교육법 제 109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공사립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 등의 종합적인 상황에 관한 평가(이하 대학기구별 인증평가)에 관해 정해진 내용들이다. 대학평가기준은 10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 및 기본적인 관점은 다음 <표 II-12>과 같다.

<표 II-12>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의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기준

| 기준 | 내용 | 기본 관점 |
|---------|--|---|
| 대학의 목적 | 1-1 대학의 목적(사명 교육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방침, 달성하려고하는 기본적인 성과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이 학교 교육법에 규정되어있는 대학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1 - ① 대학의 목적 (학부, 학과 또는 과정 등의 목적을 포함한다)이 학칙 등에 명확하게 정해져 그 목적이 학교 교육법 제 83 조에 규정 된 대학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목적에 적합하고 있는가? 1-1 - ② 대학원을 갖는 대학에서는 대학원의 목적 (연구과 또는 전공 등의 목적을 포함한다)이 학칙 등에 명확하게 정해져 그 목적이 학교 교육법 제 99조에 규정 된 한 대학원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용도에 적합하고 있는가? |
| 교육연구 조직 | 2-1 교육 연구에 관한 기본적인 조직 구성 (학부 및 그학과 대학원 및 그 전공 및 기타 조직 및 교양 교육의 실시 체제)이 대학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일 것. | 2-1 - ① 학부 및 그 학과의 구성 (학부, 학과 이외의 기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이 학사 과정의 교육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2-1 - ② 교양 교육의 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2-1 - ③ 연구과 및 그 전공의 구성 (연구과 전공 이외의 기본 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이 대학원 과정의 교육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고 있는가? 2-1 - ④ 전공과 다른 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이 교육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고 있는가? 2-1 - ⑤ 부속 시설 센터 등이 교육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고 있는가? |
| | 2-2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운영 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작동하는 것. | 2-2 - ① 교수회 등이 교육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한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 등을 검토하는 교무위원회 등의 조직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있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 | | |
|---------------|--|---|
| 교원 및 교육지원자 | 3-1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교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것. | <p>3-1 - ① 교원의 적절한 역할 분담하에 조직적인 연계 체제가 확보되고 교육 연구에 관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된 교원 조직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3-1 - ② 학부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또한 교육에 주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업 과목은 전임 교수 또는 부교수를 배치하고 있는가?</p> <p>3-1 - ③ 대학원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p> <p>3-1 - ④ 대학의 목적에 따라 교원 조직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가?</p> |
| | 3-2 교원의 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 또한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에 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된 교원의 자질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 <p>3-2 - ① 교원의 채용 기준이나 승진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제대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학사 과정에서는 교육적인지도 능력의 평가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는 교육 연구의지도 능력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3-2 - ②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에 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결과 파악 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
| | 3-3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원자의 배치 및 교육 보조자의 활용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 3-3 - ①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사무직원, 기술직원 등의 교육 지원자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또한 TA ¹⁾ 등의 교육 보조자의 활용이 도모되고 있는가? |
| 학생의 수용 | 4-1 입학자 수용 방침 (어드미션 정책) ※)가 명확하게 결정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학생의 수입이 실시되고 있음. | <p>4-1 - ① 입학자 수용 방침 (어드미션 정책)이 명확하게 정해져 가지.</p> <p>4-1 - ② 입학자 수용 방침에 따라 적절한 학생의 수용 방법이 채용되고 있는가?</p> <p>4-1 - ③ 입학자 선발 적절한 실시 체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는가?</p> <p>4-1 - ④ 입학자 수용 방침에 따라 학생의 수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증명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입학자 선발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p> |
| | 4-2 실제 입학자 수가 입학 정원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가 되고 있는 것. | 4-2 - ① 실제 입학자 수가 입학 정원을 크게 초과하거나 크게 밀도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는가? 또한 그 경우는 이를 개선하기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등 입학 정원과 실제 입학자 수와의 관계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는가? |

| | | |
|---------------------|---|---|
| 교육내부 질 보증 시스템 | (학사과정 5-1, 2, 3) 5-1 교육 과정의 편성·실시 방침 (커리큘럼 정책) ※가 명확하게 결정되고 그에 따라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수준이 수여되는 학위 이름에서 적절 있다. | 5-1 - ① 교육 과정의 편성·실시 방침 (커리큘럼 정책)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5-1 - ② 교육 과정의 편성·실시 방침에 따라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수준이 수여되는 학위 이름에 적절한 것이 되어 있는가? 5-1 - ③ 교육 과정의 편성이나 수업 과목의 내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학습의 발전 동향, 사회의 요청 등을 배려하고 있는가? |
| | 5 - 2 교육과정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수업형태, 학습지도법 등이 정비되어 있을 것 | 5-2 - ①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강의, 연습, 실험, 실습 등의 수업 형태의 조합 밸런스가 적절하고 각각의 교육 내용에 따라 적절한 학습지도 방법이 채용되고 있는가? 5-2 - ② 단위의 실질화 ※)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5-2 - ③ 적절한 교과 ※)가 작성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5-2 - ④ 기초 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5-2 - ⑤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 (야간 학부와 주야 개강 제로 (야간 주 코스))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을 배려 한 적절한 시간 비율의 설정 등이 이루어지고 적절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5-2 - ⑥ 통신 교육을 실시 과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쇄 교재 등에 의한 수업 (첨삭 등에 의한 지도를 포함한다), 방송 수업, 면접 수업 (스쿨링을 포함한다) 또는 미디어를 이용하여 할 수업의 실시 방법이 정비되어 적절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5 - 3 학위수여방침(디플로마 정책)이 명확하게 정해져, 이에 따라 정적평가나 단위인정, 졸업 인정이 적절하게 실시되어 유효한 것으로 정해져 있을 것 | 5-3 - ① 학위 수여 방침 (디플로마 정책)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5-3 - ② 성적 평가 기준이 조직으로 책정되어 학생들에게 주지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성적 평가, 학점 인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5-3 - ③ 성적 평가 등의 객관성, 엄밀성을 담보하기위한 조직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가? 5-3 - ④ 학위 수여 방침에 따라 졸업 인정 기준이 조직으로 책정되어 학생들에게 주지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졸업 인증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

| | |
|---|--|
| <p>(대학원 과정, 전문 학위 과정을 포함 5-4, 5, 6)</p> <p>5-4 교육 과정의 편성·실시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그에 따라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수준이 수여되는 학위 이름에서 적절할 것.</p> | <p>5-4 - ① 교육 과정의 편성·실시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p> <p>5-4 - ② 교육 과정의 편성·실시 방침에 따라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수준이 수여되는 학위 이름에 적절한 것이 되어 있는가?</p> <p>5-4 - ③ 교육 과정의 편성이나 수업 과목의 내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학문적인 발전 동향, 사회의 요청 등을 배려하고 있는가?</p> |
| <p>5-5 교육 과정을 배포하려면 적합한 수업 형태 학습 지도법 등 (연구·논문지도 포함한다)가 정비되는 것.</p> | <p>5-5 - ①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강의, 연습 등의 수업 형태의 조합 밸런스가 적절하고 각각의 교육 내용에 따라 적절한 학습지도 방법이 채용되고 있는가?</p> <p>5-5 - ② 단위의 실질화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5-5 - ③ 적절한 교과가 작성되어 활용되고 있는가?</p> <p>5-5 - ④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 (야간 대학원이나 교육 방법의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을 배려 한 적절한 시간표 설정 등이 이루어지고 적절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5-5 - ⑤ 통신 교육을 실시 과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쇄 교재 등에 의한 수업 (첨삭 등에 의한 지도를 포함한다), 방송 수업, 면접 수업 (스쿨링을 포함한다) 또는 미디어를 이용하여 할 수업의 실시 방법이 정비되어 적절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5-5 - ⑥ 전문직 학위 과정을 제외한 대학원 과정에서는 연구지도, 학위 논문 (특정 과제 연구 성과 ※)를 포함한다.)에 관한지도 체제가 정비되어 적절한 계획에 따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
| <p>5-6 학위 수여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그에 비추어 성적 평가 및 학점 인정, 수료증이 제대로 실시되고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음.</p> | <p>5-6 - ① 학위 수여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p> <p>5-6 - ② 성적 평가 기준이 조직으로 책정되어 학생들에게 주지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성적 평가, 학점 인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p> <p>5-6 - ③ 성적 평가 등의 객관성, 엄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가?</p> <p>5-6 - ④ 전문 학위 과정을 제외한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위 수여 방침에 따라 학위 논문에 관한 평가 기준이 조직으로 책정되어 학생들에게 주지되어 있으며, 적절한 심사 체제 아래에서 수료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또한 전문직 학위 과정</p> |

| | | |
|-------------|--|--|
| | | 에서는 학위 수여 방침에 따라 수료 인정 기준이 조직으로 책정되어 학생들에게 주지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수료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
| 재무기반 및 관리경영 | 6-1 교육의 목적과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비추어 학생들이 지녀야 할 지식·기능·태도 등에 대해 학습 성과가 오르고 있는 것. | 6-1 - ① 각 학년과 졸업 (수료)시 등에서 학생들이 지녀야 할 지식·기능·태도 등에 대해 단위 습득 진급, 졸업 (수료)의 상황, 자격 취득 상황 등으로부터, 혹은 졸업 (학위) 논문 등의 내용·수준에서 판단하여 학습 성과가 있는가? 6-1 - ② 학습의 성취도와 만족도에 대한 학생의 의견 청취 결과 등으로부터 판단하여 학습 성과가 있는가? |
| | 6-2 졸업 (수료) 후 진로 상황 등으로부터 판단하여 학습 성과를 올렸는지. | 6-2 - ① 취업이나 진학 등 졸업 (수료) 후 진로 상황 등의 실적으로 판단하고, 학습 성과가 있는가? 6-2 - ② 졸업 (수료) 생이나 취직 등의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결과에서 판단하여 학습 성과가 있는가? |
| 교육정보의 공표 | 7-1 교육 연구 조직 및 교육 과정에 대응 한 시설·설비 등이 정비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 | 7-1 - ① 교육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가 정비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또한 시설·설비의 진화, 장애인 화, 안전·방법 면에 각각 배려가 있는가? 7-1 - ② 교육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ICT 환경이 정비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7-1 - ③ 도서관이 정비되어 도서, 학술 잡지, 시청각 자료 등의 교육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고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7-1 - ④ 자발적인 학습 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
| | 7-2 학생의 이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학습, 과외 활동, 생활과 취업, 경제면에서의 지원 등에 관한 상담·조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7-2 - ① 수업 과목 전문 전공 선택 시 지침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7-2 - ② 학습 지원에 관한 학생의 요구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습 상담, 조언,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의 학습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필요에 따라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7-2 - ③ 통신 교육을 실시 과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학습 지원, 교육 상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7-2 - ④ 학생의 동아리 나 자치회 활동 등의 과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적절히 |

| | | |
|-----------|---|---|
| | | <p>이루어지고 있는가?</p> <p>7-2 - ⑤ 생활 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생활, 건강, 취업 등 진로 각종 괴롭힘 등에 관한 상담·조언 체제가 정비되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 생활 지원 등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필요에 따라 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p> <p>7-2 - ⑥ 학생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p> |
| 교육내용 및 방법 | <p>8-1 교육의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의 질 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p> | <p>8-1 - ① 교육의 대처 상황과 대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 한 학습 성과에 대한 자기 점검·평가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 개선·향상을 도모</p> <p>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작동하고 있는가?</p> <p>8-1 - ② 대학의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질 개선·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절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가?</p> <p>8-1 - ③ 학외 관계자의 의견이 교육의 질 개선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절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가?</p> |
| | <p>8-2 교원 교육 지원자 및 교육 보조자에 대한 교육 등 교육의 질 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기능하고 있다.</p> | <p>8-2 - ① 교수 개발²⁾이 제대로 실시 된 조직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수업 개선에 묶여 있는가?</p> <p>8-2 - ② 교육 지원자나 교육 보조자에게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 등 그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p> |
| 학습 성과 | <p>9-1 적절하고 안정적인 재무 기반이 있고 수지에 관한 계획 등이 적절히 책정·이행되고 또한 재무에 관한 감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p> | <p>9-1 - ① 대학의 목적에 따른 교육 연구 활동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배포 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한 부채가 과대하지 않은가.</p> <p>9-1 - ② 대학의 목적에 따른 교육 연구 활동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경상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p> <p>9-1 - ③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재정적 기초로 수지에 관한 계획 등이 적절히 책정되어 관계자에 명시되어 있는가?</p> <p>9-1 - ④ 수지 상황에서 과도한 지출 초과되고 있지 않는가?</p> <p>9-1 - ⑤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연구 활동(필요한 시설·설비의 정비를 포함한다)에 대해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p> |

| | | |
|---------------|---|--|
| | | 9-1 - ⑥ 재무제표 등이 적절히 작성되고 또한 재무에 관한 감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
| | 9-2 관리 운영 체제 및 사무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어 작동하는 것. | 9-2 - ①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사무 조직이 적절한 규모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위기 관리 등에 관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가? 9-2 - ② 대학 구성원 (교직원 및 학생), 기타 학 외 관계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형태로 관리 운영에 반영되어 있는가? 9-2 - ③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9-2 - ④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사무 조직이 충분히 임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연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9-3 대학 활동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 점검·평가가 실시되어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 | 9-3 - ① 대학 활동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 근거가 되는 자료 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자기 점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9-3 - ② 대학의 활동 상황에 대해 외부인 (해당 대학의 교직원 이외의 사람)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9-3 - ③ 평가 결과가 피드백 되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시설, 설비 및 학생지원 | 10-1 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공표됨으로써, 책임이 완수되었는지. | 10-1 - ① 대학의 목적 (학사 과정이라면 학부, 학과 또는 과정 등 각 대학원 과정이면 연구과 또는 전공 등을 포함한다)이 적절하게 공표됨과 동시에 구성원 (교직원 및 학생)에게 주지되어 있는가? 10-1 - ② 입학자 수용 방침, 교육 과정의 편성·실시 방침 및 학위 수여 목적이 적절하게 공표 주지되고 있는가? 10-1 - ③ 교육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제 172 조의 2에 규정 된 사항을 포함한다)가 공표되고 있는가? |

출처: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2011).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대학평가기준」.

- 1) TA(Teaching Assistant)는 대학에서 담당 교원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 보조 및 운영 지원을 할, 또는 그것을 하고 있는 학생.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이 많다.
- 2) 교수 개발(FD: faculty development) : 교원이 수업 내용·방법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의 총칭. 그 의미는 매우 방대한 있지만, 구체적인 예로는 교원 상호 수업 참관 실시,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회의 개최, 신입 교원을 위한 연수회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대학평가기준은 대학의 정규과정(학사, 석사 및 박사의 학위와 전문직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나 별과 및 전문과의 과정)에 대한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연구활동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기준에는 학교 교육법, 대학설치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종합성을 포함, 기구가 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 내용을 개재하고 있다. 10가지 기준에 대한 하위체계는 3단계로 다른 평가기구에 비해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 관련 기준은 “교육내부의 질 보증 시스템” 영역에서 평가한다. 타 평가기구에 비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명확성, 체계성 및 그 내용과 수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위의 실질화나 적절한 교과 구성, 그리고 기초 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배려 등도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대학 전체를 단위로 실시하고 있지만, 기준에 따라서는 학부, 연구과 등의 분석, 정리도 고려한 뒤에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학 전체로서 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대학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3)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는 평가 부회가 서면 조사 및 방문 조사로 실시한다. 서면 조사는 “평가 실시 지침서”에 따라 각 대학이 만드는 자기 평가서 (근거로 제출된 자료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및 기구가 독자적으로 조사·수집 자료 데이터 등의 분석을 한다. 방문 조사는 “방문 조사 실시 요강”에 따라 서면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부회가 평가 결과 (원안)을 만들어 그 결과(원안)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평가 결과(안)로 최종 정리한다.

평가 결과는 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사회에 널리 공표 되는 것으로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평가 결과(안)를 대상 대학에 통지하고 그 내용 등에 대한 의견 청원의 기회를 마련해 다시 심의를 실시한다. 만약 기구의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밑에 심사회를 설치하고 심

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公益財團法人 大學基準協會)

대학기준협회는 미국의 인증 단체를 모델로 1947년 당시 국·공·사립대학 46개교를 앞두고 설립된 자립적 대학 단체이다. 발족에 즈음해 이 협회는 “회원의 자발적 노력과 상호적인 원조로 일본에서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설립 목적으로 내걸고 1951년부터 본 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정회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한 「적격 판정 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그 후 1996년부터는 각 대학이 실시하는 자기 점검·평가를 기초로 하는 대학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2년부터 인증평가가 제도화됨에 따라 2004년 기관별 인증평가기관으로 인증 받아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었다.

일본 대학기준협회는 대학, 단기대학, 법학 등 전문직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과 관련 연구만을 시행하고 있어 피 평가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본래 대학기준협회는 사립대학 간 협의체로서 시작되었으나 자격획득을 위한 평가와 자체적인 상호평가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기관평가인증제 시행 기관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대학들이 상호평가와 인증평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회원대학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자 2007년부터는 회원제도와 상호평가를 없애버리고 독립적인 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대학기준협회, 2010).

(1) 평가 대상

일본 내의 대학 이외에 단기 대학, 법대, 경영계 전문직 대학원, 공공 정책계 전문직 대학원, 보건계열 전문직 대학원, 지적 재산 전문직 대학원 분야의 평가기관으로도 인증을 받아 각각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평가 기준

대학기준협회의 기준은 각 대학의 이념·목표 실현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기준협회의 기준은 대학이 실시하는 자기 점검·평가를 내실화 시킬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개선의 향상을 촉진하

는 관점에서 주요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협회의 구체적인 대학평가 기준은 다음의 <표 II-13>와 같다.

<표 II-13>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 기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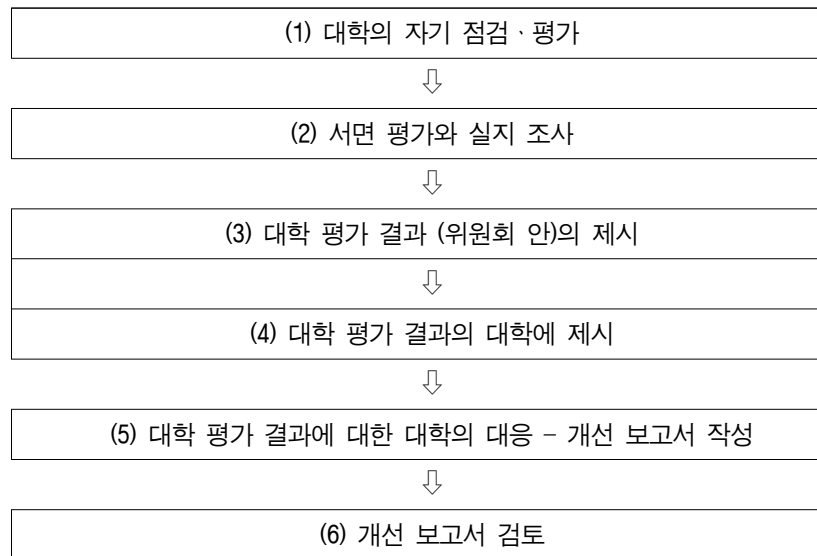
| 기준 | 기본 관점 |
|----------------|---|
| 1. 이념·목적 | 대학은 그 이념으로 인재 육성의 목적 및 기타 교육 연구 목적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 2. 교육 연구 조직 | 대학은 그 이념·목적에 감응하여 적절한 교육 연구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
| 3. 교원 조직 | 대학은 그 이념·목적에 실현하기 위해 요구 교원 상과 교원 조직의 편제 방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
| 4. 교육 내용·방법·성과 | 대학은 그 이념·목적에 실현하기 위해 교육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학위 수여 방침 및 교육 과정의 편성·실시 방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준하여 충분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정비·보완하고 학위 수여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 |
| 5. 학생 수용 | 대학은 그 이념·목적에 실현하기 위해 학생 수용 방침을 명시하고 그 방침에 따라 정당한 수락을 해야 한다. |
| 6. 학생 지원 | 대학은 학생들이 석사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수학 지원, 생활 지원 및 진로 지원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
| 7. 교육 연구 등 환경 | 대학은 학생의 석사 및 교사에 의한 교육 연구 활동을 필요 충분 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교육 연구 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
| 8. 사회 연계 사회 공헌 | 대학은 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고려하여 교육 연구의 성과를 널리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
| 9. 관리 운영·재무 | 대학은 그 기능을 원활하고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명문화 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출처: 대학기준협회(2011). 「대학기준」 과 그 해설

(3) 평가 방법 및 절차

대학평가는 타평가기구와 마찬가지로 먼저 대학의 자기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에서 서면 평가와 실제 조사를 하여 대학평가 결과(안)를 내놓게 된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를 해당 대학에 제시하고 제시된 결과에 대한 각 학교들의 반응과 개선 사항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으로부터 개선 보고서를 받고 다음 평가 시에 개선 사항에 관해 다루게 된다. 그 절차는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대학기준협회의 평가 절차

(다)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日本高等教育評價機構)

공익 재단법인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는 2004년 11월 사립대학에 대하여 제 3자 평가를 실시하는 재단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5년 7월 학교 교육법 제 6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인증 평가 기관으로 문부 과학 대신으로부터 인증되었다. 이 평가기구의 인증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발전을 지원하고 교육 연구 활동 등의 품질 보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구는 평가의 주요 특징으로 ① 대학의 특성, 특징을 고려하여 개성을 중시 한 평가 할 것, ② 각 대학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선임 된 대학의 교직원을 주체로 한 지식인에 의한 평가 (피어 리뷰)을 중심으로 할 것, ③ 대학 평가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1) 평가 대상

이 기구의 평가대상은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이외에 단기대학 기관별 인증 평가, 패션·비즈니스 계열 전문직 대학원 인증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2) 평가 기준

대학기관별 인증평가는 다음의 <표 II-14>와 같이 크게 사명·목적, 학업·교수, 경영·관리와 재무, 자기점검·평가의 4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교육과정 관련 기준은 “학업·교수”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명확성, 체계성 등을 다루고 있다.

<표 II-14> 일본고등평가기구의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기준

| 기준 | 내용 | 기본 관점 |
|----------|------------------------|--|
| 1. 사명·목적 | 1-1 사명·목적 및 교육 목표의 명확성 | 1-1-① 의미·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1-1-② 간결한 문장화 |
| | 1-2 사명·목적 및 교육 목표의 적절성 | 1-2-① 개성 특색의 명시 1-2-② 법령에 적합 1-2-③ 변화에 대한 대응 |
| | 1-3 사명·목적 및 교육 목적의 유효성 | 1-3-① 임원, 교직원의 이해와 지지 1-3-② 학 내외의주지 1-3-③ 중장기적인 계획 및 3 개의 정책 등의 임무와 목적 및 교육 목표의 반영 1-3-④ 사명·목적 및 교육 목표와 교육 연구 조직의 구성과 일관성 |
| 2. 학업·교수 | 2-1 학생의 수용 | 2-1-① 입학자 수용 방침의 명확화와주지 2-1-② 입학자 수용 방침에 따라 학생 수용에 대한 연구 2-1-③ 입학 정원에 따른 적절한 학생 수용 수 유지 |
| | 2-2 교육 과정 및 교수 방법 | 2-2-① 교육 목적에 입각 한 교육 과정 편성 방침의 명확화 2-2-② 교육 과정 편성 방침에 따른 교육 과정의 체계적 편성 및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 |
| | 2-3 석사 및 수업 지원 | 2-3-① 교직원의 협동 및 TA(Teaching Assistant) 등의 활용에 의한 석사 지원 及 미세 수업 지원의 충실 |

| | | |
|--------------|---------------------------|--|
| | 2-4 학점 인정, 졸업·수료 등 | 2-4-① 학점 인정 진급 및 졸업·수료 등의 기준의 명확화와 엄정 한 적용 |
| | 2-5 직업지도 | 2-5-① 교육 과정 내외 통한 사회적·직업적 자립에 관한 지도를 위한 체제 정비 |
| | 2-6 교육 목적의 달성 상황 평가 및 피드백 | 2-6-① 교육 목표의 달성 상황의 점검·평가 방법의 연구·개발 2-6-② 교육 내용·방법 및 석사지도 등의 개선 향환 평가 결과의 피드백 |
| | 2-7 학생 서비스 | 2-7-① 학생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2-7-②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학생의 의견·요망의 파악과 |
| | 2-8 교원의 배치·직능 개발 등 | 2-8-① 교육 목적과 교육 과정에 맞는 교원의 확보와 배치 2-8-② 교원의 채용·승진 등 교원 평가, 교육, FD (Faculty Development)을 비롯한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에 노력 2-8-③ 교양 교육 실시를 위한 체제 정비 |
| | 2-9 교육 환경의 정비 | 2-9-① 학교 공원, 건물, 장비, 실습 시설, 도서관 등의 교육 환경의 정비와 적절한 운영·관리 2-9-② 수업을 실시 학생 수의 적절한 관리 |
| 3. 경영·재무와 관리 | 3-1 경영의 규율과 성실성 | 3-1-① 경영의 규율과 성실성을 유지 표명 3-1-② 사명·목적의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 3-1-③ 학교 교육법, 사립 학교법, 대학 설치 기준을 비롯한 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련 법령의 준수 3-1-④ 환경 보전, 인권, 안전에 대한 배려 3-1-⑤ 교육 정보 및 재무 정보의 공표 |
| | 3-2 이사회의 기능 | 3-2-① 임무·사명·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할 수있는 체제 약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체제의 정비와 그 기능의 정비와 그 기능의 |
| | 3-3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과 학장의 리더십 | 3-3-① 대학의사결정조직의 정비, 권리와 책임의 명확성 및 기능성 3-3-②대학의 의사결정과 업무실행에 관한 학장의 적절한 리더십 발휘 |
| | 3-4 의사소통과 거버넌스 | 3-4-①대학법인 및 대학의 관리운영기관 및 각 부문 간 의사소통에 의한 의사결정의 원만성 3-4-②법인 및 대학의 관리운영기관에 의한 상호 점검에 의한 거버넌스 기능 3-4-③리더십과 보탬업의 균형을 갖춘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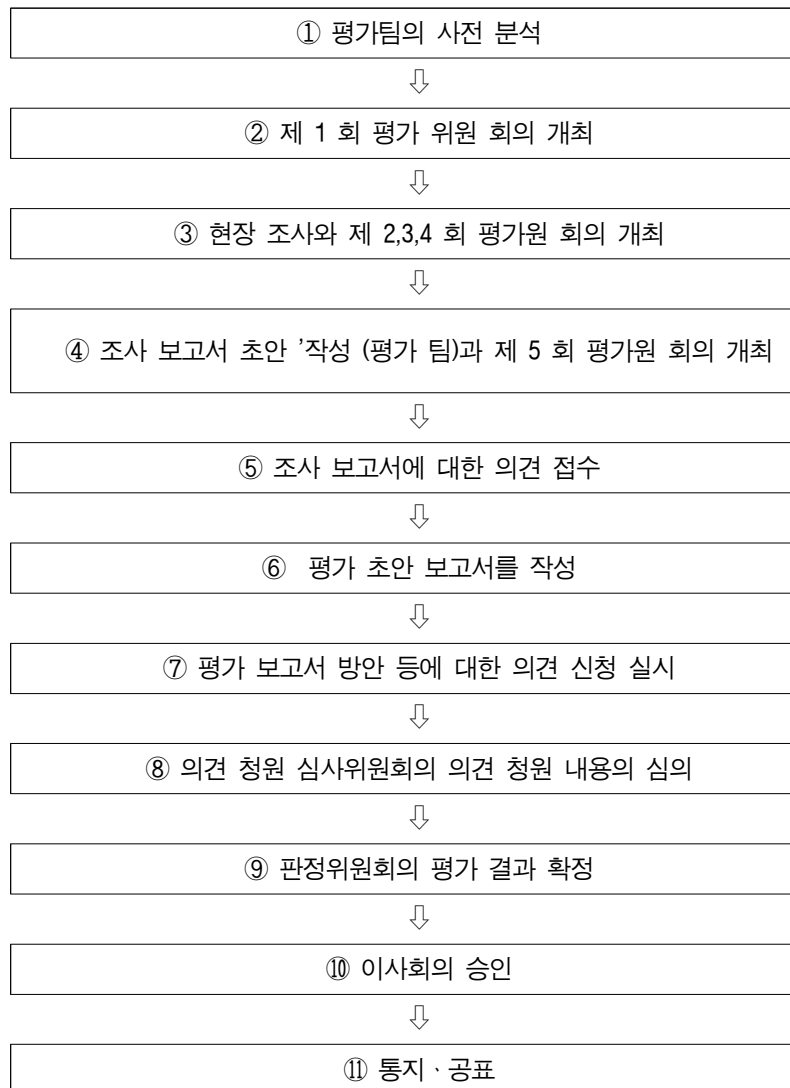
| | | |
|------------|--------------------|---|
| | 3-5.업무실행체제의 기능성 | 3-5-①권리의 적절한 분산과 책임의 명확성을 배려한 조직편제 및 직원의 배치에 의한 업무의 효과적인 실행 체제 확보 3-5-②업무집행의 관리체제의 구축과 그 기능성 3-5-③직원의 자질, 능력향상 기획의 용의 |
| | 3-6 재무기반과 수지 | 3-6-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적절한 재정 운영의 확립 전환 재무 운영의 확립 전환 재무 운영의 확립 3-6-② 안정된 재무 기반의 확립과 수지 균형 확보 수지 균형 확보 |
| | 3-7 회계 | 3-7-① 회계 처리의 적정한 실시 3-7-② 회계 감사 체제 정비와 엄정한 실시 |
| 4. 자기점검·평가 | 4-1. 자기 점검·평가의 적절성 | 4-1-① 대학의 사명, 목적에 준하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자기점검과 평가 4-1-② 자기점검, 평가체제의 적절성 4-1-③ 자기점검, 평가의 주기 등의 적절성 |
| | 4-2. 자기 점검·평가의 성실성 | 4-2-① 증거에 기초한 투명성 높은 자기점검과 평가 4-2-② 현황파악을 위한 충분한 조사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4-2-③ 자기점검과 평가의 결과의 학내공유와 사회에의 공표 |
| | 4-3. 자기점검·평가의 유효성 | 4-3-① 자기점검·평가 결과의 활용을 위한 PCDA 사이클 ³⁾ 조직의 확립과 기능성 |

출처: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2014).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실시 대강.

(3) 평가 방법 및 절차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에서 실시하는 대학기관 인증평가는 총 11단계로 진행된다. [그림Ⅱ-4]와 같이 먼저 각 대학의 자기점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서면 조사와 실제 조사를 시행한다.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면 해당학교에 이에 대한 의견 신청을 받고 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확정된 결과는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공표되는 순서를 거친다.

3) PDCA 사이클(plan-do-check-act cycle)은 사업 활동에서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진행 방법의 하나를 의미한다. Plan(계획) → Do(실행) → Check(평가) → Act(개선)의 4 단계를 반복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림 II-4]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의 평가 절차

(2) 평가기구에 따른 기준 비교

일본의 대학평가기구들은 제도적 평가체제 안에서 개별 평가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세 기구의 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는 <표 II-15>와 같다. 여기서는 기준 구성 및 체계, 기준 내용,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II-15> 일본의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구들의 평가 기준 비교

| 학위수여기구 | 대학기준협회 |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
|--|---|--|
| ① 대학의 목적 ② 연구조직 ③ 교원 및 교육지원 ④ 학생 수용(입학) ⑤ 교육내부 질 보증 시스템 ⑥ 재무기반 및 관리경영 ⑦ 교육정보의 공표 ⑧ 교육내용 및 방법 ⑨ 학습 성과 ⑩ 시설·설비 및 학생지원 | ① 이념·목적 ② 교육연구조직 ③ 교원 조직 ④ 교육 내용·방법·성과 ⑤ 학생 수용 ⑥ 학생 지원 ⑦ 교육 연구 등 환경 ⑧ 사회연계, 사회공헌 ⑨ 관리 운영·재무 | ① 사명·목적 ② 학업·교수 ③ 경영·재무 관리 ④ 자기 점검·평가 |

* 출처: 대학기준협회(2011). 대학평가,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2011). 대학평가기준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2011). 대학기관별인증평가실시대장,

** 밑줄 친 부분은 문부성이 제시한 인증평가기준 내용 외에 기관 별도의 기준

가. 평가 기준의 구성 및 체계

세 평가기구의 평가기준 구성 체계를 비교해 보면 먼저 최상위 기준의 수가 다르고 평가기준의 위계 단계도 다르다.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의 경우 평가기준을 총 10개 기준에 걸쳐서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대학기준협회는 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5개의 기준,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의 경우 가장 적은 4개의 기준으로 축약시키고 있다. 위계단계는 대학기준협회가 기준과 기본 관점을 제시하는 2단계 구성이며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와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는 주요 점검 사항을 포함한 3단계로 하위체계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구성 체계에서 제시된 기준 항목의 수는 다르나 세 기구 모두 문부과학성의 제시한 교육 조직, 교육과정, 시설 및 설비, 교육 연구 환경, 재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개별 기준의 명칭도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기구에 따라 기준 항목 수가 다른 만큼 그 명칭을 달리하여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며, 하위영역의 내용에서 기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기준 명칭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관한 기준을 교육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의 경우 “교육 내부 질 보증시스템”, 대학기준협회는 “교육 내용·방법·성과”,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는 “학업·교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등교육평가기구의 경우는 기준 항

목을 4개로 축약시키고 있어 대학의 이념과 목적 관련 기준인 사명·목적, 경영·재무, 자기점검·평가를 제외한 연구 조직, 교원 조직, 교육과정, 연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학업·교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평가 기준의 내용

기준 내용 면에서 비교하면 첫째, 세 기구의 특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항목이 다르다. 학위수여기구는 “교육내부 질 보증 시스템”, “교육 정보의 공표”, “학습 성과”와 같은 기준에서 교육연구나 교육과정 등 교육 전반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평가 기준을 중시하고 있다. 대학기준협회는 별도의 개별 기준 항목으로 “사회 연계·사회 공헌”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과 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중시하고 대학연구 성과의 환원이라는 관점을 대학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의 경우는 “자기 점검·평가”의 항목을 최상위 기준으로 마련하여 자기 점검과 평가의 중요성을 높인 평가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영·재무와 관리” 항목에서 학교 경영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한 의사결정이나 리더십 관련 하위체계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

둘째,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법에 있어 기구마다 차이가 있다.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는 “교육 내부 질 보증 시스템”에서 대학의 목적에 입각한 체계와 지도가 행해지고 있는지, “학습 성과” 부분은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위체계에서 명시하여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기준협회는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과 “학생 수용” 기준에서 학교의 교육목적에 입각한 방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일본고등평가기구는 “학업·교수” 기준에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상황 평가 및 피드백,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원 확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자기 점검·평가” 기준에도 대학의 사명과 목적에 맞는 자기 점검과 평가가 시행되는지를 반영한다.

다. 교육과정 관련 기준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는 기준항목에 대한 하위체계 언급이 상세한 만큼 교육과정 관련으로 “교육내부 질 보증 시스템”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명확성, 체계성

및 그 내용과 수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단위의 실질화나 적절한 교과 구성, 그리고 기초 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대학기준협회는 “교육 내용·방법·성과” 기준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해 언급되어 있으며,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이하 JUEP)는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에서 교육목적에 입각한 교육과정 명확성과 체계화를 반영하고 있다.

(3) 정리

교육 전반에서 평가의 개념이 강화되는 시대에 각국의 대학교육 역시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일본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는 대학진학연령 인구의 감소 문제를 안고 밖으로는 세계화의 흐름을 따르며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2년 임시 국회에서 학교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2004년부터 국공사립의 모든 대학은 정기적으로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인증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인증평가기관은 대학 평가의 경우 대학 평가·학위 수여기구, 대학기준협회, 단기대학기준협회,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직 대학원 평가(법과 대학원의 경우)는 대학 평가·학위 수여기구와 일본 변호사연 법무연구재단, 대학기준협회에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인증제도의 기본 추진 절차는 평가기구별로 한 두 단계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 기구의 서면 평가 → 방문 조사(실질 조사) → 평가 보고서 작성 → 이견심의 → 평가결과 발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대학평가의 경우 기구별로 4~10가지로 구성되고 기준별로 2~3단계 하위체계를 가지고 상세화 시키고 있다. 대학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문부과학성에 제시하는 인증평가 기준인 교육 조직, 교육과정, 시설 및 설비, 교육 연구 환경, 재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외에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평가기준의 내용은 교육시스템(대학평가 하위수여기구), 경영·재무(대학기준협회), 점검·평가(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등, 중시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며 관련 항목의 상세 내용도 다르게 나타나 있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인증”과 “불인증”으로 평가 판정된다.

일본 대학평가는 인증제도의 특징으로 살펴볼 때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평가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고 대학과 평가기구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대학의 고유성을 인식한 지금의 인증평가제도가 자원배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학이 자립적인 개선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日永 龍彦, 2012). 현재는 대학의 교육활동이나 학습 성과에 관한 교육정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민간정보지 등 복수의 평가주체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순위로써 사회에 공표하는 “시장평대학평가”가 사회의 교육정보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대학평가를 보충하고 있다(高田 英一・高田 悠二, 2013).

인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대학평가의 시사점은 첫째 대학평가에서 중앙에서 평가제도의 체계와 필수적인 평가 항목을 제시하되 기관별로 자율적이면서 독립적인 평가권한을 인정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평가 내용은 대학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평가여야 할 것, 셋째 평가 절차에서 충분한 시간 할애할 것, 마지막으로 넷째 다양한 교육지표를 제시하는 시장형과 핵심적 사항을 점검하게 하는 제도형 평가의 적절한 균형 유지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종합하면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이 각 대학의 교육목적·목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핵심을 정확하게 공표하되 그 교육지표는 일률적이기 보다 교육목적·목표에 대응한 다양성을 가질 필요를 인식하게 한다.

Ⅲ.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박인우 외(2011)는 대학 교육과정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개발하여 국내 16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당시 건전성 지수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지표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건전성 지표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건전성 지표로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전국학사행정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일반적으로 지표(indicators)는 변화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체제(system)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접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공공 통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일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측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통계적인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그 영역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정보화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국가 정보화 지표가 있고, 교육의 현황을 나타내기 위해 교육지표들이 있다.

지표는 그 영역의 현 상태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주기적으로 계산된 지표는 현 체제가 실제로 적절한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표도 교육과정의 실체가 적절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개발 절차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

하였다. 현재 교육과정 관련 학술 논문, 다양한 평가(대학종합평가, 중앙일보평가, 학문분야평가, 사범대학평가, 교육대학원평가, 교양교육과정평가, 특성화 재정지원 등)에서의 교육과정 관련 항목을 추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의견 검토를 실시하였다. 앞서 추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전문가, 대학 교수, 수업담당 직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서 추출된 교육과정 운영지표를 수정하였다. 이 지표는 원래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그림 III-1]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개발 절차

2)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항목

교육과정 건전성 개발 지표 개발 절차에 따라 확인된 지표들은 체계성, 내실화, 참신성, 개방성, 학습자 중심교육과정, 효과성 등의 6개 항목에 총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6개의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표 III-1>에는 6개 항목별로 세부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 체계성 : 교육과정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항목별 학점 구성비, 전공과 교양, 선택과 필수 등의 편성 비율, 실험 실습 등의 적정성 등이 포함됨
- 내실화 : 개설된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구분별 수강학생 수, 전임의 참여도 등이 해당됨

- 참신성 : 새로운 학문적 조류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과목 신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개방성 : 외부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 중 학습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고려를 나타내는 지표
- 효과성 :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는 관리체제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각 지표별 정보는 대학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관리체제에 자동적으로 수집될 수가 있다. 수집된 정보는 지표별로 명시된 단위에 따라 계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위의 점수가 계산된다. 매 학기 단위로 대학 전체, 단과대학,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건전성 정도를 계산하여 각각의 담당자들에게 통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결과를 웹사이트로 공개한다. 단과대학/학부, 학과/전공은 통보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웹사이트에 추가한다. 이 모든 과정은 교육과정 관리 체제에서 이루어 질 수가 있다.

<표 III-1>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안)

| 영역 | 지표 |
|-----|--|
| 체계성 | 편성된 교과목 중 개설된 교과목의 비율(최근 2년) 전체 개설 교과목 중 교양 대 전공 교과목의 비율(최근 2년) 전체 개설 교과목 중 필수 대 선택의 비율(최근 2년) 개설된 전공교과목 중 필수 대 선택 교과목의 비율(최근 2년) 개설된 교양교과목 중 필수 대 선택 교과목의 비율(최근 2년) 졸업이수학점 대비 최소전공인정학점 비율 졸업이수학점 중 교양학점의 비율 졸업이수학점 중 교양 대 전공의 비율 |
| 내실화 | 전임의 교과목 담당 비율(최근 1년) 전임의 교양교과목 담당 비율(최근 1년) 전임의 전공교과목 담당비율(최근 1년) |

| | |
|---------------|---|
| | 전공강좌 당 수강학생 수(최근 1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최근 1년) 교양강좌 당 수강학생 수(최근 1년) 실험실습 강좌 당 수강학생 수(최근 1년) 전임교원 당 담당 시간 수(최근 1년) |
| 참신성 | 최근 2년간 신설교과목 개설 수 OCW 참여 교과목 수 연계전공 참여 교수 수 |
| 개방성 | 외국어강의 비율(매 학기) 타 전공 교과목 전공 인정 과목 수 OCW 참여 교과목 수 |
|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 복수전공자 수(최근 1년) 연계전공자 수(최근 1년) 부전공자 수(최근 1년) 2중전공자 수(최근 1년) 학생설계전공자 수 |
| 효과성 |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역량 육성 수준(최근 1년) 전공교육과정 만족도, 역량 육성 수준(최근 1년) 교육과정 전체 만족도, 역량 육성 수준(최근 1년) |

2.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지표는 총체적이고 함축적인 지수로 나타내어야 하며, 수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량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앞서 제시된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는 모두 정량적인 것이다. 지표를 바탕으로 계산된 수치를 지수라고 할 때, 지수는 다수의 수치로 제시되기보다 단일 수치로 제시된다. 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도 앞서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30여 개의 지표를 종합하여 단일 지수로 표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많은 정보가 누락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힘들다. 이 지표들은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활용하면 된다. 대학 교육과정 건

전성 지수는 이 30개의 개별 지표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건전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개설된 교과목을 학생들이 고르게 선택하고, 이러한 교과목이 전임교원에 의해 강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건전성은 충분한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는지, 개설된 교과목 중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임교원 당 강의 학점은 적정한지, 그리고 개설된 교과목이 폐강은 되지 않는지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네 가지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성 지수 계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대학은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강좌를 충분히 개설해야 한다. 강좌는 교과목보다 하위 단위로 동일 교과목이 분반되는 경우에 분반의 단위가 강좌로 보면 된다. 예컨대, 재학생이 1000명일 경우, 학기 당 학기 당 개설되어야 하는 강좌 수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기 당 1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대개의 강좌가 3학점이고, 강좌 당 적정 학생 수를 25명으로 보면, 이 학교에서 개설되어야 할 최소 강좌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이 계산에 의하면, 이 학교에서 개설해야 할 강좌 수는 최소 240개가 된다.

- 한 학생이 이수해야 할 강좌 수 : $18\text{학점} \div 3\text{학점} = 6\text{과목}$
- 분반 수 : $1000\text{명} \div 25\text{명} = 40\text{분반}$
- 최소 강좌 수 : $40\text{분반} \times 6\text{과목} = 240\text{과목}$

그런데, 이러한 계산은 강좌 당 학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한편으로, 이 계산에서는 강좌 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만으로도 적절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즉 강좌 당 학생 수가 25명보다 많으면, 강좌를 적게 개설했음을 의미하고, 적다면 강좌를 적정 수보다 더 많이 개설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설 강좌의 적정성은(1- |강좌

당 학생 수-25| ÷ 25) X 100%로 계산될 수 있다. 이 계산식에서 강좌 당 수강 학생 수가 50명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0%로 처리하면 된다. 적정 수의 강좌가 개설되었는지는 최소 개설 요구 학점 수에 비해 실제 개설학점 수의 비율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대학의 교육은 전임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그 학교의 교수에게서 강의를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듣는 교양 교과목은 대개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교원, 특히 시간강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전공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당연히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교양은 비전임교원, 또는 인문사회계의 일부 전공 교수들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수가 많을 경우 그 대학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과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편성 및 운영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교육과정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강의를 담당할 교원이 적게 확보되었거나(교원 확보율이 낮거나),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만 강의를 하거나, 교과목을 지나치게 많이 개설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재학생의 수에 맞게 충분한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는 한편으로 그렇더라도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3)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담당 학점 수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강의담당 비율이 낮지만, 평균 담당 학점 수가 많을 경우, 이것은 충분한 교원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교과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앞서, 강좌 당 수강학생 수가 많은 데도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 수가 많다면,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이 원인임을 알 수가 있다. 이 경우 교원 확보율을 참고자료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 수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앞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함께 고려하여 전임교원 강의 건전성 지수로 통합이 가능하다. 이

지수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times(1 - |1 - \text{담당학점수} / \text{책임시수}(9\text{학점})|) \times 100$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전임교원이 개설 교과목을 100% 담당하고, 평균 9학점씩 강의하면 이 지수는 100으로 나타난다.

4) 폐강률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에 포함되는 네 번째 지표는 폐강률이다. 대학은 폐강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한 교과목을 폐강하게 된다. 특정 교과목이 수강학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다. 교과목 담당강사가 학생들에게 적절치 못했거나, 교과목 자체가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지 못했거나, 너무 많은 교과목이 개설되었거나, 전공이수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거나 등과 같은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폐강이 된다는 것은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편성 및 운영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강률은 교육과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3. 기존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의 문제점

본 연구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이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개설된 교과목을 학생들이 고르게 선택하고, 이러한 교과목이 전임교원에 의해 강의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전제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 이러한 기본 원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 중 네 번째 지표인 ‘폐강률’은 지표로서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강률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계속하여 제기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10년 개발된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이 중 폐강률의 평균은 약 97점으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반대로 표준편차는 약 4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III-2>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 수 | 폐강률 | 건전성 지수 |
|------|-----------------|--------------------|------------------------|---------|----------|
| n | 162 | 162 | 162 | 162 | 162 |
| 평균 | 55.3432 | 51.6604 | 68.3539 | 97.0247 | 272.3821 |
| 최빈값 | .00 | 52.60 | 16.90a | 100.00 | 169.65a |
| 표준편차 | 31.80781 | 10.33481 | 21.93125 | 3.67795 | 39.05067 |
| 최소값 | .00 | 24.10 | 16.90 | 81.00 | 169.65 |
| 최대값 | 100.00 | 88.30 | 99.97 | 100.00 | 345.83 |

그리고 각 지표들의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II-3>와 같다. 이 표에서 indicator1, 2, 3, 4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인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 수, 폐강률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표들 중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높은 지표들은 강좌 당 수학 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 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폐강률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 기존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 모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 확률 | 상관계수 |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0차 | 편상관 | 부분상관 |
| 1 (상수) | 217.355 | 3.631 | | 59.853 | .000 | | | |
| indicator1 | .994 | .057 | .810 | 17.464 | .000 | .810 | .810 | .810 |
| 2 (상수) | 156.871 | 2.879 | | 54.485 | .000 | | | |
| indicator1 | .925 | .026 | .753 | 36.223 | .000 | .810 | .944 | .749 |
| indicator3 | .941 | .037 | .528 | 25.408 | .000 | .609 | .896 | .525 |
| 3 (상수) | 100.245 | 2.013 | | 49.798 | .000 | | | |
| indicator1 | .994 | .009 | .809 | 105.628 | .000 | .810 | .993 | .784 |
| indicator3 | .994 | .013 | .558 | 74.162 | .000 | .609 | .986 | .551 |
| indicator2 | .953 | .029 | .252 | 32.785 | .000 | -.016 | .934 | .243 |
| 4 (상수) | 1.917 | .000 | | . | . | | | |
| indicator1 | 1.000 | .000 | .815 | . | . | .810 | 1.000 | .788 |
| indicator3 | 1.000 | .000 | .562 | . | . | .609 | 1.000 | .554 |
| indicator2 | 1.000 | .000 | .265 | . | . | -.016 | 1.000 | .253 |
| indicator4 | 1.000 | .000 | .094 | . | . | .026 | 1.000 | .093 |

마지막으로 각 지표들이 어느 정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4>와 같다.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들의 설명력은 다른 지표들의 예측효과를 제거하였을 때 해당 지표와 건전성 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며 보통 이를 제공하였을 때 해당 지표가 건전성 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표들이 어느 정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강좌 당 수강 학생 수가 약 62%가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반면 폐강률은 1% 미만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들의 설명력

| 구 분 | 부분상관 | 제공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788 | 62.1% |
|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 수 | .554 | 30.7%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253 | 6.4% |
| 폐강률 | .093 | 0.9% |

이러한 통계적 수치들을 기초하여 폐강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로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을 도출하였다. 이는 대학은 재학생 수를 고려하여 강좌를 충분히 개설해야 하며, 만약 적정 수의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고, 수강하기 싫은 강좌도 학점 때문에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강좌는 교과목보다 하위 단위로 동일 교과목이 분반되는 경우에 분반의 단위를 강좌로 간주하면 된다. 예컨대, 재학생이 1,000명일 경우, 학기 당 개설되어야 할 강좌 수와 학점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기 당 1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대개의 강좌가 3학점이고, 강좌 당 적정 학생 수를 25명으로 보면, 이 학교에서 개설되어야 할 최소 강좌 수는 240개이며 최소 학점은 720학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text{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frac{\text{학기당 총 개설 학점}}{(\text{재학생 수} \div 25\text{명}) \times \text{졸업이수학점} / 8\text{학기}}$$

4. 평가 지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다음으로 교육과정 평가 지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70명의 교육과정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새롭게 대체하고자 하는 지표인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을 포함하여 해당 지표들의 적절성과 중요성이 묻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자세한 설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2014.03.05. ~ 2014.04.30.
- 조사대상 : 지역별 대학 70개교의 학사관리담당자
- 조사내용 : <표 III-5> 참조

<표 III-5> 설문지 문항

| 구분 | | | 비고 |
|----------------------|-----|-----|--------|
| 교육 목표 관리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이수 학생 대비 개설 강좌 수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전임교원 강의 비율(교양)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전임교원 강의 비율(전공)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전임교원 강의 비율(전체)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교양)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공)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 (전체)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강좌 당 휴강 비율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학생기본정보 누락여부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교과목 기본 정보 누락여부 | 적절성 | 중요성 | 5점 척도 |
| 기타 의견 | | | 개방형 질문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개발을 위한 조사는 국내 70개 대학의 학사행정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학교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수도권지역 대학이 31개교를 차지했고, 충청권지역 17개교, 경상권(울산·대구·부산)지역이 14개교, 전라·제주권 5개교, 강원권이 1개교로 조사되었다.

<표 III-6> 학교 소재지별 자료수집 대상 대학 현황

| 학교 소재지 | 빈도 |
|---------|-------------|
| 서울 | 15 (21.4%) |
| 수도권 | 16 (22.9%) |
| 충청권 | 17 (24.3%) |
| 경상권 | 14 (20.0%) |
| 전라, 제주권 | 5 (7.1%) |
| 강원권 | 1 (1.4%) |
| 합계 | 68 (100.0%) |

다음으로 학교유형별로는 일반대가 전체 응답자의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대, 대학원대학, 교육대학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 대학의 유형별 자료수집대상 대학 현황

| 학교유형 | 빈도 |
|-------|-------------|
| 일반대학 | 62 (88.6%) |
| 산업대학 | 4 (5.7%) |
| 대학원대학 | 3 (4.3%) |
| 교육대학 | 1 (1.4%) |
| 합계 | 70 (100.0%) |

마지막으로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57개교로 전체 81.4%를 차지하였고, 국공립대학교 10개교의 학사행정관리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III-8> 대학의 유형별 자료수집대상 대학 현황

| 학교유형 | 빈도 |
|------|-------------|
| 국립 | 10 (14.3%) |
| 사립 | 57 (81.4%) |
| 결측 | 3 (4.3%) |
| 합계 | 70 (100.0%) |

(2) 교육과정 평가 지표의 적절성

다음은 교육과정 평가지표의 핵심지표 여부 및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총 12항목의 교육과정 평가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 중, 학사행정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전체)’(평균 3.94),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전공)’(평균 3.92)이 높은 수준에서 적절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체)’(평균 3.77),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공)’(평균 3.75), 교과목 기본 정보 누락 여부(평균 3.72)순으로 평가지표의 적절성을 인식하였으며 강좌 당 휴강 비율(평균 2.98)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적절성이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체)는 표준편차가 0.8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9> 교육과정 평가지표의 적절성

| 구분 | | N | 평균 | 표준편차 |
|-----|----------------------|----|------|-------|
| v1 | 교육 목표 관리 | 63 | 3.59 | 1.087 |
| v2 | 이수 학생 대비 개설 강좌 수 | 60 | 3.52 | 1.033 |
| v3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65 | 3.69 | .983 |
| v4 | 전임교원 강의 비율(교양) | 56 | 3.55 | .989 |
| v5 | 전임교원 강의 비율(전공) | 61 | 3.92 | .954 |
| v6 | 전임교원 강의 비율(전체) | 62 | 3.94 | .885 |
| v7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교양) | 56 | 3.45 | .893 |
| v8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공) | 59 | 3.75 | .902 |
| v9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 (전체) | 60 | 3.77 | .871 |
| v10 | 강좌 당 휴강 비율 | 53 | 2.98 | .990 |
| v11 | 학생기본정보 누락여부 | 56 | 3.29 | 1.004 |
| v12 | 교과목 기본 정보 누락여부 | 57 | 3.72 | .921 |

(3) 교육과정 평가 지표영역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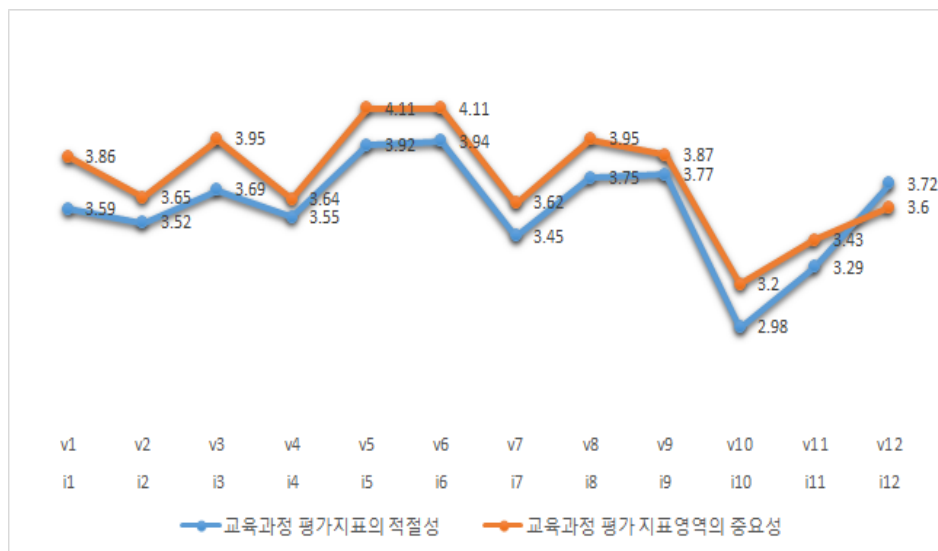
다음은 교육과정 평가지표의 핵심지표 여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총 12항목의 교육과정 평가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 중 학사관리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전체)’(평균 4.11), ‘전임교원의 강의비율’(평균 4.11)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평균 3.95),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공)’(평균 3.95),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체)’(평균 3.87), 교육 목표 관리(평균 3.86) 등의 순으로 적절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인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강좌 당 휴강 비율(평균 3.2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임교원 강의 비율(전공)은 표준편차가 0.709로 가장 편차가 적은 응답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10> 교육과정 평가 지표영역의 중요성

| 구분 | | N | 평균 | 표준 편차 |
|-----|---------------------|----|------|----------|
| i1 | 교육 목표 관리 | 63 | 3.86 | .998 |
| i2 | 이수 학생 대비 개설 강좌 수 | 60 | 3.65 | .936 |
| i3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65 | 3.95 | .874 |
| i4 | 전임교원 강의 비율(교양) | 55 | 3.64 | .890 |
| i5 | 전임교원 강의 비율(전공) | 61 | 4.11 | .709 |
| i6 | 전임교원 강의 비율(전체) | 61 | 4.11 | .755 |
| i7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교양) | 55 | 3.62 | .871 |
| i8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공) | 57 | 3.95 | .854 |
| i9 | 전임교원 평균 담당 학점 수(전체) | 60 | 3.87 | .853 |
| i10 | 강좌 당 휴강 비율 | 51 | 3.20 | .980 |
| i11 | 학생기본정보 누락여부 | 56 | 3.43 | 1.110 |
| i12 | 교과목 기본 정보 누락여부 | 57 | 3.60 | .997 |

이상의 교육과정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의 설문조사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본 연구는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휴강율의 적절성과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에서 삭제하였으며, 이를 대신하여 상대적으로 적절성과 중요도가 높은 이수학생 대비 개설 강좌 수를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로 대체하였다.



[그림 III-2] 교육과정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성

IV.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분석

1.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분석 방법

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분석을 위하여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강의 학점 수를 토대로 실제 우리나라의 대학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4년 1학기까지 구축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 데이터베이스(<http://hepri.korea.ac.kr> 참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미비된 자료는 대학알리미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건전성 지수를 분석하는데 사용된 학교들의 분포는 아래 <표 IV-1>와 같다.

<표 IV-1>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분석 대상 학교 분포 (2014년 기준)

| 학교유형 | 지역 | | 설립유형 | | 전체 |
|------|-----|-----|------|-----|-----|
| | 수도권 | 지방 | 국공립 | 사립 | |
| 일반대학 | 39 | 62 | 23 | 78 | 101 |
| 교대 | 2 | 8 | 10 | 0 | 10 |
| 전문대 | 27 | 44 | 7 | 64 | 71 |
| 사이버대 | 11 | 8 | 0 | 19 | 19 |
| 산업대 | 0 | 2 | 0 | 2 | 2 |
| 전체 | 79 | 124 | 40 | 163 | 203 |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전임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등의 네 가지 지표를 각각 100점씩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값으로, 모든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400점이 된다.

건전성 지수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의 경우 25명을 기준(사이버대학은 100명 기준)으로 이보다 적거나 많으면 점수가 감점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은 보다 많은 수의 강좌가 개설되면 건전성 지수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전체 개설 학점 수에 대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 수의 비율을 점수화하였으며, 보다 많은 수의 강좌를 전임교원이 담당할 경우 역시 건전성 지수는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교원 1인당 책임시수를 9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함께 고려하여 지표 값을 설정하였다.

2.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항목별 분석

1) 2008년 건전성 지수

다음 <표 IV-2>는 2008년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및 각 지표의 점수를 설립 유형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사립이 약 256점으로 국·공립(약 25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학교유형별로 산업대가 약 2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262.09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약 24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대학의 특성 구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특성 요인으로서는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학교유형(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 산업대), 지역(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5천명 미만, 5천~1만, 1

만~1만 5천, 1만 5천~2만, 2만 이상)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 IV-2> 2008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표 수

| 2008년 | | 지표1 | 지표2 | 지표3 | 지표4 | 합계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51.77 | 77.01 | 51.03 | 73.24 | 253.06 |
| | 사립 | 52.81 | 83.13 | 49.30 | 70.77 | 256.03 |
| 학교 유형 | 일반대 | 45.64 | 70.51 | 52.86 | 73.19 | 242.27 |
| | 교육대 | 56.29 | 75.97 | 49.19 | 80.18 | 261.64 |
| | 전문대 | 60.96 | 98.27 | 45.58 | 67.47 | 272.30 |
| | 사이버대 | - | - | - | - | - |
| | 산업대 | 84.19 | 92.64 | 37.72 | 67.93 | 282.51 |
| 지역 | 수도권 | 50.18 | 79.02 | 47.47 | 67.37 | 244.07 |
| | 지방 | 54.00 | 83.48 | 50.97 | 73.62 | 262.10 |
| 학교 규모 | 5천 미만 | 58.29 | 93.68 | 47.78 | 71.28 | 271.05 |
| | 5천 이상 1만 이하 | 56.85 | 78.64 | 50.50 | 73.52 | 259.53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46.89 | 70.69 | 49.54 | 75.55 | 242.68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33.08 | 65.95 | 52.91 | 59.60 | 211.56 |
| | 2만 이상 | 30.55 | 64.18 | 53.06 | 71.66 | 219.47 |

지표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지표 2: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지표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 4: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3>는 2008년도의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립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약 256 점으로 국·공립대학(약 253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2008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국·공립 | 39 | 253.06 | 34.76 | -.427 | .670 |
| 사립 | 144 | 256.03 | 39.34 | | |

다음 <표 >는 2008년도의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사립대학(52.81)이 국·공립대학(51.77)에 비하여 높고,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사립대학(83.13)이 국·공립(77.0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51.03)이 사립대학(49.30)에 비하여 높고,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국·공립(73.24)이 사립대학(70.7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공립의 건전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4> 2008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국·공립 사립 | 39 144 | 51.77 52.81 | 20.82 22.84 | -.257 | .798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국·공립 사립 | 39 144 | 77.01 83.13 | 13.69 17.83 | -2.310 | .024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국·공립 사립 | 39 144 | 51.03 49.30 | 7.33 10.35 | 1.186 | .239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국·공립 사립 | 39 144 | 73.24 70.77 | 16.90 21.85 | .653 | .515 |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5>는 2008년도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대가 약 2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약 272점), 교육대(약 262점), 일반대(약 242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증결과, 학교유형에 따라서 건전성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일반대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2008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일반대 (a) | 100 | 242.23 | 39.88 | 9.269 | .019 | a<c |
| 교육대 (b) | 10 | 261.64 | 37.70 | | | |
| 전문대 (c) | 71 | 272.30 | 3.40 | | | |
| 사이버대 (d) | - | - | - | | | |
| 산업대 (e) | 2 | 282.51 | 19.66 | | | |

다음 <표 IV-6>는 2008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가 약 84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대(약 61점), 교육대(약 56점), 일반대(약 46점)순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약 9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대(약 92

점), 교육대(약 76점), 일반대(약 71점)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약 5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대(약 49점), 전문대(약 46점), 산업대(약 38점)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교육대(약 80점), 일반대(약 73점), 산업대(약 68점), 전문대(약 67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학교유형에 따른 각 지표들의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전문대가 일반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일반대와 교육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전문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라서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2008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일반대 (a) | 100 | 45.64 | 21.07 | 8.998 | .000 | a<c |
| | 교육대 (b) | 10 | 56.29 | 20.23 | | | |
| | 전문대 (c) | 71 | 60.96 | 21.08 | | | |
| | 사이버대 (d) | - | - | - | | | |
| | 산업대 (e) | 2 | 84.19 | 19.83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일반대 (a) | 100 | 70.51 | 12.69 | 84.832 | .000 | a<c b<c |
| | 교육대 (b) | 10 | 75.97 | 9.53 | | | |
| | 전문대 (c) | 71 | 98.27 | 7.82 | | | |
| | 사이버대 (d) | - | - | - | | | |
| | 산업대 (e) | 2 | 92.64 | 10.39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일반대 (a) | 100 | 52.86 | 9.40 | 9.948 | .000 | a>c |
| | 교육대 (b) | 10 | 49.19 | 7.17 | | | |
| | 전문대 (c) | 71 | 45.58 | 8.88 | | | |
| | 사이버대 (d) | - | - | - | | | |
| | 산업대 (e) | 2 | 37.72 | 14.81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일반대 (a) | 100 | 73.19 | 18.92 | 1.709 | .240 | |
| | 교육대 (b) | 10 | 80.18 | 18.48 | | | |
| | 전문대 (c) | 71 | 67.47 | 23.48 | | | |
| | 사이버대 (d) | - | - | - | | | |
| | 산업대 (e) | 2 | 67.93 | 4.24 | | | |

(3) 학교 지역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7>는 2008년도 지역별 건전성 지수 및 지역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 소재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약 262점으로 수도권 소재의 대학(약 24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2008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지역 | N | M | SD | t | p |
|-----|-----|--------|-------|--------|------|
| 수도권 | 68 | 244.07 | 39.37 | -3.148 | .002 |
| 지방 | 115 | 262.10 | 36.25 | | |

다음 <표 IV-8 >는 2008년도 대학특성 중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약 54점으로 수도권 대학(약 5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약 83점으로 수도권 대학(약 7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약 50점으로 수도권 대학(약 4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약 74점으로 수도권 대학(약 6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지역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건전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여 학생들이 좀 더 질 좋은 강의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8> 2008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지역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수도권 | 68 | 50.18 | 22.15 | -1.117 | .265 |
| | 지방 | 115 | 54.00 | 22.48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수도권 | 68 | 79.02 | 19.10 | -1.623 | .107 |
| | 지방 | 115 | 83.48 | 15.79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수도권 | 68 | 47.47 | 8.81 | -2.362 | .019 |
| | 지방 | 115 | 50.97 | 10.14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수도권 | 68 | 67.37 | 18.37 | -1.974 | .050 |
| | 지방 | 115 | 73.62 | 21.97 | | |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9>는 2008년도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5천 미만 규모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약 2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학교 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건전성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5천 미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 규모의 학교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의 규모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2008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5천 미만 (a) | 74 | 271.05 | 32.51 | 15.935 | .000 | |
| 5천 ~ 1만 (b) | 61 | 259.53 | 31.90 | | | a>c |
| 1만~1만5천 (c) | 20 | 242.68 | 38.44 | | | a>d |
| 1만5천~2만 (d) | 19 | 211.56 | 35.40 | | | a>e |
| 2만 이상 (e) | 9 | 219.47 | 31.93 | | | b>d b>e |

다음 <표 IV-10>는 2008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약 5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도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약 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만 이상 규모의 대학이 약 53점으로 가장 높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1만~1만5천 규모의 대학의 점수가 약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1만 5천~2만 규모의 대학의 점수가 약 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 미만 규모의 학교와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학교 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 미만 규모의 학교가 타 규모의 학교보다 높고, 5천~ 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 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2만 규모의 학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2008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5천 미만 (a) | 74 | 58.29 | 21.68 | 9.312 | .000 | a>d a>e b>d b>e |
| | 5천 ~ 1만 (b) | 61 | 56.85 | 19.26 | | | |
| | 1만~1만5천 (c) | 20 | 46.89 | 19.75 | | | |
| | 1만5천~2만 (d) | 19 | 33.08 | 21.68 | | | |
| | 2만 이상 (e) | 9 | 30.55 | 18.91 | | | |

| | | | | |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5천 미만 (a) | 74 | 93.68 | 11.42 | 41.393 | .000 | a>b |
| | 5천 ~ 1만 (b) | 61 | 78.64 | 17.42 | | | a>c |
| | 1만~1만5천 (c) | 20 | 70.69 | 9.74 | | | a>d |
| | 1만5천~2만 (d) | 19 | 65.95 | 11.40 | | | a>e |
| | 2만 이상 (e) | 9 | 64.18 | 9.77 | | | b>d b>e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천 미만 (a) | 74 | 47.78 | 10.61 | 1.606 | .175 | |
| | 5천 ~ 1만 (b) | 61 | 50.50 | 10.11 | | | |
| | 1만~1만5천 (c) | 20 | 49.54 | 8.94 | | | |
| | 1만5천~2만 (d) | 19 | 52.91 | 6.57 | | | |
| | 2만 이상 (e) | 9 | 53.06 | 4.99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5천 미만 (a) | 74 | 71.28 | 24.37 | 2.737 | .043 | b>d |
| | 5천 ~ 1만 (b) | 61 | 73.52 | 17.58 | | | |
| | 1만~1만5천 (c) | 20 | 75.55 | 17.31 | | | |
| | 1만5천~2만 (d) | 19 | 59.60 | 16.67 | | | |
| | 2만 이상 (e) | 9 | 71.66 | 20.81 | | | |

2) 2009년 건전성 지수

다음 <표 IV-11>는 2009년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및 각 지표의 점수를 설립유형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이 251.77점으로 사립(242.60)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학교유형별로 산업대가 296.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사이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수도권 소재 대학(228.6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1> 2009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2009년 | | 지표1 | 지표2 | 지표3 | 지표4 | 합계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57.94 | 71.16 | 53.91 | 68.74 | 251.77 |
| | 사립 | 56.63 | 71.91 | 49.20 | 64.85 | 242.61 |
| 학교 유형 | 일반대 | 48.03 | 60.35 | 54.47 | 61.03 | 223.90 |
| | 교육대 | 64.86 | 76.97 | 49.19 | 80.82 | 271.86 |
| | 전문대 | 63.88 | 93.40 | 46.40 | 69.33 | 273.04 |
| | 사이버대 | 78.40 | 33.08 | 38.60 | 67.14 | 217.24 |
| | 산업대 | 88.06 | 85.84 | 39.77 | 82.78 | 296.47 |
| 지역 | 수도권 | 56.27 | 65.82 | 46.68 | 59.84 | 228.64 |
| | 지방 | 57.29 | 75.52 | 52.36 | 69.32 | 254.51 |
| 학교 규모 | 5천 미만 | 64.79 | 85.56 | 47.42 | 68.64 | 266.44 |
| | 5천 이상 1만 이하 | 59.26 | 69.76 | 50.81 | 70.03 | 249.88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47.00 | 55.02 | 51.51 | 61.86 | 215.41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37.19 | 48.92 | 55.94 | 45.57 | 187.64 |
| | 2만 이상 | 33.95 | 49.40 | 54.94 | 58.73 | 197.04 |

지표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지표 2: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지표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 4: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이하에서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대학의 특성 구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특성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학교유형(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 산업대), 지역(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5천명 미만, 5천~1만, 1

만~1만 5천, 1만 5천~2만, 2만 이상)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12>는 2009년도의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51.77점으로 사립대학(242.61점)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2009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국·공립 | 40 | 251.77 | 40.58 | 1.126 | .261 |
| 사립 | 156 | 242.61 | 47.15 | | |

다음 <표 IV-13>는 2009년도의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국·공립(57.94)이 사립대학(56.63)보다 높고,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국·공립(71.16)과 사립대학(71.91)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 대학의 점수(약 54점)가 사립대학(약 49점)보다 높고,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국·공립(68.74)이 사립대학(64.8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2009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국·공립 | 40 | 57.94 | 17.45 | .397 | .693 |
| | 사립 | 156 | 56.63 | 22.71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국·공립 | 40 | 71.16 | 20.50 | -.194 | .847 |
| | 사립 | 156 | 71.91 | 26.49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국·공립 | 40 | 53.91 | 10.55 | 2.558 | .011 |
| | 사립 | 156 | 49.20 | 10.34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국·공립 | 40 | 68.74 | 20.94 | .946 | .345 |
| | 사립 | 156 | 64.85 | 23.76 | | |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14>는 2009년도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대가 296.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약 273점), 교육대(약 272점), 일반대(약 224점), 사이버대(약 217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증결과, 학교유형에 따라서 건전성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산업대가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고, 사이버대와 일반대가 교육대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2009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일반대 (a) | 101 | 223.90 | 45.51 | 47.961 | .000 | a<b |
| 교육대 (b) | 10 | 271.86 | 34.70 | | | a<c |
| 전문대 (c) | 71 | 273.04 | 29.31 | | | a<e |
| 사이버대 (d) | 12 | 217.24 | 31.43 | | | b>d |
| 산업대 (e) | 2 | 296.47 | 4.19 | | | c>d |
| | | | | | | c<e |
| | | | | | | d<e |

다음 <표 IV-15>는 2009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가 약 88점으로 가장 높고, 사이버대(약 78점), 교육대(약 65점), 전문대(약 64점), 일반대(약 48점)순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약 9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대(약 86점), 교육대(약 77점), 일반대(약 60점), 사이버대(약 33점)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약 5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대(약 49점), 전문대(약 46점), 산업대(약 40점), 사이버대(약 39점)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산업대(약 83점), 교육대(약 81점), 전문대(약 69점), 사이버대(약 67점), 일반대(약 6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대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대학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가 전문대보다 높고, 교육대와 전문대가 사이버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대학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일반대가 전문대와 사이버대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사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었지만, 평균차이 검증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2009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일반대 (a) | 101 | 48.03 | 21.56 | 14.797 | .001 | a<b a<c a<d |
| | 교육대 (b) | 10 | 64.86 | 4.35 | | | |
| | 전문대 (c) | 71 | 63.88 | 17.12 | | | |
| | 사이버대 (d) | 12 | 78.40 | 21.47 | | | |
| | 산업대 (e) | 2 | 88.06 | 8.14 | | | |

| | | | | |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일반대 (a) | 101 | 60.35 | 17.99 | 39.507 | .000 | a>c b>d c>d |
| | 교육대 (b) | 10 | 76.97 | 15.92 | | | |
| | 전문대 (c) | 71 | 93.40 | 14.19 | | | |
| | 사이버대 (d) | 12 | 33.08 | 31.71 | | | |
| | 산업대 (e) | 2 | 85.84 | 20.01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일반대 (a) | 101 | 54.47 | 9.51 | 13.303 | .000 | a>c a>d |
| | 교육대 (b) | 10 | 49.19 | 4.14 | | | |
| | 전문대 (c) | 71 | 46.40 | 9.29 | | | |
| | 사이버대 (d) | 12 | 38.60 | 11.57 | | | |
| | 산업대 (e) | 2 | 39.77 | 13.32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일반대 (a) | 101 | 61.03 | 22.54 | 2.908 | .023 | |
| | 교육대 (b) | 10 | 80.82 | 19.37 | | | |
| | 전문대 (c) | 71 | 69.33 | 21.69 | | | |
| | 사이버대 (d) | 12 | 67.14 | 32.77 | | | |
| | 산업대 (e) | 2 | 82.78 | 10.63 | | | |

(3) 학교 지역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16>는 2009년도 지역별 건전성 지수 및 지역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 소재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약 255점으로 수도권 소재의 대학(약 22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2009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지역 | N | M | SD | t | p |
|-----|-----|--------|-------|--------|------|
| 수도권 | 76 | 228.64 | 46.65 | -3.986 | .000 |
| 지방 | 120 | 254.51 | 42.71 | | |

다음 <표 IV-17>는 2009년도 대학특성 중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약 57점으로 수도권 대학(약 5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약 76점으로 수도권 대학(약 6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약 52점으로 수도권 대학(약 4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약 69점으로 수도권 대학(약 6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지역에 따라서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2009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지역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수도권 | 76 | 56.27 | 22.95 | -.319 | .750 |
| | 지방 | 120 | 57.29 | 20.96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수도권 | 76 | 65.82 | 27.69 | -2.651 | .009 |
| | 지방 | 120 | 75.52 | 23.07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수도권 | 76 | 46.68 | 8.85 | -3.800 | .000 |
| | 지방 | 120 | 52.36 | 10.93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수도권 | 76 | 59.84 | 24.01 | -2.836 | .005 |
| | 지방 | 120 | 69.32 | 22.01 | | |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18>는 2009년도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5000미만 규모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약 2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증결과, 건전성 지수는 대학의 학교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2009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5천 미만 (a) | 82 | 266.44 | 36.14 | 25.066 | .000 | a>c |
| 5천 ~ 1만 (b) | 64 | 249.88 | 36.81 | | | a>d |
| 1만~1만5천 (c) | 22 | 215.41 | 46.70 | | | a>e |
| 1만5천~2만 (d) | 19 | 187.64 | 37.56 | | | b>c |
| 2만 이상 (e) | 9 | 197.04 | 30.50 | | | b>d b>e |

다음 <표 IV-19>는 2009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약 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약 8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2만 이상 규모의 대학이 49.40점으로 1만5천~2만 규모 대학(48.92)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1만5천~2만 규모의 학교가 약 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만 이상(약 55점), 1만~1만5천 (약 52점), 5천 ~1만(약 51점), 5천 미만(약 47점) 규모의 학교 차례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5천 ~1만 규모의 학교가 약 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천 미만(약 69점), 1만~1만5천(약 62점), 2만 이상(약 59점), 1만5천~2만 (약 46점)의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 규모에 비하여 높고,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 규모의 학교가 타 규모의 학교에 미하여 높고,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천 미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2만 규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2만 규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2009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5천 미만 (a) | 82 | 64.79 | 18.04 | 13.064 | .000 | a>c a>d a>e b>d b>e |
| | 5천 ~ 1만 (b) | 64 | 59.26 | 19.22 | | | |
| | 1만~1만5천 (c) | 22 | 47.00 | 20.73 | | | |
| | 1만5천~2만 (d) | 19 | 37.19 | 25.47 | | | |
| | 2만 이상 (e) | 9 | 33.95 | 14.85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5천 미만 (a) | 82 | 85.56 | 22.21 | 19.596 | .000 | a>b a>c a>d a>e b>d |
| | 5천 ~ 1만 (b) | 64 | 69.76 | 23.57 | | | |
| | 1만~1만5천 (c) | 22 | 55.02 | 20.96 | | | |
| | 1만5천~2만 (d) | 19 | 48.92 | 14.07 | | | |
| | 2만 이상 (e) | 9 | 49.40 | 11.37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천 미만 (a) | 82 | 47.42 | 11.77 | 3.614 | .007 | a<d |
| | 5천 ~ 1만 (b) | 64 | 50.81 | 10.11 | | | |
| | 1만~1만5천 (c) | 22 | 51.51 | 6.85 | | | |
| | 1만5천~2만 (d) | 19 | 55.94 | 8.35 | | | |
| | 2만 이상 (e) | 9 | 54.94 | 4.63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5천 미만 (a) | 82 | 68.64 | 23.68 | 5.226 | .001 | a>d b>d |
| | 5천 ~ 1만 (b) | 64 | 70.03 | 20.31 | | | |
| | 1만~1만5천 (c) | 22 | 61.86 | 26.38 | | | |
| | 1만5천~2만 (d) | 19 | 45.57 | 14.91 | | | |
| | 2만 이상 (e) | 9 | 58.73 | 24.19 | | | |

3) 2010년 건전성 지수

다음 <표 IV-20>는 2010년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및 각 지표의 점수를 설

립유형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제시한 것이다.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이 235.27점으로 사립(234.65)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전문대가 272.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대, 일반대, 교육대, 사이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243.98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220.3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0> 2010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2010년 | | 지표1 | 지표2 | 지표3 | 지표4 | 합계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56.94 | 69.28 | 54.23 | 54.80 | 235.27 |
| | 사립 | 56.92 | 67.38 | 49.60 | 60.74 | 234.66 |
| 학교 유형 | 일반대 | 47.66 | 55.47 | 55.72 | 60.18 | 219.06 |
| | 교육대 | 67.23 | 76.43 | 48.42 | 26.73 | 218.83 |
| | 전문대 | 61.77 | 92.09 | 46.80 | 71.97 | 272.65 |
| | 사이버대 | 83.96 | 29.76 | 37.09 | 25.25 | 176.09 |
| | 산업대 | 84.76 | 85.57 | 38.67 | 24.71 | 233.73 |
| 지역 | 수도권 | 56.77 | 61.58 | 46.69 | 55.32 | 220.38 |
| | 지방 | 57.02 | 71.71 | 52.98 | 62.25 | 243.99 |
| 학교 규모 | 5천 미만 | 64.55 | 82.10 | 47.26 | 61.57 | 255.51 |
| | 5천 이상 1만 이하 | 58.05 | 65.14 | 51.55 | 63.78 | 238.55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48.22 | 47.95 | 52.46 | 54.10 | 202.75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41.98 | 46.76 | 56.53 | 45.22 | 190.52 |
| | 2만 이상 | 30.62 | 45.94 | 56.48 | 54.48 | 187.54 |

지표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지표 2: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지표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 4: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이하에서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대학의 특성 구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특성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학교유형(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 산업대), 지역(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5천명 미만, 5천~1만, 1만~1만 5천, 1만 5천~2만, 2만 이상)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21>는 2010년도의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35.27점으로 사립대학(234.66)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2010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국·공립 | 40 | 235.27 | 40.06 | .081 | .936 |
| 사립 | 160 | 234.66 | 53.26 | | |

다음 <표 IV-22>는 2010년도의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국·공립(56.94)과 사립대학(56.92)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국·공립 대학의 점수(69.28)가 사립대학(67.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 대학의 점수(54.23)가 사립대학(49.60)보다 높고,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사립대학(60.74)이 국·공립(54.80)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2010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국·공립 | 40 | 56.94 | 19.12 | .006 | .996 |
| | 사립 | 160 | 56.92 | 23.28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국·공립 | 40 | 69.28 | 21.11 | .474 | .637 |
| | 사립 | 160 | 67.38 | 28.05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국·공립 | 40 | 54.23 | 11.19 | 2.391 | .018 |
| | 사립 | 160 | 49.60 | 10.89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국·공립 | 40 | 54.80 | 23.39 | -1.354 | .177 |
| | 사립 | 160 | 60.74 | 25.14 | | |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23>는 2010년도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문대가 272.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대(233.73), 일반대(219.06), 교육대(218.83), 사이버대(176.0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증결과, 건전성 지수는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전문대가 일반대, 교육대, 사이버대보다 높고, 사이버대가 일반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표 IV-23> 2010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일반대 (a) | 101 | 219.06 | 47.49 | 28.578 | .000 | a<c a>d b<c c>d |
| 교육대 (b) | 10 | 218.83 | 25.88 | | | |
| 전문대 (c) | 71 | 272.65 | 33.13 | | | |
| 사이버대 (d) | 12 | 176.09 | 37.18 | | | |
| 산업대 (e) | 2 | 233.73 | 13.08 | | | |

다음 <표 IV-24>는 2010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가 84.76으로 가장 높고, 사이버대(83.96), 교육대(67.23), 전문대(61.77), 일반대(47.66)순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92.0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대(85.57), 교육대(76.43), 일반대(55.47), 사이버대(29.76)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55.7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대(48.42), 전문대(46.80), 산업대(38.67), 사이버대(37.09) 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전문대(71.97), 일반대(60.18), 교육대(26.73), 사이버대(25.25), 산업대(24.7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이버대가 일반대, 교육대, 전문대에 비하여 높고, 일반대가 교육대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대와 교육대가 일반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고, 사이버대가 일반대, 산업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가 전문대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고, 전문대가 사이버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대가 일반대, 교육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고, 일반대가 교육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2010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일반대 (a) | 101 | 47.66 | 20.20 | 21.313 | .000 | a<b a<c a<d b<d c<d |
| | 교육대 (b) | 10 | 67.23 | 4.46 | | | |
| | 전문대 (c) | 71 | 61.77 | 20.99 | | | |
| | 사이버대 (d) | 12 | 83.96 | 16.14 | | | |
| | 산업대 (e) | 2 | 84.76 | 8.47 | | | |

| | | | | |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일반대 (a) | 101 | 55.47 | 18.21 | 65.435 | .000 | a<b |
| | 교육대 (b) | 10 | 76.43 | 13.26 | | | a<c |
| | 전문대 (c) | 71 | 92.09 | 16.29 | | | a>d |
| | 사이버대 (d) | 12 | 29.76 | 21.84 | | | b>d |
| | 산업대 (e) | 2 | 85.57 | 20.40 | | | c>d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일반대 (a) | 101 | 55.72 | 9.77 | 19.274 | .000 | d<e |
| | 교육대 (b) | 10 | 48.42 | 6.74 | | | a>c |
| | 전문대 (c) | 71 | 46.80 | 9.069 | | | a>d |
| | 사이버대 (d) | 12 | 37.09 | 10.60 | | | c>d |
| | 산업대 (e) | 2 | 38.67 | 10.50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일반대 (a) | 101 | 60.18 | 20.96 | 50.388 | .000 | a>b |
| | 교육대 (b) | 10 | 26.73 | 8.78 | | | a<c |
| | 전문대 (c) | 71 | 71.97 | 20.83 | | | a>d |
| | 사이버대 (d) | 12 | 25.25 | 18.04 | | | b<c |
| | 산업대 (e) | 2 | 24.71 | 5.30 | | | c>d |

(3) 학교 지역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25>는 2010년도 지역별 건전성 지수 및 지역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 소재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43.99점으로 수도권 소재의 대학(220.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2010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지역 | N | M | SD | t | p |
|-----|-----|--------|-------|--------|------|
| 수도권 | 78 | 220.38 | 57.32 | -3.101 | .002 |
| 지방 | 122 | 243.99 | 43.99 | | |

다음 <표 IV-26>는 2010년도 대학특성 중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57.02점으로 수도권 대학(56.7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71.71점으로 수도권 대학(61.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52.98점으로 수도권 대학(46.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62.25점으로 수도권 대학(55.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지역에 따라서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2010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지역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수도권 | 78 | 56.77 | 23.81 | -.077 | .939 |
| | 지방 | 122 | 57.02 | 21.66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수도권 | 78 | 61.58 | 29.02 | -2.554 | .012 |
| | 지방 | 122 | 71.71 | 24.54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수도권 | 78 | 46.69 | 8.96 | -4.062 | .000 |
| | 지방 | 122 | 52.98 | 11.63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수도권 | 78 | 55.32 | 25.36 | -1.939 | .057 |
| | 지방 | 122 | 62.25 | 24.25 | | |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27>는 2010년도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5천 미만 규모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55.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지수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2010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5천 미만 (a) | 85 | 255.51 | 47.93 | 14.591 | .000 | a>c |
| 5천 ~ 1만 (b) | 64 | 238.55 | 41.43 | | | a>d |
| 1만~1만5천 (c) | 23 | 202.75 | 49.65 | | | a>e |
| 1만5천~2만 (d) | 19 | 190.52 | 39.63 | | | b>c |
| 2만 이상 (e) | 9 | 187.54 | 38.27 | | | b>d |
| | | | | | | b>e |

다음 <표 IV-28>는 2010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64.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역시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82.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1만5천~2만 규모의 대학이 56.53점으로 가장 높고, 2만 이상 규모의 대학이 56.48점으로, 그 다음으로는 규모가 작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5천~1만 규모의 대학의 점수가 63.78로 가장 높았고, 5천 미만(61.57), 2만 이상(54.48), 1만~1만5천(54.10), 1만 5천~2만(45.22) 규모의 대학의 순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지표별 학교 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 규모 학교에 비하여 높고,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2만 이상의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타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고,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의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1만 5천~2만 규모의 학교가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2010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5천 미만 (a) | 85 | 64.55 | 22.39 | 10.094 | .000 | a>c a>d a>e b>e |
| | 5천 ~ 1만 (b) | 64 | 58.05 | 18.32 | | | |
| | 1만~1만5천 (c) | 23 | 48.22 | 20.07 | | | |
| | 1만5천~2만 (d) | 19 | 41.98 | 23.16 | | | |
| | 2만 이상 (e) | 9 | 30.62 | 13.32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5천 미만 (a) | 85 | 82.10 | 24.40 | 25.816 | .000 | a>b a>c a>d a>e b>c b>d b>e |
| | 5천 ~ 1만 (b) | 64 | 65.14 | 24.42 | | | |
| | 1만~1만5천 (c) | 23 | 47.95 | 22.46 | | | |
| | 1만5천~2만 (d) | 19 | 46.76 | 13.21 | | | |
| | 2만 이상 (e) | 9 | 45.94 | 12.48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천 미만 (a) | 85 | 47.26 | 12.37 | 5.360 | .001 | a<d a<e |
| | 5천 ~ 1만 (b) | 64 | 51.55 | 10.48 | | | |
| | 1만~1만5천 (c) | 23 | 52.46 | 6.69 | | | |
| | 1만5천~2만 (d) | 19 | 56.53 | 8.44 | | | |
| | 2만 이상 (e) | 9 | 56.48 | 6.40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5천 미만 (a) | 85 | 61.57 | 28.39 | 5.355 | .001 | a>d b>d |
| | 5천 ~ 1만 (b) | 64 | 63.78 | 21.62 | | | |
| | 1만~1만5천 (c) | 23 | 54.10 | 24.25 | | | |
| | 1만5천~2만 (d) | 19 | 45.22 | 13.97 | | | |
| | 2만 이상 (e) | 9 | 54.48 | 19.40 | | | |

4) 2011년 건전성 지수

다음 <표 IV-29>는 2011년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및 각 지표의 점수를 설립유형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제시한 것이다.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 대학(248.78)이 사립대학(241.1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산업대가 300.7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교육대, 사이버대, 일반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253.47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225.9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9> 2011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2011년 | | 지표1 | 지표2 | 지표3 | 지표4 | 합계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59.86 | 67.33 | 55.06 | 66.52 | 248.79 |
| | 사립 | 59.87 | 65.75 | 49.93 | 65.57 | 241.14 |
| 학교 유형 | 일반대 | 50.52 | 52.86 | 57.33 | 58.44 | 219.17 |
| | 교육대 | 70.01 | 78.36 | 48.58 | 74.75 | 271.72 |
| | 전문대 | 65.51 | 92.14 | 46.03 | 71.74 | 275.43 |
| | 사이버대 | 82.73 | 26.19 | 36.12 | 76.42 | 221.48 |
| | 산업대 | 86.70 | 85.36 | 41.40 | 87.23 | 300.71 |
| 지역 | 수도권 | 57.68 | 59.30 | 46.85 | 62.11 | 225.96 |
| | 지방 | 61.29 | 70.45 | 53.60 | 68.12 | 253.48 |
| 학교 규모 | 5천 미만 | 68.15 | 80.71 | 46.60 | 70.36 | 265.84 |
| | 5천 이상 1만 이하 | 60.94 | 63.39 | 52.79 | 69.07 | 246.20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49.46 | 43.20 | 54.53 | 60.66 | 207.87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44.17 | 47.61 | 57.24 | 46.90 | 195.94 |
| | 2만 이상 | 32.95 | 42.62 | 57.06 | 51.02 | 183.67 |

지표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지표 2: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지표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 4: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이하에서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대학의 특성 구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특성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학교유형(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 산업대), 지역(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5천명 미만, 5천~1만, 1만~1만 5천, 1만 5천~2만, 2만 이상)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30>는 2011년도의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48.79점으로 사립대학(241.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2011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국·공립 | 40 | 248.79 | 42.10 | .909 | .364 |
| 사립 | 161 | 241.14 | 48.82 | | |

다음 <표 IV-31>는 2008년도의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역시 사립대학(65.75)이 국·공립 대학(59.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사립대학의 점수가 59.87점으로 국·공립 대학(59.86)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 대학이 59.86점으로 사립대학(49.9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국·공립 대학이 66.52점으로 사립대학(65.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2011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국·공립 사립 | 40 161 | 59.86 59.87 | 16.81 21.64 | -.006 | .995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국·공립 사립 | 40 161 | 67.33 65.75 | 22.14 27.98 | .381 | .705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국·공립 사립 | 40 161 | 55.06 49.93 | 11.68 11.52 | 2.512 | .013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국·공립 사립 | 40 161 | 66.52 65.57 | 19.66 22.27 | .249 | .804 |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32>는 2011년도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대가 300.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275.43), 교육대(271.72), 사이버대(221.48), 일반대(219.1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증결과, 건전성 지수는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전문대와 교육대가 일반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2011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일반대 (a) | 101 | 219.17 | 44.91 | 25.552 | .000 | a<b a<c b>d c>d |
| 교육대 (b) | 10 | 271.72 | 34.10 | | | |
| 전문대 (c) | 71 | 275.43 | 32.33 | | | |
| 사이버대 (d) | 12 | 221.48 | 27.28 | | | |
| 산업대 (e) | 2 | 300.71 | 18.18 | | | |

다음 <표 IV-33>는 2011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가 86.70점으로 가장 높고, 사이버대(82.73), 교육대(70.01), 전문대(65.51), 일반대(50.52)순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92.1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대(85.36), 교육대(78.36), 일반대(52.86), 사이버대(26.19)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57.3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대(48.58), 전문대(46.03), 산업대(41.40), 사이버대(36.12)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산업대(87.23), 사이버대(76.42), 교육대(74.75), 전문대(71.74), 일반대(58.4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낮고, 전문대가 사이버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사이버대가 일반대, 전문대에 비하여 높고, 일반대가 교육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가 전문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고, 사이버대가 교육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가 전문대와 사이버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2011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일반대 (a) | 101 | 50.52 | 20.80 | 20.242 | .000 | a<b a<c a<d c<d |
| | 교육대 (b) | 10 | 70.01 | 6.41 | | | |
| | 전문대 (c) | 71 | 65.51 | 15.06 | | | |
| | 사이버대 (d) | 12 | 82.73 | 15.69 | | | |
| | 산업대 (e) | 2 | 86.70 | 6.15 | | | |

| | | | | |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일반대 (a) | 101 | 52.86 | 16.67 | 27.319 | .000 | a<b |
| | 교육대 (b) | 10 | 78.36 | 13.13 | | | a<c |
| | 전문대 (c) | 71 | 92.14 | 15.12 | | | a>d |
| | 사이버대 (d) | 12 | 26.19 | 14.84 | | | b>d |
| | 산업대 (e) | 2 | 85.36 | 20.69 | | | c>d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일반대 (a) | 101 | 57.33 | 10.20 | 27.319 | .000 | d<e |
| | 교육대 (b) | 10 | 48.58 | 6.78 | | | a>c |
| | 전문대 (c) | 71 | 46.03 | 8.37 | | | a>d |
| | 사이버대 (d) | 12 | 36.12 | 10.56 | | | b>d |
| | 산업대 (e) | 2 | 41.40 | 8.62 | | | c>d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일반대 (a) | 101 | 58.44 | 19.19 | 6.867 | .000 | a<c |
| | 교육대 (b) | 10 | 74.75 | 18.41 | | | a<d |
| | 전문대 (c) | 71 | 71.74 | 21.35 | | | |
| | 사이버대 (d) | 12 | 76.42 | 26.30 | | | |
| | 산업대 (e) | 2 | 87.23 | .03 | | | |

(3) 학교 지역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34>는 2011년도 지역별 건전성 지수 및 지역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 소재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53.48점으로 수도권 소재의 대학(225.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2011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지역 | N | M | SD | t | p |
|-----|-----|--------|-------|--------|------|
| 수도권 | 79 | 225.96 | 50.35 | -4.167 | .000 |
| 지방 | 122 | 253.48 | 42.47 | | |

다음 <표 IV-35>는 2011년도 대학특성 중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61.29점으로 수도권 대학(57.6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역시 지방 소재 대학이 70.45로 수도권 대학(59.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지방 소재 대학이 53.60점으로 수도권 대학(46.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68.12점으로 수도권 대학(6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지역에 따라서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2011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지역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수도권 | 79 | 57.68 | 23.32 | -1.155 | .250 |
| | 지방 | 122 | 61.29 | 18.83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수도권 | 79 | 59.30 | 27.82 | -2.925 | .004 |
| | 지방 | 122 | 70.45 | 25.41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수도권 | 79 | 46.85 | 8.996 | -4.447 | .000 |
| | 지방 | 122 | 53.60 | 12.50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수도권 | 79 | 62.11 | 21.94 | -1.925 | .056 |
| | 지방 | 122 | 68.12 | 21.36 | | |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36>는 2011년도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5천 미만 규모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65.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정결과, 대학의 학교 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평균

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2011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5천 미만 (a) | 86 | 265.84 | 40.30 | 23.739 | .000 | a>c |
| 5천 ~ 1만 (b) | 64 | 246.20 | 39.68 | | | a>d |
| 1만~1만5천 (c) | 23 | 207.87 | 37.94 | | | a>e |
| 1만5천~2만 (d) | 19 | 195.94 | 38.33 | | | b>c |
| 2만 이상 (e) | 9 | 183.67 | 34.17 | | | b>d b>e |

다음 <표 IV-37>는 2011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68.5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도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80.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천~1만(63.39), 1만5천~2만(47.61), 1만~1만5천(43.20), 2만 이상(42.62)의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만 이상 규모의 대학이 57.06점으로 가장 높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5천 미만 규모의 대학이 70.3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1만(69.07), 1만~1만5천(60.66), 2만 이상(51.02), 1만5천~2만(46.90)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 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 규모 학교에 비하여 높고, 1만 5천~2만 규모의 학교가 2만 이상의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타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고,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이상의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타 규모에 비하

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1만 5천~2만 규모의 학교가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2011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5천 미만 (a) | 86 | 68.15 | 17.39 | 14.529 | .000 | a>c |
| | 5천 ~ 1만 (b) | 64 | 60.94 | 17.49 | | | a>d |
| | 1만~1만5천 (c) | 23 | 49.46 | 18.87 | | | a>e |
| | 1만5천~2만 (d) | 19 | 44.17 | 25.07 | | | b>d |
| | 2만 이상 (e) | 9 | 32.95 | 16.46 | | | b>e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5천 미만 (a) | 86 | 80.71 | 25.91 | 31.720 | .000 | a>b |
| | 5천 ~ 1만 (b) | 64 | 63.39 | 23.79 | | | a>c |
| | 1만~1만5천 (c) | 23 | 43.20 | 16.92 | | | a>d |
| | 1만5천~2만 (d) | 19 | 47.61 | 11.81 | | | a>e |
| | 2만 이상 (e) | 9 | 42.62 | 8.51 | | | b>c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천 미만 (a) | 86 | 46.60 | 13.08 | 7.143 | .000 | b>d |
| | 5천 ~ 1만 (b) | 64 | 52.79 | 10.57 | | | b>e |
| | 1만~1만5천 (c) | 23 | 54.53 | 6.78 | | | a<b |
| | 1만5천~2만 (d) | 19 | 57.24 | 8.21 | | | a<c |
| | 2만 이상 (e) | 9 | 57.06 | 6.79 | | | a<d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5천 미만 (a) | 86 | 70.36 | 23.95 | 11.462 | .000 | a<e |
| | 5천 ~ 1만 (b) | 64 | 69.07 | 17.18 | | | a<d |
| | 1만~1만5천 (c) | 23 | 60.66 | 21.15 | | | a>d |
| | 1만5천~2만 (d) | 19 | 46.90 | 13.50 | | | b>d |
| | 2만 이상 (e) | 9 | 51.02 | 16.40 | | | |

5) 2012년 건전성 지수

다음 <표 IV-38>는 2012년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및 각 지표의 점수를 설립유형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제시한 것이다.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 대학(270.56)이 사립대학(265.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산업대가 290.2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교육대, 사이버대, 일반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274.22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254.2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8> 2012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2012년 | | 지표1 | 지표2 | 지표3 | 지표4 | 합계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62.87 | 79.86 | 52.21 | 75.60 | 270.57 |
| | 사립 | 68.14 | 78.19 | 49.20 | 69.87 | 265.42 |
| 학교 유형 | 일반대 | 60.89 | 72.34 | 55.97 | 72.39 | 261.61 |
| | 교육대 | 70.25 | 82.69 | 51.67 | 74.11 | 278.74 |
| | 전문대 | 71.23 | 99.02 | 44.34 | 69.03 | 283.64 |
| | 사이버대 | 81.29 | 30.83 | 36.76 | 69.90 | 218.80 |
| | 산업대 | 84.10 | 94.88 | 45.85 | 65.39 | 290.24 |
| 지역 | 수도권 | 64.91 | 73.24 | 46.55 | 69.48 | 254.20 |
| | 지방 | 68.50 | 81.88 | 51.86 | 71.96 | 274.23 |
| 학교 규모 | 5천 미만 | 72.19 | 85.70 | 46.16 | 70.25 | 274.31 |
| | 5천 이상 1만 이하 | 69.01 | 79.36 | 52.06 | 74.20 | 274.66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62.02 | 62.90 | 53.63 | 72.92 | 251.49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51.19 | 67.21 | 53.11 | 64.06 | 235.60 |
| | 2만 이상 | 50.40 | 66.15 | 52.41 | 65.28 | 234.27 |

지표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지표 2: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지표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 4: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이하에서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대학의 특성 구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특성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학교유형(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 산업대), 지역(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5천명 미만, 5천~1만, 1만~1만 5천, 1만 5천~2만, 2만 이상)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39>는 2012년도의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70.57점으로 사립대학(265.4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2012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국·공립 | 40 | 270.57 | 35.78 | .741 | .459 |
| 사립 | 163 | 265.42 | 40.12 | | |

다음 <표 IV-40>는 2012년도의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사립대학이 68.14점으로 국·공립 대학(62.8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국·공립 대학(79.86)이 사립대학(78.19)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국·공립 대학이 52.21점으로 사립대학(49.20)보다 높았으며, 전임 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역시 국·공립 대학(75.60)이 사립대학(69.87)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지표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2012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국·공립 | 40 | 62.87 | 16.61 | -1.727 | .086 |
| | 사립 | 163 | 68.14 | 17.43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국·공립 | 40 | 79.86 | 15.46 | .539 | .591 |
| | 사립 | 163 | 78.19 | 24.04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국·공립 | 40 | 52.21 | 10.77 | 1.480 | .141 |
| | 사립 | 163 | 49.20 | 11.71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국·공립 | 40 | 75.60 | 19.63 | 1.501 | .135 |
| | 사립 | 163 | 69.87 | 22.10 | | |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41>는 2012년도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대가 290.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283.64), 교육대(278.74), 일반대(261.61), 사이버대(218.8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증결과, 건전성 지수는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사이버대가 일반대, 교육대, 전문대에 비하여 낮고, 전문대가 일반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2012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일반대 (a) | 101 | 261.61 | 42.73 | 23.330 | .000 | a>c a>d b>d c>d |
| 교육대 (b) | 10 | 278.74 | 29.00 | | | |
| 전문대 (c) | 71 | 283.64 | 24.36 | | | |
| 사이버대 (d) | 19 | 218.80 | 23.14 | | | |
| 산업대 (e) | 2 | 290.24 | 31.62 | | | |

다음 <표 IV-42>는 2012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가 84.10점으로 가장 높고, 사이버대(81.29), 전문대(71.23), 교육대(70.25), 일반대(60.89)순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99.0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대(94.88), 교육대(82.69), 일반대(72.34), 사이버대(30.83)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55.9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대(51.67), 산업대(45.85), 전문대(44.34), 사이버대(36.76)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전문대(74.12), 일반대(72.39), 사이버대(69.91), 교육대(69.04), 산업대(65.4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가 타 유형의 대학에 비하여 낮고, 사이버대와 산업대가 교육대와 전문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대가 일반대, 교육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고, 사이버대가 일반대와 교육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가 전문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고 교육대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2012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일반대 (a) | 101 | 60.89 | 18.34 | 51.556 | .000 | a<b |
| | 교육대 (b) | 10 | 70.25 | 4.80 | | | a<c |
| | 전문대 (c) | 71 | 71.23 | 14.81 | | | a<d |
| | 사이버대 (d) | 19 | 81.29 | 10.73 | | | a<e |
| | 산업대 (e) | 2 | 84.10 | .86 | | | b<d |
| | | | | | | | b<e |
| | | | | | | | c<d |
| | | | | | | | c<e |

| | | | | |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일반대 (a) | 101 | 72.34 | 13.81 | 132.446 | .000 | a<c a>d b<c b>d c>d |
| | 교육대 (b) | 10 | 82.69 | 8.940 | | | |
| | 전문대 (c) | 71 | 99.02 | 4.721 | | | |
| | 사이버대 (d) | 19 | 30.83 | 14.96 | | | |
| | 산업대 (e) | 2 | 94.88 | 7.22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일반대 (a) | 101 | 55.97 | 10.07 | 25.797 | .000 | a>c a>d b>d |
| | 교육대 (b) | 10 | 51.67 | 8.143 | | | |
| | 전문대 (c) | 71 | 44.34 | 8.138 | | | |
| | 사이버대 (d) | 19 | 36.76 | 11.12 | | | |
| | 산업대 (e) | 2 | 45.85 | 12.51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일반대 (a) | 101 | 72.39 | 20.76 | .341 | .850 | |
| | 교육대 (b) | 10 | 74.12 | 21.20 | | | |
| | 전문대 (c) | 71 | 69.04 | 22.17 | | | |
| | 사이버대 (d) | 19 | 69.91 | 25.59 | | | |
| | 산업대 (e) | 2 | 65.40 | 36.04 | | | |

(3) 학교 지역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43>는 2012년도 지역별 건전성 지수 및 지역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 소재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74.22점으로 수도권 소재의 대학(254.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2012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지역 | N | M | SD | t | p |
|-----|-----|--------|-------|--------|------|
| 수도권 | 79 | 254.20 | 39.17 | -3.649 | .000 |
| 지방 | 124 | 274.22 | 37.44 | | |

다음 <표 IV-44>는 2012년도 대학특성 중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68.50점으로 수도권 대학(64.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81.88점으로 수도권 대학(73.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지방 소재 대학이 51.86점으로 수도권 대학(46.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역시 지방 소재 대학이 71.96점으로 수도권 대학(69.48)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지역에 따라서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과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2012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지역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수도권 | 79 | 64.91 | 19.14 | -1.443 | .151 |
| | 지방 | 124 | 68.50 | 16.05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수도권 | 79 | 73.24 | 25.71 | -2.548 | .012 |
| | 지방 | 124 | 81.88 | 19.72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수도권 | 79 | 46.55 | 9.55 | -3.260 | .001 |
| | 지방 | 124 | 51.86 | 12.28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수도권 | 79 | 69.48 | 20.90 | -.792 | .429 |
| | 지방 | 124 | 71.96 | 22.24 | | |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45>는 2012년도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5천~1만 규모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74.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천 미만은 274.31점, 다음으로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정결과, 대학의 학교

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5천~2만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2012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5천 미만 (a) | 88 | 274.31 | 38.44 | 7.779 | .000 | a>d b>d |
| 5천 ~ 1만 (b) | 64 | 274.66 | 31.15 | | | |
| 1만~1만5천 (c) | 23 | 251.49 | 40.28 | | | |
| 1만5천~2만 (d) | 19 | 235.60 | 41.97 | | | |
| 2만 이상 (e) | 9 | 234.27 | 38.94 | | | |

다음 <표 IV-46>는 2012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72.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85.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천~1만(79.36), 1만5천~2만(67.21), 2만 이상(66.15), 1만~1만5천(62.90)의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1만~1만5천(53.63) 규모의 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만5천~2만(53.11), 2만 이상(52.41), 5천~1만(52.06), 5천 미만(46.16) 규모의 대학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5천~1만 규모의 대학이 74.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만~1만5천(72.92), 5천 미만(70.25), 2만 이상(65.28), 1만5천~2만(64.06) 규모의 대학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 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1만 이상의 학교에 비하여 높고,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의 학교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5천~1만, 1만~1만 5천 규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2012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5천 미만 (a) | 82 | 72.19 | 15.77 | 10.218 | .000 | a>d a>e b>d b>e |
| | 5천 ~ 1만 (b) | 64 | 69.01 | 15.08 | | | |
| | 1만~1만5천 (c) | 22 | 62.02 | 15.63 | | | |
| | 1만5천~2만 (d) | 19 | 51.19 | 20.43 | | | |
| | 2만 이상 (e) | 9 | 50.40 | 14.19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5천 미만 (a) | 82 | 85.70 | 23.97 | 13.272 | .000 | a>c a>d a>e b>d b>e |
| | 5천 ~ 1만 (b) | 64 | 79.36 | 19.05 | | | |
| | 1만~1만5천 (c) | 22 | 62.90 | 25.05 | | | |
| | 1만5천~2만 (d) | 19 | 67.21 | 10.93 | | | |
| | 2만 이상 (e) | 9 | 66.15 | 5.43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천 미만 (a) | 82 | 46.16 | 13.01 | 4.134 | .006 | a<b a<c |
| | 5천 ~ 1만 (b) | 64 | 52.06 | 10.79 | | | |
| | 1만~1만5천 (c) | 22 | 53.63 | 7.61 | | | |
| | 1만5천~2만 (d) | 19 | 53.11 | 8.616 | | | |
| | 2만 이상 (e) | 9 | 52.41 | 5.56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5천 미만 (a) | 82 | 70.25 | 22.63 | 1.061 | .377 | |
| | 5천 ~ 1만 (b) | 64 | 74.20 | 21.54 | | | |
| | 1만~1만5천 (c) | 22 | 72.92 | 20.16 | | | |
| | 1만5천~2만 (d) | 19 | 64.06 | 18.92 | | | |
| | 2만 이상 (e) | 9 | 65.28 | 22.50 | | | |

6) 2013년 건전성 지수

다음 <표 IV-47>는 2013년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및 각 지표의 점수를 설립유형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제시한 것이다.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 대학(271.01)이 사립대학(270.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산업대가 298.3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사이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276.59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261.2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7> 2013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2013년 | | 지표1 | 지표2 | 지표3 | 지표4 | 합계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65.09 | 71.98 | 57.40 | 76.53 | 271.02 |
| | 사립 | 71.07 | 75.95 | 51.04 | 72.42 | 270.50 |
| 학교 유형 | 일반대 | 64.42 | 66.26 | 58.58 | 74.85 | 264.13 |
| | 교육대 | 70.77 | 86.75 | 53.42 | 73.53 | 284.49 |
| | 전문대 | 73.66 | 97.88 | 47.05 | 72.01 | 290.62 |
| | 사이버대 | 82.26 | 30.20 | 37.95 | 69.55 | 219.98 |
| | 산업대 | 90.26 | 88.18 | 51.77 | 68.14 | 298.37 |
| 지역 | 수도권 | 68.75 | 72.04 | 48.75 | 71.65 | 261.20 |
| | 지방 | 70.61 | 77.16 | 54.56 | 74.23 | 276.59 |
| 학교 규모 | 5천 미만 | 73.76 | 84.32 | 48.68 | 72.79 | 279.57 |
| | 5천 이상 1만 이하 | 72.23 | 73.79 | 54.56 | 74.37 | 274.96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69.49 | 65.00 | 55.25 | 78.71 | 268.47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53.10 | 56.84 | 57.06 | 66.14 | 233.16 |
| | 2만 이상 | 51.87 | 60.24 | 53.90 | 70.39 | 236.43 |

지표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지표 2: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지표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 4: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이하에서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대학의 특성 구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특성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학교유형(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 산업대), 지역(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5천명 미만, 5천~1만, 1만~1만 5천, 1만 5천~2만, 2만 이상)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48>는 2013년도의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71.02점으로 사립대학(270.50)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2013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국·공립 | 40 | 271.02 | 53.08 | .067 | .947 |
| 사립 | 163 | 270.50 | 41.37 | | |

다음 <표 IV-49>는 2012년도의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사립대학이 71.07점으로 국·공립 대학(65.09)보다 높고,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도 사립대학(75.95)으로 국·공립 대학(71.98)보다 높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 대학이 57.40점으로 사립대학(51.04)보다 높고,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국·공립 대학(76.53)이 사립대학(72.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

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2013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국·공립 | 40 | 65.09 | 14.71 | -2.123 | .035 |
| | 사립 | 163 | 71.07 | 16.25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국·공립 | 40 | 71.98 | 29.51 | -.797 | .427 |
| | 사립 | 163 | 75.95 | 27.90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국·공립 | 40 | 57.40 | 24.98 | 2.384 | .018 |
| | 사립 | 163 | 51.04 | 11.53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국·공립 | 40 | 76.53 | 19.36 | 1.155 | .250 |
| | 사립 | 163 | 72.42 | 20.34 | | |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50>는 2013년도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대가 298.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290.62), 교육대(284.49), 일반대(264.13), 사이버대(219.9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라 건전성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사이버대가 일반대, 교육대, 전문대에 비하여 낮고, 일반대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2013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일반대 (a) | 101 | 264.13 | 46.37 | 20.760 | .001 | a<c a>d b>d c>d |
| 교육대 (b) | 10 | 284.49 | 31.77 | | | |
| 전문대 (c) | 71 | 290.62 | 30.41 | | | |
| 사이버대 (d) | 19 | 219.98 | 26.31 | | | |
| 산업대 (e) | 2 | 298.37 | 33.38 | | | |

다음 <표 IV-51>는 2013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가 90.26점으로 가장 높고, 사이버대(82.26), 전문대(73.66), 교육대(70.77), 일반대(64.42)순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97.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대(88.18), 교육대(86.75), 일반대(66.26), 사이버대(30.20)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58.5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대(53.42), 산업대(51.77), 전문대(47.05), 사이버대(37.95)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일반대(74.85), 교육대(73.53), 전문대(72.01), 사이버대(69.55), 산업대(68.1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이버대가 일반대와 교육대에 비하여 높고, 일반대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대가 일반대, 교육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고, 사이버대가 일반대와 교육대에 비하여 낮고, 일반대가 교육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가 전문대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2013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일반대 (a) | 101 | 64.42 | 16.99 | 9.038 | .006 | a<c a<d b<d |
| | 교육대 (b) | 10 | 70.77 | 8.651 | | | |
| | 전문대 (c) | 71 | 73.66 | 13.55 | | | |
| | 사이버대 (d) | 19 | 82.26 | 10.76 | | | |
| | 산업대 (e) | 2 | 90.26 | 9.49 | | | |

| | | | | |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일반대 (a) | 101 | 66.26 | 25.28 | 97.961 | .000 | a<b |
| | 교육대 (b) | 10 | 86.75 | 5.592 | | | a<c |
| | 전문대 (c) | 71 | 97.88 | 11.09 | | | a>d |
| | 사이버대 (d) | 19 | 30.20 | 12.86 | | | b<c |
| | 산업대 (e) | 2 | 88.18 | 7.97 | | | b>d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일반대 (a) | 101 | 58.58 | 8.836 | 13.076 | .000 | c>d |
| | 교육대 (b) | 10 | 53.42 | 8.946 | | | a>c |
| | 전문대 (c) | 71 | 47.05 | 19.43 | | | a>d |
| | 사이버대 (d) | 19 | 37.95 | 11.50 | | | |
| | 산업대 (e) | 2 | 51.77 | 2.580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일반대 (a) | 101 | 74.85 | 19.81 | .415 | .415 | |
| | 교육대 (b) | 10 | 73.53 | 22.96 | | | |
| | 전문대 (c) | 71 | 72.01 | 19.06 | | | |
| | 사이버대 (d) | 19 | 69.55 | 25.53 | | | |
| | 산업대 (e) | 2 | 68.14 | 18.49 | | | |

(3) 학교 지역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52>는 2013년도 지역별 건전성 지수 및 지역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 소재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76.59점으로 수도권 소재의 대학(261.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2013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지역 | N | M | SD | t | p |
|-----|-----|--------|-------|--------|------|
| 수도권 | 76 | 261.20 | 42.59 | -2.472 | .014 |
| 지방 | 120 | 276.59 | 43.64 | | |

다음 <표 IV-53>는 2013년도 대학특성 중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70.61점으로 수도권 대학(68.7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77.16점으로 수도권 대학(70.0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지방 소재 대학이 54.56점으로 수도권 대학(48.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역시 지방 소재 대학이 74.23점으로 수도권 대학(71.6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지역에 따라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과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2013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지역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수도권 | 76 | 68.75 | 17.95 | -.804 | .422 |
| | 지방 | 120 | 70.61 | 14.83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수도권 | 76 | 72.04 | 29.12 | -1.265 | .207 |
| | 지방 | 120 | 77.16 | 27.53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수도권 | 76 | 48.75 | 9.15 | -2.681 | .008 |
| | 지방 | 120 | 54.56 | 17.82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수도권 | 76 | 71.65 | 19.51 | -.888 | .375 |
| | 지방 | 120 | 74.23 | 20.60 | | |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54>는 2013년도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5천 미만 규모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79.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천~1만(274.96), 1만~1만5천(268.47), 2만 이상(236.43), 1만5천~2만 규모의 순으로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차이 검정결과, 대학의 학교 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1만5천~2만 규모의 학교가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2013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5천 미만 (a) | 82 | 279.57 | 45.16 | 6.599 | .000 | a>d b>d |
| 5천 ~ 1만 (b) | 64 | 274.96 | 34.35 | | | |
| 1만~1만5천 (c) | 22 | 268.47 | 43.48 | | | |
| 1만5천~2만 (d) | 19 | 233.16 | 44.19 | | | |
| 2만 이상 (e) | 9 | 236.43 | 40.56 | | | |

다음 <표 IV-55>는 2012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7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84.3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천~1만(73.79), 1만~1만5천(65.00), 2만 이상(60.24), 1만5천~2만(56.84)의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1만5천~2만 규모의 대학이 57.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만~1만5천(55.25), 5천~1만(54.56), 2만 이상(53.90), 5천 미만(48.68) 규모의 대학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1만~1만5천 규모의 대학이 78.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천~1만(74.37), 5천 미만(72.79), 2만 이상(70.39), 1만5천~2만(66.14) 규모의 대학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 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고 1만~1만 5천 규모가 1만 5천~2만 규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1만 5천~2만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1만 5천~2만 규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2013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5천 미만 (a) | 82 | 73.76 | 14.52 | 11.612 | .000 | a>d a>e b>d b>e c>d |
| | 5천 ~ 1만 (b) | 64 | 72.23 | 13.70 | | | |
| | 1만~1만5천 (c) | 22 | 69.49 | 13.87 | | | |
| | 1만5천~2만 (d) | 19 | 53.10 | 20.04 | | | |
| | 2만 이상 (e) | 9 | 51.87 | 9.73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5천 미만 (a) | 82 | 84.32 | 26.11 | 6.346 | .000 | a>d |
| | 5천 ~ 1만 (b) | 64 | 73.79 | 28.62 | | | |
| | 1만~1만5천 (c) | 22 | 65.00 | 25.67 | | | |
| | 1만5천~2만 (d) | 19 | 56.84 | 26.63 | | | |
| | 2만 이상 (e) | 9 | 60.24 | 22.80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천 미만 (a) | 82 | 48.68 | 20.69 | 2.790 | .037 | a<d |
| | 5천 ~ 1만 (b) | 64 | 54.56 | 9.64 | | | |
| | 1만~1만5천 (c) | 22 | 55.25 | 7.51 | | | |
| | 1만5천~2만 (d) | 19 | 57.06 | 5.22 | | | |
| | 2만 이상 (e) | 9 | 53.90 | 5.28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5천 미만 (a) | 82 | 72.79 | 21.17 | 1.119 | .349 | |
| | 5천 ~ 1만 (b) | 64 | 74.37 | 18.68 | | | |
| | 1만~1만5천 (c) | 22 | 78.71 | 20.63 | | | |
| | 1만5천~2만 (d) | 19 | 66.14 | 20.00 | | | |
| | 2만 이상 (e) | 9 | 70.39 | 18.73 | | | |

7) 2014년(1학기) 건전성 지수

다음 <표 IV-56>는 2014년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및 각 지표의 점수를 설립유형별, 학교유형별, 지역별, 학교규모별로 제시한 것이다.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 대학(275.59)과 사립대학(275.39)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산업대가 302.5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사이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282.98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263.5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6> 2014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 및 지수

| 2014년 | | 지표1 | 지표2 | 지표3 | 지표4 | 합계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62.40 | 80.70 | 54.31 | 78.16 | 275.60 |
| | 사립 | 70.75 | 80.18 | 52.09 | 72.35 | 275.39 |
| 학교 유형 | 일반대 | 63.39 | 74.77 | 61.46 | 73.14 | 272.78 |
| | 교육대 | 66.38 | 88.99 | 55.33 | 72.19 | 282.90 |
| | 전문대 | 73.08 | 99.55 | 43.24 | 75.73 | 291.62 |
| | 사이버대 | 83.52 | 32.04 | 38.14 | 68.53 | 222.25 |
| | 산업대 | 93.30 | 89.57 | 53.75 | 65.95 | 302.58 |
| 지역 | 수도권 | 67.13 | 75.52 | 49.24 | 71.67 | 263.58 |
| | 지방 | 70.37 | 83.32 | 54.62 | 74.66 | 282.99 |
| 학교 규모 | 5천 미만 | 73.01 | 87.26 | 46.60 | 73.54 | 280.43 |
| | 5천 이상 1만 이하 | 71.90 | 80.94 | 56.22 | 73.56 | 282.64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70.42 | 69.95 | 58.39 | 77.92 | 276.69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50.76 | 65.17 | 58.54 | 68.42 | 242.91 |
| | 2만 이상 | 46.46 | 65.72 | 56.51 | 72.09 | 240.81 |

지표 1: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지표 2: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지표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 4: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이하에서는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를 대학의 특성 구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의 특성 요인으로는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학교유형(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사이버대, 산업대), 지역(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5천명 미만, 5천~1만, 1만~1만 5천, 1만 5천~2만, 2만 이상)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57>는 2014년도의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75.60점으로 사립대학(275.39)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 차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2014년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국·공립 | 40 | 275.60 | 34.87 | .031 | .975 |
| 사립 | 163 | 275.39 | 37.50 | | |

다음 <표 IV-58>는 2014년도의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사립대학이 70.75점으로 국·공립 대학(62.40)보다 높고,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국·공립 대학(80.70)이 사립대학(80.18)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 대학이 54.31점으로 사립대학(52.09)보다 높았으며, 전임 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국·공립 대학(78.16)이 사립대학(72.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 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2014년 대학특성 중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설립유형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국·공립 | 40 | 62.40 | 13.53 | -2.854 | .005 |
| | 사립 | 163 | 70.75 | 17.24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국·공립 | 40 | 80.70 | 14.91 | .176 | .861 |
| | 사립 | 163 | 80.18 | 22.89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국·공립 | 40 | 54.31 | 11.87 | 1.011 | .313 |
| | 사립 | 163 | 52.09 | 12.62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국·공립 | 40 | 78.16 | 18.76 | 1.701 | .091 |
| | 사립 | 163 | 72.35 | 19.51 | | |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59>는 2014년도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대가 302.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291.62), 교육대(282.90), 일반대(272.78), 사이버대(222.2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라 건전성 지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전문대가 일반대에 비하여 높고, 사이버대가 일반대, 교육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9> 2014년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일반대 (a) | 101 | 272.78 | 39.96 | 26.959 | .000 | a<c a>d b>d c>d |
| 교육대 (b) | 10 | 282.90 | 34.67 | | | |
| 전문대 (c) | 71 | 291.62 | 15.87 | | | |
| 사이버대 (d) | 19 | 222.25 | 25.34 | | | |
| 산업대 (e) | 2 | 302.58 | 20.87 | | | |

다음 <표 IV-60>는 2014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가 93.30점으로 가장 높고, 사이버대(83.52), 전문대(73.08), 교육대(66.38), 일반대(63.39)순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99.5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대(89.57), 교육대(88.99), 일반대(77.77), 사이버대(32.04)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64.4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대(53.75), 교육대(55.33), 전문대(43.24), 사이버대(38.14)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전문대(75.73), 일반대(73.14), 교육대(72.19), 사이버대(68.53), 산업대(65.9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유형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대가 일반대에 비하여 높고, 사이버대가 일반대, 교육대, 전문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대가 타 유형의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대가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에 비하여 낮고, 일반대가 교육대, 산업대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대와 교육대가 전문대와 사이버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0> 2014년 대학특성 중 학교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유형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일반대 (a) | 101 | 63.39 | 18.95 | 12.654 | .002 | a<c a<d b<d c<d |
| | 교육대 (b) | 10 | 66.38 | 5.39 | | | |
| | 전문대 (c) | 71 | 73.08 | 11.72 | | | |
| | 사이버대 (d) | 19 | 83.52 | 10.72 | | | |
| | 산업대 (e) | 2 | 93.30 | 8.90 | | | |

| | | | | | |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일반대 (a) | 101 | 74.77 | 11.83 | 227.321 | .000 | a<b a<c a>d a<e b<c b>d c>d c>e d<e |
| | 교육대 (b) | 10 | 88.99 | 6.72 | | | |
| | 전문대 (c) | 71 | 99.55 | 3.72 | | | |
| | 사이버대 (d) | 19 | 32.04 | 14.22 | | | |
| | 산업대 (e) | 2 | 89.57 | .21 |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일반대 (a) | 101 | 61.46 | 8.31 | 67.872 | .000 | a>c a>d b>c b>d |
| | 교육대 (b) | 10 | 55.33 | 7.53 | | | |
| | 전문대 (c) | 71 | 43.24 | 7.21 | | | |
| | 사이버대 (d) | 19 | 38.14 | 11.04 | | | |
| | 산업대 (e) | 2 | 53.75 | 3.46 |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일반대 (a) | 101 | 73.14 | 18.80 | .633 | .640 | |
| | 교육대 (b) | 10 | 72.19 | 23.97 | | | |
| | 전문대 (c) | 71 | 75.73 | 18.81 | | | |
| | 사이버대 (d) | 19 | 68.53 | 23.72 | | | |
| | 산업대 (e) | 2 | 65.95 | 8.71 | | | |

(3) 학교 지역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61>는 2014년도 지역별 건전성 지수 및 지역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 소재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82.99점으로 수도권 소재의 대학(263.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 2014년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지역 | N | M | SD | t | p |
|-----|-----|--------|-------|--------|------|
| 수도권 | 76 | 263.58 | 43.32 | -3.485 | .001 |
| 지방 | 124 | 282.99 | 29.99 | | |

다음 <표 IV-62>는 2014년도 대학특성 중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지방 소재 대학이 70.37점으로 수도권 대학(67.1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지방 소재 대학이 83.33점으로 수도권 대학(75.5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지방 소재 대학이 54.62점으로 수도권 대학(49.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역시 지방 소재 대학이 74.66점으로 수도권 대학(71.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지역에 따라서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 2014년 대학특성 중 지역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지역 | N | M | SD | t | p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수도권 | 76 | 67.13 | 19.52 | -1.259 | .210 |
| | 지방 | 124 | 70.37 | 14.91 | |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수도권 | 76 | 75.52 | 25.64 | -2.364 | .020 |
| | 지방 | 124 | 83.33 | 17.89 | |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수도권 | 76 | 49.24 | 9.10 | -3.339 | .001 |
| | 지방 | 124 | 54.62 | 13.86 | |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수도권 | 76 | 71.68 | 20.03 | -1.066 | .288 |
| | 지방 | 124 | 74.66 | 19.08 | | |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차이

다음 <표 IV-63>는 2014년도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및 학교규모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5천~1만 규모의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282.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천 미만(280.43), 1만~1만5천(276.69), 1만5천~2만(242.91), 2만 이상(240.80) 규모의 대학 순으로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차이 검정결과, 대학의 학교 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평균

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5천 미만,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2만, 2만 이상의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고, 1만~1만 5천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2만 규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3> 2014년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수 차이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5천 미만 (a) | 88 | 280.43 | 33.95 | 7.555 | .000 | |
| 5천 ~ 1만 (b) | 64 | 282.64 | 30.33 | | | a>d a>e |
| 1만~1만5천 (c) | 23 | 276.69 | 41.11 | | | b>d b>e |
| 1만5천~2만 (d) | 19 | 242.91 | 42.82 | | | c>d |
| 2만 이상 (e) | 9 | 240.81 | 35.90 | | | |

다음 <표 IV-64>는 2012년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73.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87.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천~1만(80.94), 1만~1만5천(69.95), 2만 이상(65.72), 1만5천~2만(65.17)의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1만5천~2만 규모의 대학이 58.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만~1만5천(58.39), 2만 이상(56.51), 5천~1만(56.22), 5천 미만(46.60) 규모의 대학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1만~1만5천 규모의 대학이 77.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천~1만(73.56), 5천 미만(73.54), 2만 이상(72.09), 1만5천~2만(68.42) 규모의 대학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표별 학교 규모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결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대학의 학교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1만 5천 미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의 학교에 비하여 높고 5천~1만 규모의 학교가 1만 5천 이상 규모의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5천 미만의 학교가 타 규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 2014년 대학특성 중 학교규모에 따른 건전성 지표 차이

| 변수명 | 학교 규모 | N | M | SD | F | p | Post hoc |
|---------------------------|-------------|----|-------|-------|--------|------|----------|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 5천 미만 (a) | 88 | 73.01 | 14.41 | 14.275 | .000 | a>d |
| | 5천 ~ 1만 (b) | 64 | 71.90 | 14.53 | | | a>e |
| | 1만~1만5천 (c) | 23 | 70.42 | 14.73 | | | b>d |
| | 1만5천~2만 (d) | 19 | 50.76 | 20.67 | | | b>e |
| | 2만 이상 (e) | 9 | 46.46 | 10.12 | | | c>d |
|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 5천 미만 (a) | 88 | 87.26 | 22.85 | 15.346 | .000 | c>e |
| | 5천 ~ 1만 (b) | 64 | 80.94 | 18.73 | | | a>c |
| | 1만~1만5천 (c) | 23 | 69.95 | 21.59 | | | a>d |
| | 1만5천~2만 (d) | 19 | 65.17 | 11.58 | | | a>e |
| | 2만 이상 (e) | 9 | 65.72 | 6.69 | | | b>d |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5천 미만 (a) | 88 | 46.60 | 13.39 | 11.582 | .000 | b>e |
| | 5천 ~ 1만 (b) | 64 | 56.22 | 11.34 | | | a<b |
| | 1만~1만5천 (c) | 23 | 58.39 | 8.10 | | | a<c |
| | 1만5천~2만 (d) | 19 | 58.54 | 5.37 | | | a<d |
| | 2만 이상 (e) | 9 | 56.51 | 5.093 | | | a<e |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 5천 미만 (a) | 88 | 73.54 | 20.98 | .628 | .643 | |
| | 5천 ~ 1만 (b) | 64 | 73.56 | 17.56 | | | |
| | 1만~1만5천 (c) | 23 | 77.92 | 18.25 | | | |
| | 1만5천~2만 (d) | 19 | 68.42 | 20.56 | | | |
| | 2만 이상 (e) | 9 | 72.09 | 18.80 | | | |

3. 대학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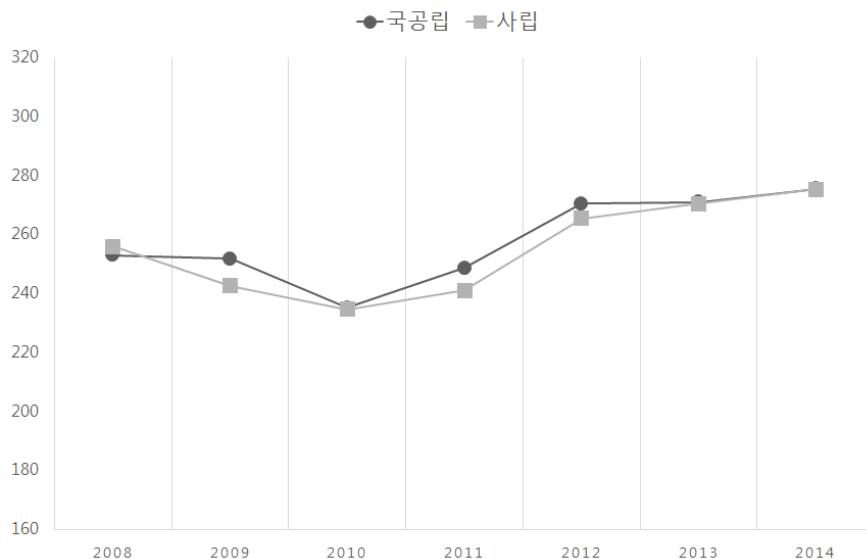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분석

(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표 IV-65>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253.06 | 251.77 | 235.27 | 248.79 | 270.57 | 271.02 | 275.60 |
| | 사립 | 256.03 | 242.61 | 234.66 | 241.14 | 265.42 | 270.50 | 275.39 |
| | 합계 | 255.40 | 244.48 | 234.78 | 242.66 | 266.44 | 270.60 | 275.43 |

<표 IV-65>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지수를 설립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국공립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사립 대학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대학 모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건전성 지수가 낮아졌다가, 이후 2014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1]은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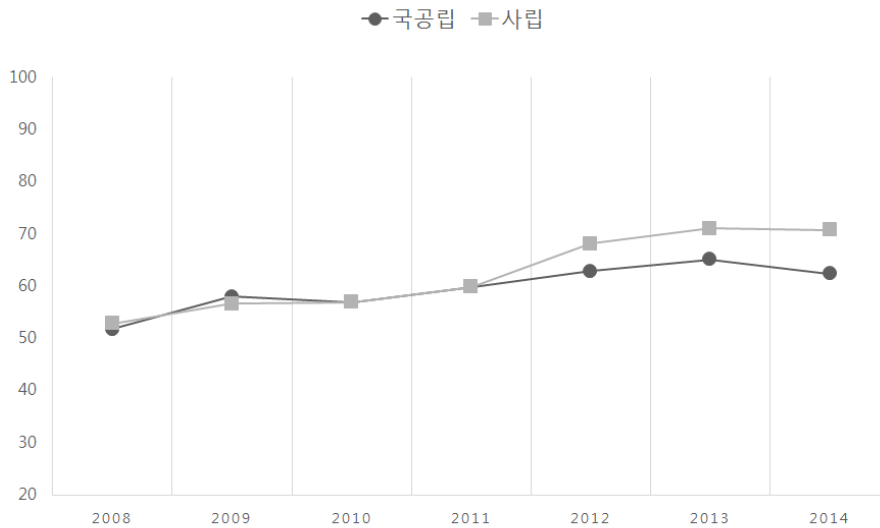
[그림 IV-1]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2) 설립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표 IV-66> 설립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51.77 | 57.94 | 56.94 | 59.86 | 62.87 | 65.09 | 62.40 |
| | 사립 | 52.81 | 56.63 | 56.92 | 59.87 | 68.14 | 71.07 | 70.75 |
| | 합계 | 52.58 | 56.90 | 56.92 | 59.87 | 67.10 | 69.89 | 69.11 |

<표 IV-66>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에 대한 점수를 설립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표의 사립대학의 건전성 점수가 국공립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9, 10년도에 국공립 대학의 점수가 사립대학보다 약간 높아졌었으나, 11년도부터 사립대학의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13년도(71.03)와 14년도(70.75)에는 사립대학의 점수가 국공립 대학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2]은 설립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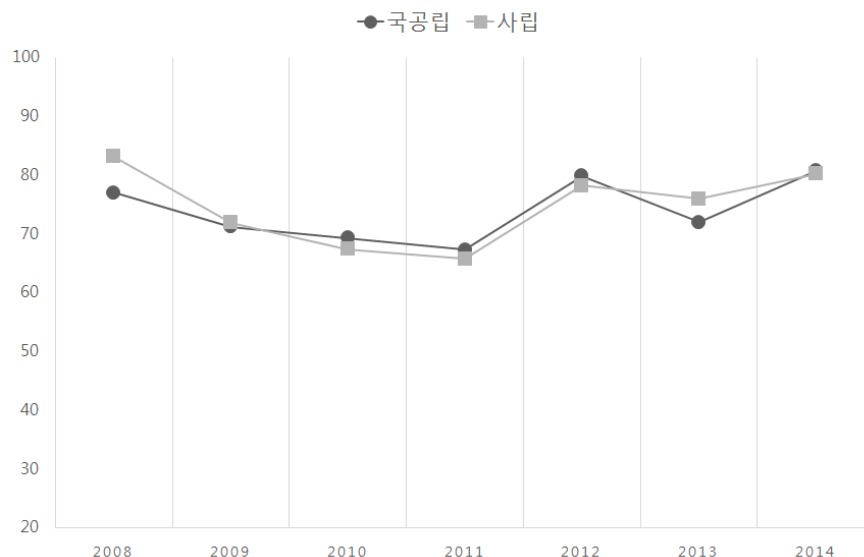
[그림 IV-2] 설립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3) 설립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표 IV-67> 설립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77.01 | 71.16 | 69.28 | 67.33 | 79.86 | 71.98 | 80.70 |
| | 사립 | 83.13 | 71.91 | 67.38 | 65.75 | 78.19 | 75.95 | 80.18 |
| | 합계 | 81.82 | 71.76 | 67.76 | 66.07 | 78.52 | 75.17 | 80.29 |

<표 IV-67>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에 대한 점수를 설립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13년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12년도에 급증하였고, 이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09년에는 사립대학의 점수가 국공립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0년부터는 국공립 대학의 점수가 역전하여 소폭의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13년에는 사립대학(75.95)의 점수가 국공립대학(71.9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14년 다시 국공립 대학의 점수가 소폭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3]은 설립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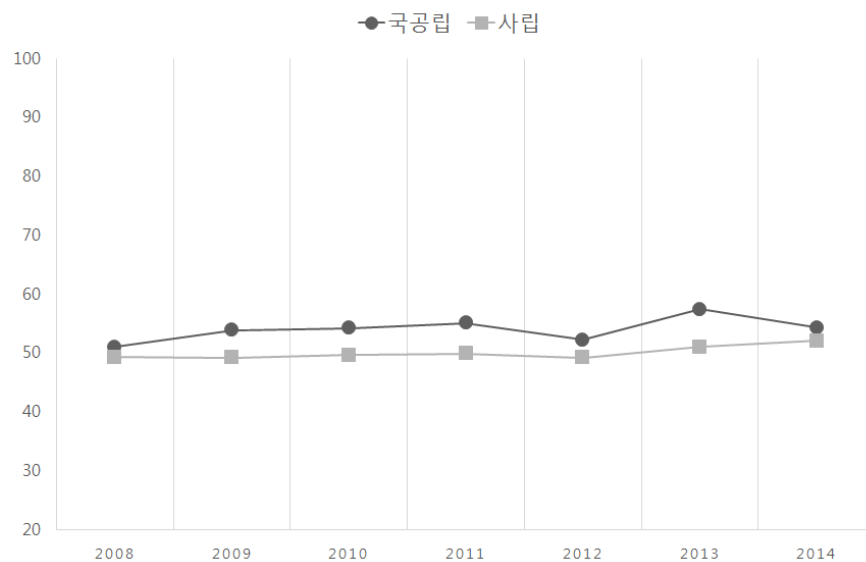
[그림 IV-3] 설립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4)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표 IV-68>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51.03 | 53.91 | 54.23 | 55.06 | 52.21 | 57.40 | 54.31 |
| | 사립 | 49.30 | 49.20 | 49.60 | 49.93 | 49.20 | 51.04 | 52.09 |
| | 합계 | 49.67 | 50.16 | 50.53 | 50.95 | 49.79 | 52.30 | 52.53 |

<표 IV-68>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 대한 점수를 설립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표의 국공립대학의 건전성 점수가 사립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은 08년부터 11년까지 계속 소폭으로 점수가 상승하다가 12년부터는 매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립의 경우 특이한 점수의 변동 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다가, 13년을 기점으로 근소하게 점수가 상승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IV-4]은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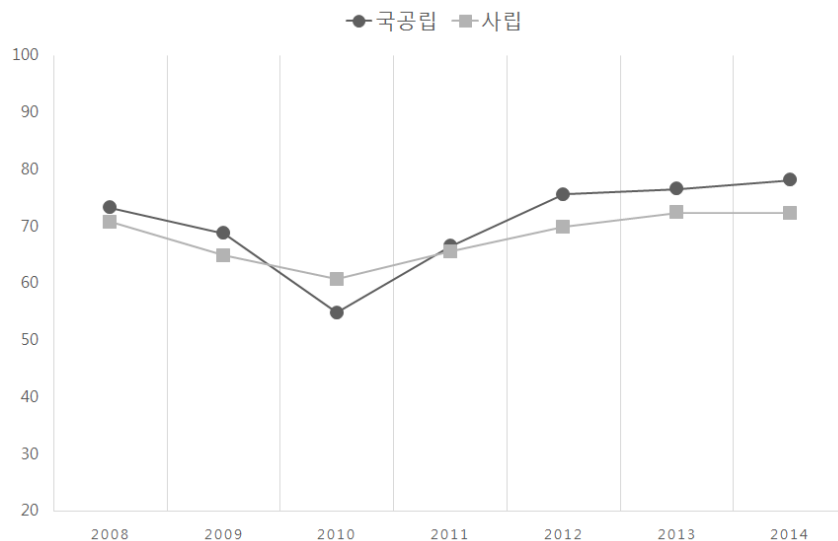
[그림 IV-4]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5)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표 IV-69>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설립 유형 | 국공립 | 73.24 | 68.74 | 54.80 | 66.52 | 75.60 | 76.53 | 78.16 |
| | 사립 | 70.77 | 64.85 | 60.74 | 65.57 | 69.87 | 72.42 | 72.35 |
| | 합계 | 71.30 | 65.64 | 59.55 | 65.76 | 71.00 | 73.23 | 73.50 |

<표 IV-69>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에 대한 점수를 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2010년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국공립 대학의 건전성 점수가 사립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에는 국공립 대학(54.80)의 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사립대학(60.74)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11년부터는 다시 국공립 대학의 점수가 사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 IV-5]은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5] 설립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2)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1)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표 IV-70>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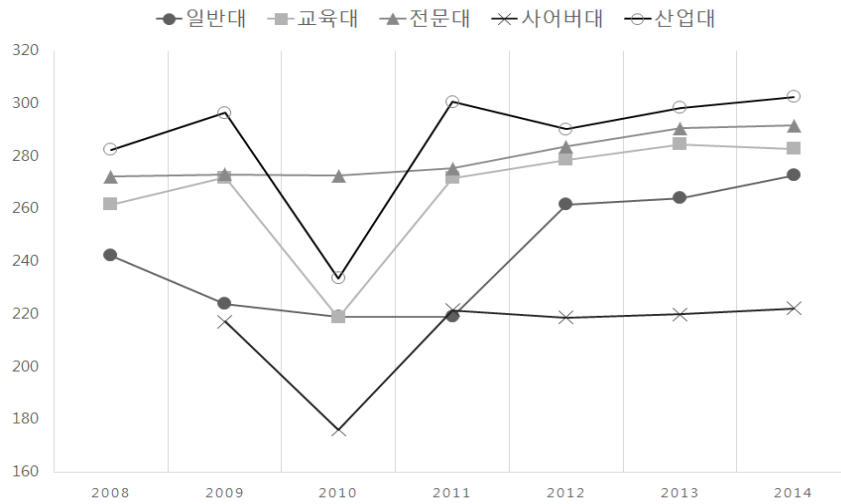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유 형 | 일반대 | 242.27 | 223.90 | 219.06 | 219.17 | 261.61 | 264.13 | 272.78 |
| | 교육대 | 261.64 | 271.86 | 218.83 | 271.72 | 278.74 | 284.49 | 282.90 |
| | 전문대 | 272.30 | 273.04 | 272.65 | 275.43 | 283.64 | 290.62 | 291.62 |
| | 사이버대 | - | 217.24 | 176.09 | 221.48 | 218.80 | 219.98 | 222.25 |
| | 산업대 | 282.51 | 296.47 | 233.73 | 300.71 | 290.24 | 298.37 | 302.58 |
| | 합계 | 255.40 | 244.48 | 234.78 | 242.66 | 266.44 | 270.60 | 275.43 |

<표 IV-70>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지수를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산업대의 건전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사이버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년도에는 산업대, 교육대, 사이버대의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11년도부터는 다시 상승하였으며, 매해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6]은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 학교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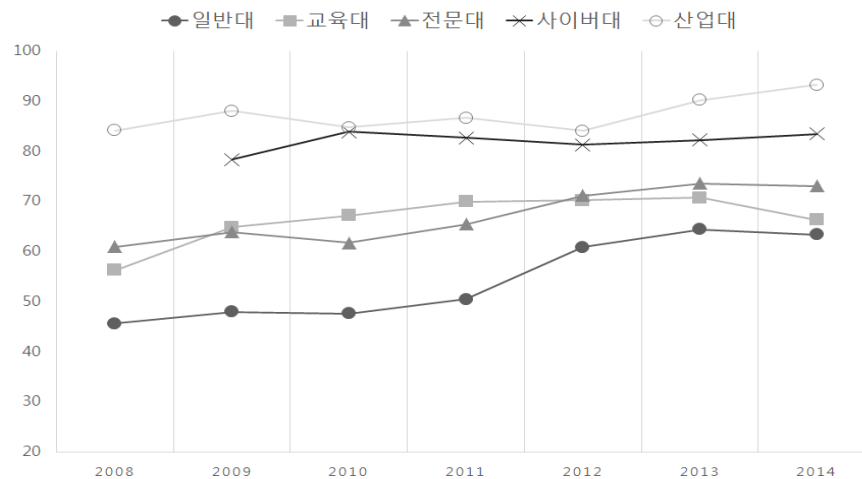
<표 IV-71> 학교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유 형 | 일반대 | 45.64 | 48.03 | 47.66 | 50.52 | 60.89 | 64.42 | 63.39 |
| | 교육대 | 56.29 | 64.86 | 67.23 | 70.01 | 70.25 | 70.77 | 66.38 |
| | 전문대 | 60.96 | 63.88 | 61.77 | 65.51 | 71.23 | 73.66 | 73.08 |
| | 사이버대 | - | 78.40 | 83.96 | 82.73 | 81.29 | 82.26 | 83.52 |
| | 산업대 | 84.19 | 88.06 | 84.76 | 86.70 | 84.10 | 90.26 | 93.30 |
| | 합계 | 52.58 | 56.90 | 56.92 | 59.87 | 67.10 | 69.89 | 69.11 |



[그림 IV-6]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수 추이

<표 IV-71>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에 대한 점수를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산업대의 건전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이버대,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해마다 지표는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유형별 지표의 순서는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IV-7]은 학교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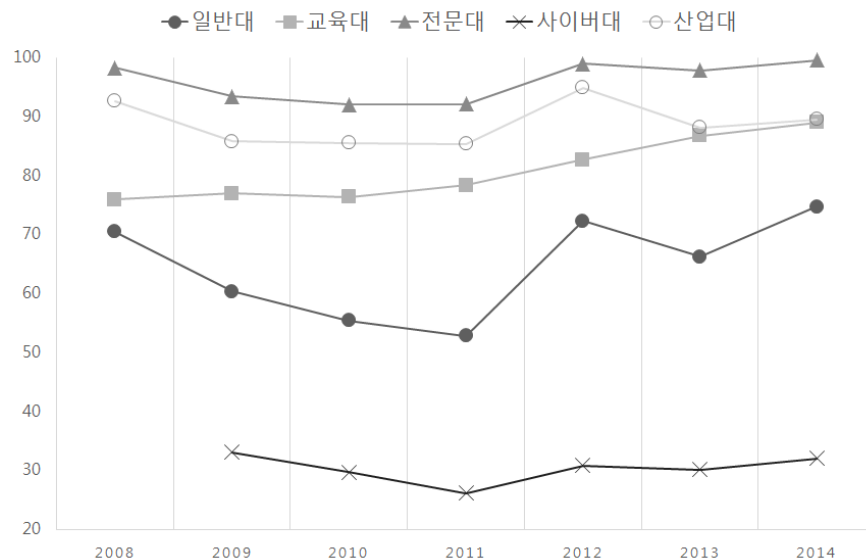
[그림 IV-7] 학교유형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3) 학교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표 IV-72> 학교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유 형 | 일반대 | 70.51 | 60.35 | 55.47 | 52.86 | 72.34 | 66.26 | 74.77 |
| | 교육대 | 75.97 | 76.97 | 76.43 | 78.36 | 82.69 | 86.75 | 88.99 |
| | 전문대 | 98.27 | 93.40 | 92.09 | 92.14 | 99.02 | 97.88 | 99.55 |
| | 사이버대 | - | 33.08 | 29.76 | 26.19 | 30.83 | 30.20 | 32.04 |
| | 산업대 | 92.64 | 85.84 | 85.57 | 85.36 | 94.88 | 88.18 | 89.57 |
| | 합계 | 81.82 | 71.76 | 67.76 | 66.07 | 78.52 | 75.17 | 80.29 |

<표 IV-72>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에 대한 점수를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전문대의 건전성 점수가 99.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산업대, 교육대, 일반대, 사이버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연도별로는 순서의 변화 없이, 유형별로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은 학교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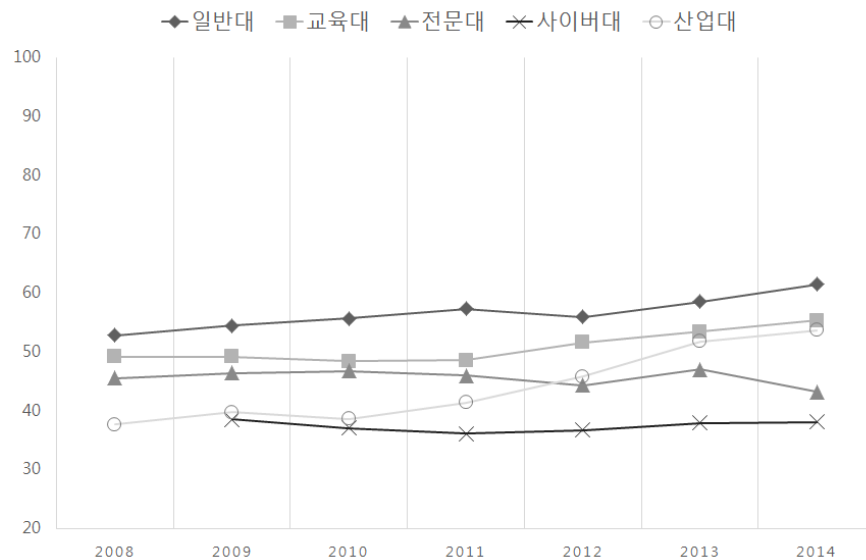
[그림 IV-8] 학교유형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4)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표 IV-73>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유 형 | 일반대 | 52.86 | 54.47 | 55.72 | 57.33 | 55.97 | 58.58 | 61.46 |
| | 교육대 | 49.19 | 49.19 | 48.42 | 48.58 | 51.67 | 53.42 | 55.33 |
| | 전문대 | 45.58 | 46.40 | 46.80 | 46.03 | 44.34 | 47.05 | 43.24 |
| | 사이버대 | - | 38.60 | 37.09 | 36.12 | 36.76 | 37.95 | 38.14 |
| | 산업대 | 37.72 | 39.77 | 38.67 | 41.40 | 45.85 | 51.77 | 53.75 |
| | 합계 | 49.67 | 50.16 | 50.53 | 50.95 | 49.79 | 52.30 | 52.53 |

<표 IV-73>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 대한 점수를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일반대의 건전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대, 전문대, 산업대, 사이버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산업대의 경우 08년에는 37.72점으로 유형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꾸준히 상승하여, 14년에는 일반대(61.46), 교육대(55.33)에 이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V-9]은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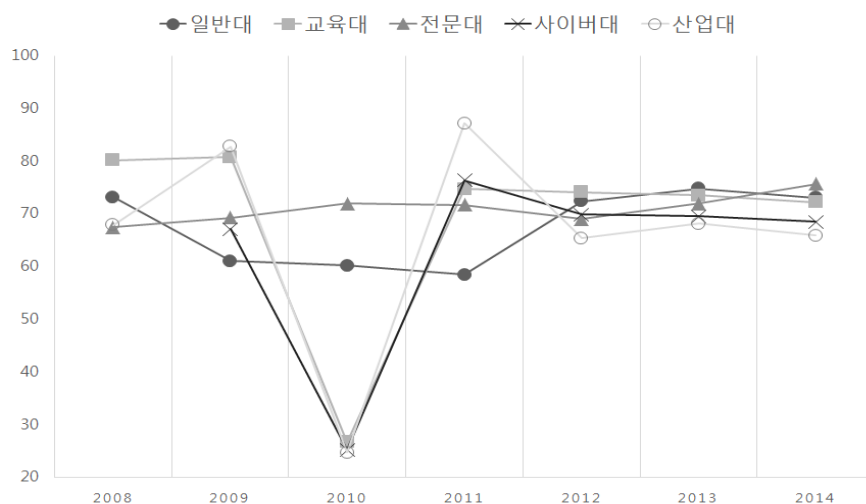
[그림 IV-9]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5)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표 IV-74>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유 형 | 일반대 | 73.19 | 61.03 | 60.18 | 58.44 | 72.39 | 74.85 | 73.14 |
| | 교육대 | 80.18 | 80.82 | 26.73 | 74.75 | 74.11 | 73.53 | 72.19 |
| | 전문대 | 67.47 | 69.33 | 71.97 | 71.74 | 69.03 | 72.01 | 75.73 |
| | 사이버대 | - | 67.14 | 25.25 | 76.42 | 69.90 | 69.55 | 68.53 |
| | 산업대 | 67.93 | 82.78 | 24.71 | 87.23 | 65.39 | 68.14 | 65.95 |
| | 합계 | 71.30 | 65.64 | 59.55 | 65.76 | 71.00 | 73.23 | 73.50 |

<표 IV-74>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에 대한 점수를 학교유형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60~80점대를 유지하던 08, 09년과는 달리 10년에는 교육대(26.73), 사이버대(25.25), 산업대(24.71)의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문대(71.97), 일반대(60.18)와 큰 차이를 보였으나, 12년부터는 전체 유형이 65~75의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0]은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0] 학교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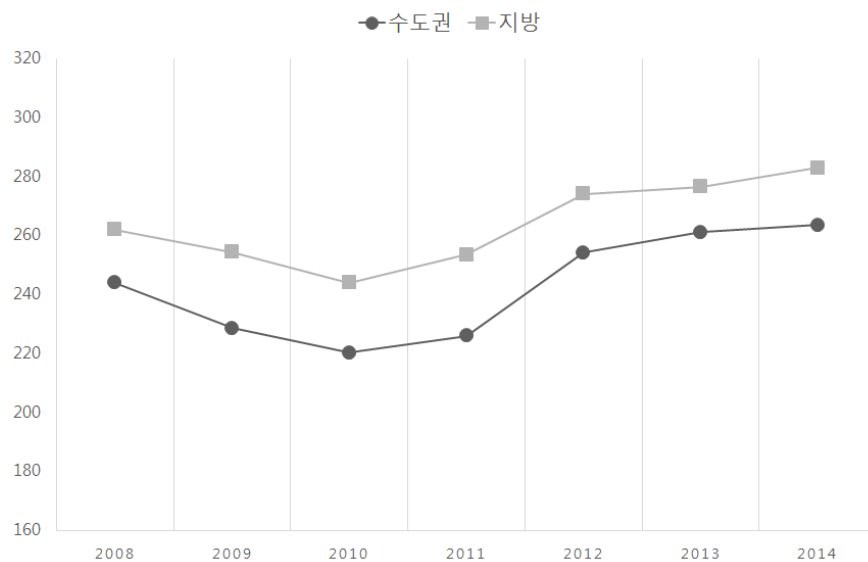
3. 지역별 건전성 지수 추이

(1) 지역별 건전성 지수 추이

<표 IV-75> 지역별 건전성 지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지역 | 수도권 | 244.07 | 228.64 | 220.38 | 225.96 | 254.20 | 261.20 | 263.58 |
| | 지방 | 262.10 | 254.51 | 243.99 | 253.48 | 274.23 | 276.59 | 282.99 |
| | 합계 | 255.40 | 244.48 | 234.78 | 242.66 | 266.44 | 270.60 | 275.43 |

<표 IV-75>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지수를 지역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지방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수도권 지역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모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건전성 지수가 낮아졌다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11]은 설립유형별 건전성 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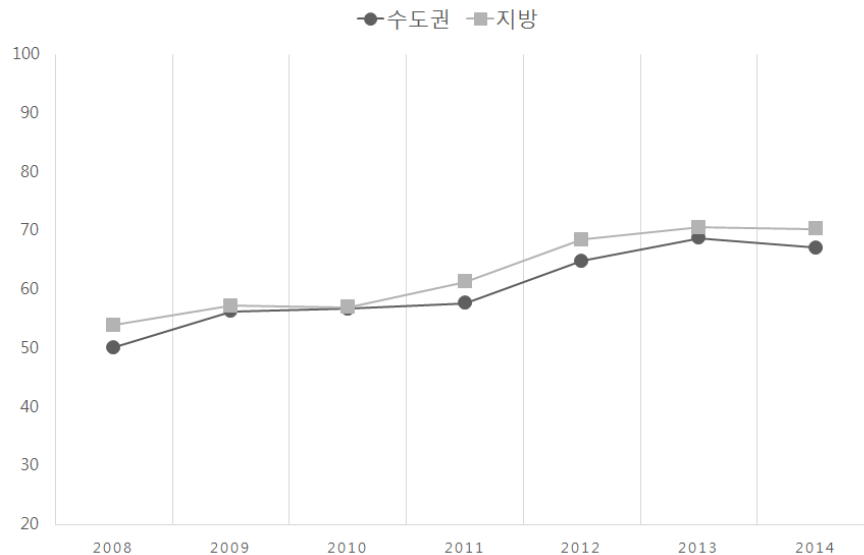
[그림 IV-11] 지역별 건전성 지수 추이

(2) 지역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표 IV-76> 지역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지역 | 수도권 | 50.18 | 56.27 | 56.77 | 57.68 | 64.91 | 68.75 | 67.13 |
| | 지방 | 54.00 | 57.29 | 57.02 | 61.29 | 68.50 | 70.61 | 70.37 |
| | 합계 | 52.58 | 56.90 | 56.92 | 59.87 | 67.10 | 69.89 | 69.11 |

<표 IV-76>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에 대한 점수를 지역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표의 지방 대학의 건전성 점수가 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의 경우 지방 대학(56.77)과 수도권 대학(57.02)이 거의 비슷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유형 모두 꾸준하게 소폭 상승하는 형태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12]은 지역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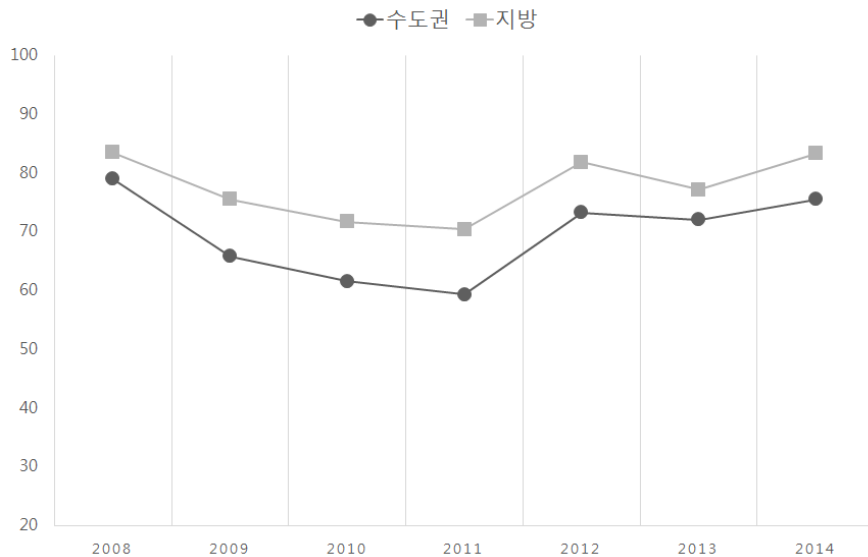
[그림 IV-12] 지역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3) 지역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표 IV-77> 지역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지역 | 수도권 | 79.02 | 65.82 | 61.58 | 59.30 | 73.24 | 72.04 | 75.52 |
| | 지방 | 83.48 | 75.52 | 71.71 | 70.45 | 81.88 | 77.16 | 83.32 |
| | 합계 | 81.82 | 71.76 | 67.76 | 66.07 | 78.52 | 75.17 | 80.29 |

<표 IV-77>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에 대한 점수를 지역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지방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과 수도권 대학 모두 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점수가 낮아졌다가, 이후부터는 등락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13]은 지역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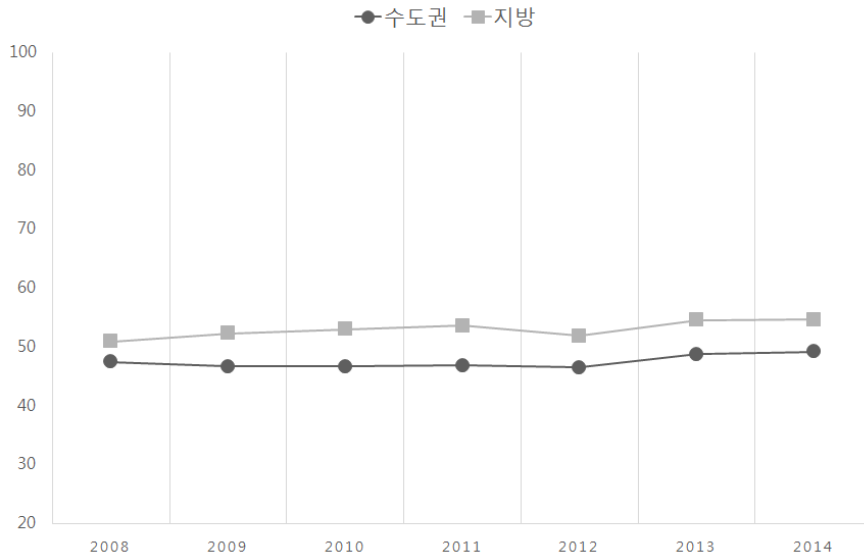
[그림 IV-13] 지역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4) 지역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표 IV-78> 지역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지역 | 수도권 | 47.47 | 46.68 | 46.69 | 46.85 | 46.55 | 48.75 | 49.24 |
| | 지방 | 50.97 | 52.36 | 52.98 | 53.60 | 51.86 | 54.56 | 54.62 |
| | 합계 | 49.67 | 50.16 | 50.53 | 50.95 | 49.79 | 52.30 | 52.53 |

<표 IV-78>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 대한 점수를 지역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표의 지방 대학의 점수가 수도권 대학보다 높았으며, 매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14]은 지역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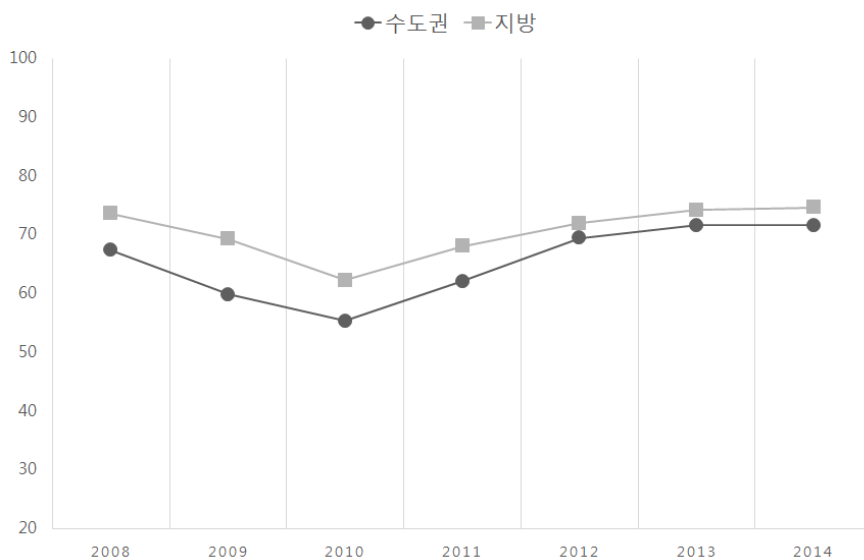
[그림 IV-14] 지역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5)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표 IV-79>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지역 | 수도권 | 67.37 | 59.84 | 55.32 | 62.11 | 69.48 | 71.65 | 71.67 |
| | 지방 | 73.62 | 69.32 | 62.25 | 68.12 | 71.96 | 74.23 | 74.66 |
| | 합계 | 71.30 | 65.64 | 59.55 | 65.76 | 71.00 | 73.23 | 73.50 |

<표 IV-79>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에 대한 점수를 지역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표의 지방 대학의 점수가 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모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점수가 낮아졌다가, 이후 2014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년도 이후 지역에 따른 점수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IV-15]은 지역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15] 지역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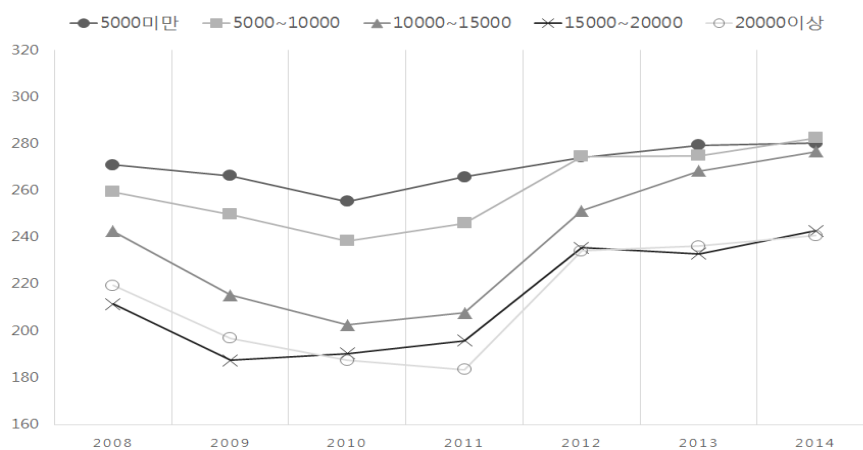
4)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추이

(1)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추이

<표 IV-80>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규 모 | 5천 미만 | 271.05 | 266.44 | 255.51 | 265.84 | 274.31 | 279.57 | 280.43 |
| | 5천 이상 1만 이하 | 259.53 | 249.88 | 238.55 | 246.20 | 274.66 | 274.96 | 282.64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242.68 | 215.41 | 202.75 | 207.87 | 251.49 | 268.47 | 276.69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211.56 | 187.64 | 190.52 | 195.94 | 235.60 | 233.16 | 242.91 |
| | 2만 이상 | 219.47 | 197.04 | 187.54 | 183.67 | 234.27 | 236.43 | 240.81 |
| | 합계 | 255.40 | 244.48 | 234.78 | 242.66 | 266.44 | 270.60 | 275.43 |

<표 IV-80>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지수를 학교규모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5천 미만 규모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까지는 대부분 대학의 건전성 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대학의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그림 IV-16]은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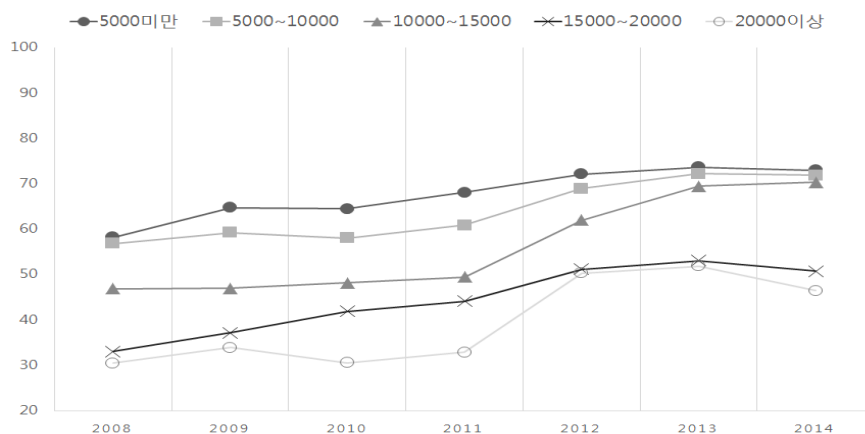
[그림 IV-16]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수 추이

(2) 학교규모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표 IV-81> 학교규모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규 모 | 5천 미만 | 58.29 | 64.79 | 64.55 | 68.15 | 72.19 | 73.76 | 73.01 |
| | 5천 이상 1만 이하 | 56.85 | 59.26 | 58.05 | 60.94 | 69.01 | 72.23 | 71.90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46.89 | 47.00 | 48.22 | 49.46 | 62.02 | 69.49 | 70.42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33.08 | 37.19 | 41.98 | 44.17 | 51.19 | 53.10 | 50.76 |
| | 2만 이상 | 30.55 | 33.95 | 30.62 | 32.95 | 50.40 | 51.87 | 46.46 |
| | 합계 | 52.58 | 56.90 | 56.92 | 59.87 | 67.10 | 69.89 | 69.11 |

<표 IV-81>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에 대한 점수를 학교규모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표의 5천미만 규모 대학의 건전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5천~1만, 1만~1만5천, 1만5천~2만, 2만 이상 규모의 대학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매해 꾸준히 점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2만 이상 규모의 대학은 10, 11년도에는 다른 유형들과 큰 폭의 점수 차를 보였으나, 12년도에 다시 상승하여 점수 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IV-17]은 학교규모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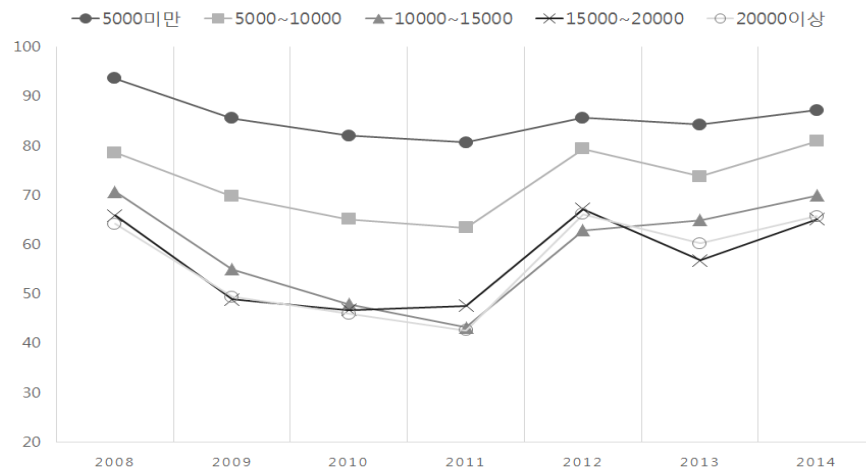
[그림 IV-17] 학교규모별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추이

(3) 학교규모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표 IV-82> 학교규모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규 모 | 5천 미만 | 93.68 | 85.56 | 82.10 | 80.71 | 85.70 | 84.32 | 87.26 |
| | 5천 이상 1만 이하 | 78.64 | 69.76 | 65.14 | 63.39 | 79.36 | 73.79 | 80.94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70.69 | 55.02 | 47.95 | 43.20 | 62.90 | 65.00 | 69.95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65.95 | 48.92 | 46.76 | 47.61 | 67.21 | 56.84 | 65.17 |
| | 2만 이상 | 64.18 | 49.40 | 45.94 | 42.62 | 66.15 | 60.24 | 65.72 |
| | 합계 | 81.82 | 71.76 | 67.76 | 66.07 | 78.52 | 75.17 | 80.29 |

<표 IV-82>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에 대한 점수를 학교규모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5천미만 규모의 대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11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모든 규모의 대학의 점수가 조금씩 낮아졌다가, 12년에는 다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만5천~2만 규모 대학의 점수가 해에 따라 큰 변동을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IV-18]은 학교규모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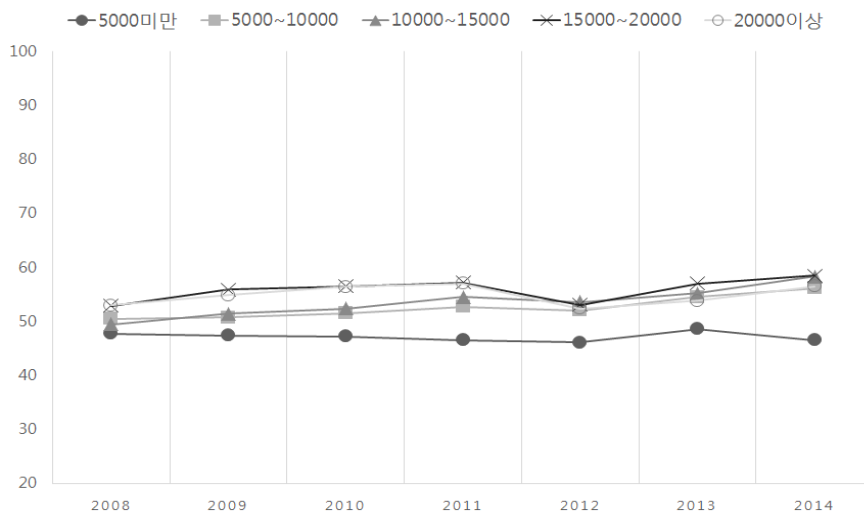
[그림 IV-18] 학교규모별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추이

(4)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표 IV-83>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규 모 | 5천 미만 | 47.78 | 47.42 | 47.26 | 46.60 | 46.16 | 48.68 | 46.60 |
| | 5천 이상 1만 이하 | 50.50 | 50.81 | 51.55 | 52.79 | 52.06 | 54.56 | 56.22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49.54 | 51.51 | 52.46 | 54.53 | 53.63 | 55.25 | 58.39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52.91 | 55.94 | 56.53 | 57.24 | 53.11 | 57.06 | 58.54 |
| | 2만 이상 | 53.06 | 54.94 | 56.48 | 57.06 | 52.41 | 53.90 | 56.51 |
| | 합계 | 49.67 | 50.16 | 50.53 | 50.95 | 49.79 | 52.30 | 52.53 |

<표 IV-83>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 대한 점수를 학교규모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1만5천~2만 규모의 대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규모의 대학들과 점수 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8년부터 14년까지 큰 폭의 점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IV-19]은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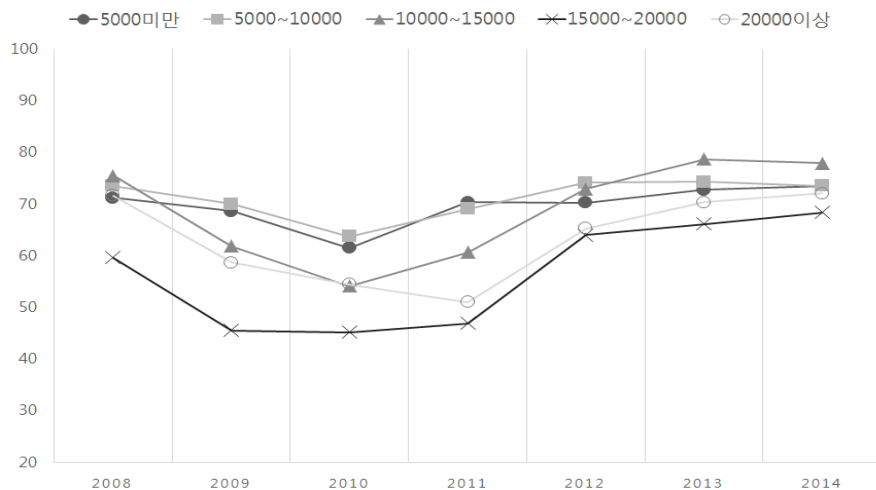
[그림 IV-19]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5)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표 IV-84>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 학 교 규 모 | 5천 미만 | 71.28 | 68.64 | 61.57 | 70.36 | 70.25 | 72.79 | 73.54 |
| | 5천 이상 1만 이하 | 73.52 | 70.03 | 63.78 | 69.07 | 74.20 | 74.37 | 73.56 |
| | 1만 이상 1만5천 이하 | 75.55 | 61.86 | 54.10 | 60.66 | 72.92 | 78.71 | 77.92 |
| | 1만 5천 이상 2만 이하 | 59.60 | 45.57 | 45.22 | 46.90 | 64.06 | 66.14 | 68.42 |
| | 2만 이상 | 71.66 | 58.73 | 54.48 | 51.02 | 65.28 | 70.39 | 72.09 |
| | 합계 | 71.30 | 65.64 | 59.55 | 65.76 | 71.00 | 73.23 | 73.50 |

<표 IV-84>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를 학교규모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10년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규모의 대학의 점수가 하락하다가, 11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4년에는 1만~1만5천(77.92), 5천~1만(73.56), 5천미만(73.54), 2만 이상(72.09), 1만5천~2만(68.42) 규모의 순서로, 규모별 점수 차가 근접하게 좁혀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IV-20]은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0] 학교규모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추이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4년 1학기까지 7년 동안 축적한 국내 고등교육교육기관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건전성 지수를 산출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경쟁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측면에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1)국내외 고등교육 평가와 교육과정 평가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2) 기존에 구축하였던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를 재설계하고, 3) 대학알리미 및 본 연구소에서 구축한 국내대학 교육과정 DB를 바탕으로 국내 203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교육과정의 개념적 정의는 고등교육기관이 설정한 교육목적과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영역에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과목단위로 편제 계획·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은 교육과정의 질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등을 지수화하여 개발되었다.
 -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25명을 기준(사이버대학 100명)으로 하여 지수화하였으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실제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사용하였고,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학점 수는 전임교원 1인이 한 학기에 9학점을 강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한 학기당 학생들이 신청하는 학점(18학점)을 기준으로 적절 수의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 2008~2014(1학기)까지 건전성 지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에서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사립(256.03)이 국·공립(253.0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에서는 산업대가 282.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244.07)에 비해 지방 소재 대학의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262.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2009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에서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251.77)이 사립(242.6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로 산업대가 296.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이 254.51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228.64)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2010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에서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235.27)이 사립(234.66)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전문대가 272.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220.38)에 비해 지방 소재 대학이 243.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2011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에서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248.78)이 사립대학(241.1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산업대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가 300.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교육과정 건전성지수는 수도권 소재 대학(225.96)보다 지방 소재 대학(253.47)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2012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에서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

- 공립 대학(270.56)이 사립대학(265.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에서는 산업대가 290.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274.22)이 수도권 소재 대학(254.2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에서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 대학(271.01)이 사립대학(270.05)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산업대가 298.73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276.59)이 수도권 소재 대학(261.20)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2014년(1학기)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에서 설립유형별 교육과정 건전성 지수는 국·공립 대학(275.59)과 사립대학(275.39)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산업대가 30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 소재 대학(282.98)이 수도권 소재 대학(263.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2008년 건전성 지표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로 사립대학(83.13)이 국·공립(77.0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로는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가 약 98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약 53점,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교육대(약 80점)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특성 중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 모두 지방 소재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모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5천 미만 규모 대학이 가장 높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만 이상 규모의 대학이 약 53점으로 가장 높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건전성 지표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각각의 건전성 지표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 건전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산업대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39.77)를 제외한 강좌 당 수강 학생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지표에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는 모든 지표가 학교 규모가 가장 작은 5천 미만인 학교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2010년 건전성 지표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강좌 당 수강 학생 수,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대학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사립대학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산업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지표들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2011년 건전성 지표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로 국·공립(55.01)이 사립(49.9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와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산업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지역별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지표들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모별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2012년 건전성 지표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대학의 설립유형에서는 국·공립이 사립에 비해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84.10),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99.02),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55.97),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교육대(74.1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지표들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이 규모가 커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2013년 건전성 지표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중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90.26),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은 전문대(97.88),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일반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지표들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이 규모가 낮은 학교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2014년 건전성 지표의 평균차이 분석 결과,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건전성 지표 중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는 산업대(93.30), 학점 당 개설 비율과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담당 학점 수는 전문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대(61.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

역별 건전성 지표들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는 모든 지표들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 건전성 지표는 강좌 당 수강 학생 수와 학점 당 강좌 개설 비율이 규모가 낮은 학교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제언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를 재개발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교육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 및 지속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육과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며, 대학, 정부,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대학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발전시켜나감으로서 학생과 정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학사행정관리자 및 정부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와 발전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과정 건전성 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발전해 나가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 등에서 추구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발전방향에 이를 활용하는 등 교육과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인해서 고등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 건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자, 대학, 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 건전성 지표의 타당화 작업 실시와 평가 및 지원체제 확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명백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 교육과정 운영이나 개선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상태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권장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료와 건전성지표를 수시로 접근하고 검색하고, 필요시 교육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타산지석으로 삼거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발전적 아이디어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공익재단법인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2014)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실시 대강**.
- 김대현·이은화(2005). 대학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2(2), 217-246.
- 김문희(2007). ‘미국의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개혁 동향 분석’에 대한 토론.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고등교육 혁신**.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포럼자료.
- 김민환(1995).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제 이론적 기초에 관한 비판적 연구. **고등교육연구**, 7(2), 139-165.
- 김병주·나민주·박동열·정성수·정종철·최정운(2010).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2009-위탁-3.
- 김순자(1991). 한국 대학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저의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I**. 아카데미프레스.
- 대학기준협회(2011). 「**대학기준**」과 그 해설.
-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2011). **대학기관별 인증평가 「대학평가기준」**.
- 문부과학성(2006). **자료 4-1 인증평가제도의 개요**.
- 박남기(2007). **미국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교육.
- 박인우·박주호·이은화·김인숙·신원석(2012). **고등교육 교육과정 지원체제 방안 연구**.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RR 2012-12.
- 박혜림(2007).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준거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109-132.
- 박호근(2000). 한국 교육정책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1945-1979.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을규·윤성일·정재일(2003).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향. **고등교육연구**, 14(1), 1-26.
- 신원석·박인우(2012). 학사행정관리자의 대학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교육방법연구**, 24(4), 817-835.
- 오성삼·강인수·맹광호·홍의석(2005). **학문분야 전문평가기구 선정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5-공모-10.
- 유기웅·신원석(2012). 대학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및 강의 선택 관련 요인 분석. **교육문**

- 제연구, 45, 31-54.
- 육영수(2002). 대학사의 관점에서 본 인문학의 위기: 역사적 분석과 비판적 전망. **인문학연구**, 33, 113-129.
- 이보경 · 김은경 · 이재성(2010). 대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문제연구**, 38, 1-23.
- 이성호 · 강경석 · 임형택(1988).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개선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영 · 채재은 · 김진영(2008). **대학 성과정보 관리 및 평가체제 개선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2008-위탁 42.
- 임은정(2007). 대학교육과정 결정과정의 특징: 4개 대학 교양 교육과정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5(3), 81-107.
- 전성연(1995).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 학지사.
- 정종원(2013). 대학 교육과정 지원체제와 EPSS. **고등교육정책연구**, 6(1), 1-16.
- 최미리(1995). 한국과 미국 여자대학의 교육과정 비교 연구: 교양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4, 141-197.
- 최미리(1996). 한국과 미국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 비교 연구. **고등교육연구**, 2(1), 195-226.
- 최미리(2001). 학부제와 학사제도의 대학별 실시현황 분석 및 과제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19(3), 181-206.
- 최미리(2013). 한 · 미 주요 대학의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변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4), 275-303.
- 최정운 · 채재은 · 서영인 · 민혜리(2011).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14.
- 김대영 · 홍후조(2014). 교육과정 연구 패러다임 비교 · 분석: Habermas의 사회지식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1), 1-2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8). **대학기관평가 종합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홍후조(2004). 4년제 일반대학의 학부교육과정의 문제와 과제. **교육과정연구**, 22(3), 267-295.
- Banata, T. W., & Kuh, D. K.(1998). A missing link in assessment: Collaboration between academics and student affairs professionals, *Change*, Mar.-Apr., 40-46.
- Blackmore, P., & Kandiko, C. B.(2012). *Strategic curriculum change: Global trends in university*. London: Routledge.

- Eckel, P. D., Couturier, L., & Luu, D. T. (2005). Peering around the bend: The leadership challenges of privatization, accountability and market-based state policy.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Gaff, J. E., & Ratcliff, J. L.(Eds.).(1997). *Handbook of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A comprehensive guide to purposes, structures, practices, and change*. CA: Jossey-Bass.
- Kezar, A., & Eckel, P.(2002).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ulture on change strategies in higher education: Universal principles or cultural responsive concept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3(4), 435-460.
- Lattuca, L. R., & Stark, J. S.(2009). *Shaping the college curriculum: Academic plans in context*. CA: Jossey-Bass.
- McLendon, M. K., & Ness, E. C. (2003). The politics of state higher education governance reform.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78(4), 66-88.
- Miles, M., & Huberman, M.(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 book of new methods*. CA: Sage.
- Pinar, W., Reynolds, W. M., Slattery, P., & Taubman, P. M.(Eds.).(2008). *Understanding curriculum: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New York: Peter Lang.
- Pitman, T.(2000). Perceptions of academics and students as customers: A survey of administrative staff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22(2), 165-175.
- Ruppert, S. S. (Ed.)(1994). Charting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A sourcebook on state-level performance indicators. Denver, CO: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 William, A., & Cleary, K.(2000). *Integrated support systems for curriculum development and management*. AUC conference proceedings 2000. pp151-160.
- Wolf, P., & Hughes, J. C.(Eds.).(2007). *Curriculum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Faculty-driven processes and practices*. CA: Jossey-Bass.
- 高田 英一・高田 悠二(2013). 大学の教育情報に対する社会のニーズの現状と課題 : 「市場型大学評価」の教育に関する評価指標の分析を中心に. **教育情報研究 : 日本教育情報学会学会誌**, 29(1), 31-44
- 日永 龍彦(2012). 大学評価の制度化の過程と政治(発表1,課題研究1 高等教育の評

価・質保証・財政-教育と政治の観点から, III 大会報告). **Bulletin of the JEAS**, 38, 140-143.

독립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http://www.niad.ac.jp/n_hyouka/daigaku/1178444_1137.html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

<http://www.juaa.or.jp/>

공익재단법인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http://www.jihe.or.jp/>

부록: 대학별 건전성 지수 추이

1) 일반대학

(1) 건전성지수

<표> 일반대학 대학별 건전성 지수 추이

| 일반대학 | 건전성 지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가000 | 213.05 | 198.38 | 194.28 | 206.68 | 242.41 | 188.20 | 265.04 |
| 강000 | 208.48 | 297.62 | 283.70 | 245.76 | 306.49 | 227.88 | 302.65 |
| 강000 | 273.56 | 278.07 | 279.54 | 291.32 | 280.21 | 202.02 | 293.68 |
| 강000 | 264.12 | 236.32 | 246.58 | 246.72 | 282.11 | 202.82 | 243.18 |
| 건000 | 227.45 | 208.43 | 225.76 | 216.91 | 203.26 | 173.56 | 231.45 |
| 건000 | 229.56 | 258.55 | 252.33 | 252.81 | 284.36 | 210.18 | 289.99 |
| 경000 | 195.21 | 178.01 | 171.26 | 183.18 | 222.47 | 175.59 | 239.88 |
| 경000 | 212.91 | 196.15 | 212.15 | 216.92 | 238.20 | 209.49 | 277.02 |
| 경000 | 214.17 | 164.31 | 164.25 | 192.09 | 177.80 | 217.14 | 302.91 |
| 경000 | 265.83 | 209.19 | 217.80 | 224.24 | 294.29 | 137.06 | 322.87 |
| 경000 | 322.69 | 300.77 | 254.50 | 288.98 | 290.74 | 243.74 | 300.36 |
| 경000 | 283.19 | 276.47 | 269.16 | 277.93 | 344.89 | 334.35 | 346.85 |
| 경000 | 232.36 | 168.26 | 133.76 | 135.41 | 215.25 | 212.55 | 198.48 |
| 계000 | 240.81 | 240.05 | 209.96 | 205.86 | 282.51 | 277.91 | 272.27 |
| 고000 | 174.20 | 148.62 | 145.40 | 129.61 | 163.56 | 179.03 | 168.86 |
| 고000 | 227.13 | 229.41 | 210.87 | 212.68 | 245.68 | 251.30 | 246.51 |
| 공000 | 287.55 | 286.12 | 285.07 | 288.35 | 316.79 | 326.08 | 323.51 |
| 관000 | 201.45 | 166.46 | 167.01 | 195.74 | 282.99 | 290.89 | 279.52 |
| 광000 | 216.87 | 219.53 | 221.90 | 202.16 | 211.49 | 263.14 | 255.06 |
| 광000 | 241.69 | 273.06 | 285.81 | 280.02 | 299.19 | 294.02 | 293.76 |
| 국000 | 264.18 | 242.92 | 167.36 | 169.06 | 228.28 | 274.97 | 251.62 |

| | | | | | | | |
|------|--------|--------|--------|--------|--------|--------|--------|
| 금000 | 224.06 | 213.65 | 186.76 | 208.06 | 274.09 | 276.89 | 277.44 |
| 나000 | 300.27 | 229.43 | 204.60 | 208.76 | 293.46 | 292.90 | 296.21 |
| 단000 | 231.12 | 238.50 | 256.90 | 250.10 | 257.81 | 296.54 | 301.70 |
| 대000 | 263.96 | 214.60 | 212.35 | 196.67 | 221.53 | 266.18 | 315.41 |
| 대000 | 272.31 | 206.46 | 214.75 | 215.54 | 274.21 | 281.85 | 278.47 |
| 대000 | 231.61 | 219.27 | 222.29 | 229.22 | 250.30 | 269.80 | 278.30 |
| 대000 | 239.11 | 255.87 | 275.85 | 239.31 | 313.85 | 262.37 | 301.74 |
| 대000 | 287.10 | 297.12 | 298.11 | 300.56 | 291.08 | 297.09 | 286.63 |
| 덕000 | 242.20 | 241.03 | 245.68 | 262.41 | 274.70 | 277.14 | 270.04 |
| 동000 | 185.14 | 200.89 | 150.85 | 155.93 | 214.79 | 222.36 | 220.61 |
| 동000 | 243.11 | 276.82 | 200.04 | 215.66 | 275.88 | 289.20 | 283.04 |
| 동000 | 315.43 | 247.47 | 220.39 | 254.93 | 270.86 | 280.41 | 280.19 |
| 동000 | 264.35 | 181.39 | 196.15 | 201.13 | 286.67 | 289.97 | 295.33 |
| 동000 | 184.46 | 193.29 | 200.98 | 216.56 | 202.27 | 262.94 | 254.62 |
| 동000 | 249.87 | 175.04 | 246.14 | 247.06 | 292.61 | 309.73 | 311.16 |
| 명000 | 238.17 | 180.62 | 209.83 | 181.86 | 257.08 | 262.44 | 266.36 |
| 목000 | 278.40 | 288.13 | 263.97 | 259.14 | 320.59 | 328.86 | 332.59 |
| 배000 | 298.42 | 262.03 | 247.60 | 247.45 | 298.99 | 298.30 | 300.47 |
| 부000 | 222.01 | 176.74 | 175.80 | 195.69 | 245.84 | 247.41 | 254.63 |
| 부000 | 251.11 | 218.86 | 213.57 | 213.73 | 291.21 | 298.63 | 285.14 |
| 부000 | 233.30 | 204.05 | 201.63 | 203.35 | 252.94 | 243.35 | 236.89 |
| 부000 | 265.35 | 270.94 | 219.87 | 234.04 | 280.28 | 283.79 | 282.65 |
| 삼000 | 282.24 | 277.58 | 283.75 | 279.63 | 300.92 | 300.42 | 309.34 |
| 상000 | 262.31 | 180.03 | 193.88 | 203.59 | 247.79 | 302.02 | 313.49 |
| 상000 | 253.45 | 225.32 | 205.84 | 242.26 | 298.51 | 307.58 | 301.47 |
| 서000 | 186.81 | 194.47 | 148.64 | 142.54 | 196.16 | 204.96 | 186.75 |
| 서000 | 334.38 | 334.10 | 361.72 | 370.27 | 383.12 | 387.79 | 327.38 |
| 서000 | 265.65 | 280.80 | 286.87 | 283.86 | 300.12 | 313.45 | 310.79 |
| 서000 | 314.36 | 233.98 | 318.88 | 324.65 | 290.21 | 296.13 | 301.32 |
| 서000 | 198.24 | 249.89 | 246.66 | 253.72 | 223.20 | 222.95 | 206.28 |
| 서000 | 230.91 | 200.00 | 199.01 | 193.10 | 221.55 | 225.49 | 216.54 |
| 서000 | 287.80 | 280.91 | 199.07 | 210.40 | 249.27 | 266.52 | 273.40 |

| | | | | | | | |
|-------|--------|--------|--------|--------|--------|--------|--------|
| 선000 | 274.57 | 278.20 | 284.03 | 226.91 | 278.65 | 273.46 | 294.16 |
| 성000 | 195.26 | 132.24 | 106.99 | 130.10 | 165.70 | 178.84 | 173.61 |
| 성000 | 243.28 | 183.98 | 174.83 | 204.58 | 250.32 | 305.23 | 295.24 |
| 세000 | 238.80 | 209.98 | 207.20 | 205.74 | 279.69 | 313.88 | 305.55 |
| 세중000 | 213.19 | 208.95 | 174.20 | 178.07 | 269.73 | 325.23 | 324.03 |
| 수000 | 247.17 | 230.70 | 225.50 | 233.46 | 282.11 | 323.48 | 311.38 |
| 숙000 | 230.97 | 155.85 | 163.86 | 162.37 | 287.95 | 289.82 | 296.43 |
| 순000 | 259.46 | 269.37 | 295.99 | 224.77 | 320.97 | 281.00 | 281.84 |
| 순000 | 158.93 | 168.15 | 172.49 | 169.56 | 168.37 | 191.60 | 215.47 |
| 송000 | 193.78 | 185.81 | 118.55 | 136.08 | 224.14 | 244.08 | 254.09 |
| 신000 | 235.76 | 261.47 | 229.32 | 251.78 | 281.84 | 303.41 | 308.25 |
| 아000 | 225.17 | 173.68 | 180.11 | 165.20 | 214.94 | 228.97 | 222.14 |
| 안000 | 248.11 | 225.31 | 250.10 | 258.40 | 303.96 | 302.58 | 298.17 |
| 안000 | 282.43 | 243.68 | 300.38 | 227.60 | 290.11 | 332.47 | 320.20 |
| 연000 | 163.17 | 159.12 | 155.61 | 165.70 | 180.77 | 187.56 | 179.82 |
| 영000 | 202.85 | 194.00 | 157.37 | 158.25 | 225.43 | 227.01 | 252.73 |
| 영000 | 274.32 | 313.36 | 293.58 | 304.28 | 274.12 | 281.11 | 289.62 |
| 용000 | 221.50 | 245.66 | 252.45 | 226.12 | 280.42 | 286.71 | 307.96 |
| 우000 | 303.90 | 251.53 | 255.51 | 262.86 | 302.62 | 297.24 | 292.46 |
| 우000 | 263.28 | 257.75 | 197.43 | 225.92 | 251.06 | 270.87 | 262.40 |
| 울000 | — | 286.91 | 237.38 | 175.87 | 175.88 | 212.27 | 199.72 |
| 울000 | 214.04 | 217.45 | 233.48 | 190.10 | 226.24 | 218.46 | 214.10 |
| 원000 | 168.94 | 144.95 | 153.90 | 169.37 | 242.97 | 249.84 | 262.03 |
| 이000 | 196.29 | 160.31 | 157.56 | 143.84 | 211.01 | 213.42 | 231.77 |
| 인000 | 266.99 | 236.08 | 247.98 | 257.40 | 321.99 | 318.37 | 313.92 |
| 인000 | 251.04 | 241.41 | 197.59 | 167.06 | 239.96 | 249.92 | 250.83 |
| 인000 | 193.42 | 146.96 | 152.06 | 153.41 | 211.00 | 209.25 | 222.83 |
| 전000 | 219.85 | 222.73 | 194.43 | 200.78 | 246.64 | 247.88 | 242.77 |
| 전000 | 221.14 | 215.11 | 210.48 | 210.93 | 260.78 | 263.47 | 264.63 |
| 전000 | 309.11 | 303.25 | 290.13 | 230.38 | 285.40 | 284.19 | 278.48 |
| 제000 | 288.47 | 288.19 | 273.74 | 269.56 | 299.68 | 299.89 | 300.82 |
| 조000 | 239.71 | 240.58 | 252.76 | 205.25 | 269.76 | 267.60 | 265.06 |

| | | | | | | | |
|------|--------|--------|--------|--------|--------|--------|--------|
| 중000 | 276.31 | 261.90 | 235.56 | 246.61 | 322.53 | 331.66 | 323.83 |
| 중000 | 152.50 | 129.91 | 140.15 | 135.98 | 160.17 | 170.14 | 164.15 |
| 창000 | 223.40 | 237.57 | 230.77 | 230.60 | 250.94 | 252.85 | 257.41 |
| 충000 | 179.11 | 249.27 | 215.80 | 242.70 | 219.50 | 224.35 | 239.85 |
| 충000 | 203.30 | 209.69 | 194.73 | 205.05 | 236.35 | 232.74 | 260.78 |
| 충000 | 257.51 | 204.69 | 212.07 | 212.95 | 246.76 | 227.93 | 230.27 |
| 포000 | 270.72 | 269.06 | 265.90 | 268.28 | 273.05 | 267.99 | 259.02 |
| 한000 | 306.86 | 278.59 | 209.77 | 209.74 | 310.16 | 311.62 | 305.85 |
| 한000 | 250.01 | 198.00 | 205.05 | 221.63 | 320.48 | 323.40 | 328.94 |
| 한000 | 238.34 | 186.49 | 228.17 | 233.77 | 269.46 | 317.92 | 293.60 |
| 한000 | 276.52 | 215.73 | 247.25 | 245.96 | 265.94 | 268.82 | 259.28 |
| 한000 | 210.37 | 203.17 | 178.93 | 179.79 | 217.34 | 222.59 | 227.46 |
| 한000 | 159.38 | 155.98 | 216.35 | 227.01 | 280.23 | 284.63 | 278.40 |
| 호000 | 293.02 | 203.16 | 253.42 | 264.59 | 294.22 | 298.12 | 313.77 |
| 호000 | 267.13 | 185.57 | 219.05 | 230.44 | 296.87 | 318.48 | 310.70 |
| 홍000 | 279.88 | 146.28 | 168.31 | 185.76 | 269.98 | 287.36 | 303.36 |

(2) 강좌 당 학생 수

<표> 일반대학 대학별 강좌 당 학생 수 추이

| 일반대학 | 강좌 당 학생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가000 | 38.98 | 47.54 | 44.83 | 41.56 | 52.86 | 56.32 | 52.40 |
| 강000 | 69.84 | 86.92 | 72.08 | 76.29 | 88.26 | 91.11 | 87.92 |
| 강000 | 69.61 | 67.90 | 89.81 | 98.58 | 67.88 | 70.34 | 69.34 |
| 강000 | 42.41 | 45.51 | 72.28 | 72.14 | 73.01 | 72.11 | 62.78 |
| 건000 | 44.85 | 27.85 | 44.44 | 40.12 | 46.47 | 53.15 | 44.30 |
| 건000 | 37.40 | 44.79 | 45.35 | 51.09 | 62.45 | 62.39 | 75.72 |
| 경000 | 31.73 | 28.32 | 27.82 | 37.32 | 47.76 | 57.70 | 54.22 |
| 경000 | 24.13 | 27.30 | 27.82 | 27.24 | 38.33 | 53.02 | 49.56 |
| 경000 | 26.37 | 26.52 | 25.60 | 38.28 | 57.42 | 71.86 | 73.43 |
| 경000 | 51.88 | 54.99 | 60.38 | 65.95 | 71.65 | 46.33 | 82.41 |
| 경000 | 75.37 | 84.59 | 49.25 | 61.80 | 75.14 | 76.48 | 72.60 |
| 경000 | 54.78 | 56.42 | 47.96 | 71.01 | 99.78 | 84.49 | 82.74 |
| 경000 | 4.52 | 56.42 | 7.55 | 4.72 | 40.96 | 42.12 | 27.20 |
| 계000 | 35.33 | 34.51 | 31.55 | 41.31 | 66.55 | 55.85 | 51.33 |
| 고000 | 23.93 | 26.32 | 27.02 | 17.54 | 22.50 | 32.80 | 32.49 |
| 고000 | 47.47 | 50.74 | 59.31 | 58.05 | 63.88 | 61.89 | 59.28 |
| 공000 | 64.12 | 59.04 | 60.97 | 61.29 | 80.47 | 84.85 | 81.38 |
| 관000 | 28.28 | 24.77 | 24.74 | 49.02 | 75.33 | 70.99 | 66.78 |
| 광000 | 22.66 | 28.95 | 32.34 | 26.42 | 35.55 | 54.25 | 53.96 |
| 광000 | 54.22 | 55.68 | 59.04 | 64.51 | 68.86 | 72.87 | 71.13 |
| 국000 | 46.87 | 40.68 | 47.19 | 42.08 | 44.97 | 57.33 | 56.62 |
| 금000 | 18.83 | 8.16 | 21.74 | 42.91 | 51.19 | 56.00 | 55.26 |
| 나000 | 75.88 | 73.90 | 58.83 | 52.71 | 62.52 | 63.86 | 70.21 |
| 단000 | 44.71 | 45.77 | 41.25 | 32.90 | 44.24 | 59.75 | 58.31 |
| 대000 | 62.09 | 55.04 | 40.18 | 37.45 | 63.45 | 69.31 | 79.77 |

| | | | | | | | |
|------|-------|-------|-------|-------|-------|-------|-------|
| 대000 | 62.09 | 32.66 | 37.40 | 40.70 | 52.29 | 55.32 | 54.68 |
| 대000 | 10.71 | 21.31 | 19.80 | 25.03 | 39.94 | 41.40 | 55.53 |
| 대000 | 52.34 | 54.08 | 56.62 | 64.21 | 79.24 | 74.16 | 72.82 |
| 대000 | 70.80 | 68.44 | 69.67 | 67.98 | 68.89 | 71.23 | 65.29 |
| 덕000 | 48.64 | 46.36 | 48.83 | 56.72 | 70.62 | 72.08 | 67.49 |
| 동000 | 13.35 | 15.00 | 17.03 | 21.43 | 38.28 | 45.78 | 41.33 |
| 동000 | 78.13 | 73.29 | 67.83 | 79.04 | 66.63 | 70.72 | 66.92 |
| 동000 | 79.00 | 49.25 | 44.72 | 69.96 | 75.82 | 84.47 | 86.51 |
| 동000 | 39.83 | 33.12 | 42.53 | 51.73 | 65.56 | 64.37 | 74.01 |
| 동000 | 17.37 | 19.15 | 24.87 | 26.74 | 52.94 | 60.49 | 50.02 |
| 동000 | 38.86 | 38.70 | 69.22 | 67.32 | 81.42 | 86.52 | 81.52 |
| 명000 | 35.81 | 44.43 | 47.38 | 48.82 | 57.29 | 53.24 | 57.73 |
| 목000 | 59.80 | 65.52 | 54.25 | 58.52 | 81.54 | 89.35 | 98.31 |
| 배000 | 70.62 | 83.32 | 68.70 | 66.10 | 68.08 | 75.72 | 77.09 |
| 부000 | 39.85 | 39.23 | 37.40 | 42.64 | 53.47 | 54.74 | 54.93 |
| 부000 | 34.34 | 32.74 | 29.82 | 37.45 | 65.67 | 71.17 | 56.80 |
| 부000 | 56.37 | 58.02 | 55.42 | 59.73 | 66.31 | 54.66 | 46.81 |
| 부000 | 48.69 | 52.08 | 52.22 | 59.90 | 67.24 | 77.88 | 78.42 |
| 삼000 | 53.02 | 71.04 | 66.55 | 62.85 | 73.55 | 71.70 | 84.25 |
| 상000 | 63.17 | 55.70 | 58.47 | 66.67 | 78.18 | 91.66 | 90.85 |
| 상000 | 29.66 | 26.15 | 23.18 | 36.38 | 71.70 | 81.05 | 79.39 |
| 서000 | 22.42 | 24.42 | 22.52 | 16.68 | 26.97 | 32.53 | 19.92 |
| 서000 | 47.86 | 80.70 | 81.45 | 92.47 | 99.75 | 93.97 | 87.51 |
| 서000 | 62.30 | 69.36 | 72.30 | 70.53 | 76.35 | 69.37 | 66.84 |
| 서000 | 87.61 | 90.35 | 92.74 | 96.75 | 90.17 | 77.09 | 98.23 |
| 서000 | 43.78 | 99.38 | 92.53 | 99.45 | 68.49 | 68.73 | 53.82 |
| 서000 | 51.04 | 56.68 | 57.11 | 58.24 | 61.27 | 64.96 | 43.25 |
| 서000 | 60.40 | 55.87 | 57.11 | 56.41 | 71.58 | 59.22 | 53.65 |
| 선000 | 52.01 | 57.35 | 56.43 | 45.73 | 58.08 | 57.83 | 78.00 |
| 성000 | 0.51 | 0.00 | 4.18 | 0.91 | 26.25 | 31.94 | 22.73 |

| | | | | | | | |
|------|-------|-------|-------|-------|-------|-------|-------|
| 성000 | 58.47 | 45.48 | 55.71 | 66.82 | 64.79 | 76.54 | 79.35 |
| 세000 | 30.60 | 35.58 | 31.58 | 36.05 | 59.93 | 88.51 | 84.40 |
| 세000 | 37.21 | 31.71 | 40.61 | 36.52 | 57.17 | 83.98 | 87.52 |
| 수000 | 32.05 | 32.06 | 29.41 | 28.38 | 78.54 | 82.83 | 79.38 |
| 숙000 | 42.67 | 41.79 | 48.29 | 47.19 | 82.23 | 80.85 | 79.26 |
| 순000 | 54.86 | 79.17 | 72.80 | 28.38 | 79.08 | 66.12 | 61.48 |
| 순000 | 9.11 | 17.53 | 19.75 | 24.41 | 28.86 | 44.61 | 42.95 |
| 송000 | 17.60 | 0.00 | 3.46 | 20.33 | 34.65 | 51.08 | 49.26 |
| 신000 | 68.20 | 69.21 | 64.24 | 70.61 | 74.65 | 80.62 | 80.25 |
| 아000 | 39.95 | 32.03 | 35.46 | 23.14 | 33.15 | 40.60 | 40.17 |
| 안000 | 45.51 | 48.07 | 62.50 | 67.32 | 74.91 | 73.11 | 67.23 |
| 안000 | 55.40 | 62.77 | 66.67 | 63.18 | 65.09 | 93.97 | 89.78 |
| 연000 | 16.38 | 17.70 | 15.05 | 18.09 | 29.09 | 34.78 | 25.59 |
| 영000 | 13.83 | 14.80 | 22.78 | 23.60 | 41.99 | 45.39 | 45.59 |
| 영000 | 38.66 | 66.80 | 77.45 | 67.82 | 43.91 | 52.75 | 64.46 |
| 용000 | 42.85 | 42.30 | 46.99 | 45.68 | 54.20 | 59.34 | 81.35 |
| 우000 | 59.94 | 58.82 | 55.57 | 53.97 | 67.09 | 65.21 | 59.24 |
| 우000 | 83.51 | 85.00 | 87.12 | 89.17 | 94.90 | 89.32 | 84.85 |
| 울000 | - | 64.60 | 33.05 | 27.71 | 35.20 | 46.19 | 16.05 |
| 울000 | 45.85 | 47.04 | 51.98 | 51.43 | 55.35 | 56.17 | 44.71 |
| 원000 | 0.36 | 4.19 | 16.15 | 24.96 | 41.09 | 42.14 | 49.22 |
| 이000 | 24.11 | 32.99 | 35.24 | 27.43 | 44.87 | 44.00 | 51.28 |
| 인000 | 50.77 | 58.50 | 68.44 | 75.78 | 80.08 | 80.55 | 83.37 |
| 인000 | 57.51 | 55.29 | 39.90 | 30.62 | 47.82 | 53.68 | 53.24 |
| 인000 | 18.48 | 9.66 | 12.70 | 15.00 | 28.49 | 27.59 | 33.86 |
| 전000 | 43.56 | 76.94 | 48.31 | 55.04 | 60.59 | 61.61 | 51.68 |
| 전000 | 48.98 | 45.98 | 46.73 | 56.99 | 60.37 | 60.04 | 55.53 |
| 전000 | 75.63 | 69.33 | 64.81 | 62.52 | 68.17 | 71.42 | 68.80 |
| 제000 | 77.03 | 73.16 | 70.48 | 67.87 | 74.66 | 73.90 | 76.19 |
| 조000 | 29.85 | 35.41 | 41.20 | 44.91 | 62.36 | 62.56 | 55.86 |

| | | | | | | | |
|------|-------|-------|-------|-------|-------|-------|-------|
| 중000 | 71.27 | 66.48 | 60.90 | 66.45 | 89.79 | 96.82 | 91.33 |
| 중000 | 10.13 | 13.30 | 25.21 | 23.66 | 8.50 | 14.58 | 5.23 |
| 창000 | 51.28 | 60.59 | 57.86 | 57.23 | 60.91 | 57.87 | 54.40 |
| 충000 | 18.61 | 47.08 | 13.37 | 45.44 | 54.44 | 49.84 | 55.04 |
| 충000 | 30.94 | 62.34 | 48.75 | 51.18 | 52.28 | 38.21 | 55.47 |
| 충000 | 77.29 | 42.78 | 43.92 | 47.86 | 52.97 | 42.45 | 40.15 |
| 포000 | 86.39 | 87.42 | 82.71 | 84.83 | 89.71 | 88.25 | 75.35 |
| 한000 | 77.27 | 60.33 | 54.09 | 67.96 | 79.49 | 81.63 | 77.66 |
| 한000 | 71.47 | 63.36 | 74.26 | 86.61 | 85.86 | 91.00 | 95.01 |
| 한000 | 42.91 | 49.52 | 53.43 | 52.23 | 24.00 | 65.64 | 67.74 |
| 한000 | 62.10 | 46.64 | 49.34 | 53.65 | 56.38 | 56.04 | 50.17 |
| 한000 | 39.55 | 39.21 | 39.61 | 43.76 | 52.03 | 56.12 | 55.44 |
| 한000 | 5.68 | 18.83 | 36.39 | 40.64 | 76.25 | 74.98 | 75.33 |
| 호000 | 59.65 | 57.73 | 54.24 | 56.11 | 67.17 | 72.67 | 79.99 |
| 호000 | 56.60 | 56.86 | 56.08 | 66.52 | 66.67 | 87.75 | 82.16 |
| 홍000 | 57.48 | 52.35 | 52.19 | 48.95 | 55.53 | 62.90 | 64.95 |

(3)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표> 일반대학 대학별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추이

| 일반대학 |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가000 | 66.79 | 43.78 | 47.60 | 60.80 | 68.27 | 0.57 | 72.67 |
| 강000 | 38.96 | 77.24 | 77.98 | 43.59 | 77.22 | 1.12 | 83.34 |
| 강000 | 71.43 | 74.56 | 57.65 | 59.45 | 79.82 | 0.85 | 83.27 |
| 강000 | 100.00 | 72.83 | 53.59 | 55.11 | 77.10 | 0.38 | 43.54 |
| 건000 | 68.53 | 65.51 | 65.93 | 65.15 | 58.78 | 0.27 | 66.54 |
| 건000 | 66.54 | 63.55 | 55.16 | 56.80 | 72.38 | 0.81 | 78.84 |
| 경000 | 62.85 | 44.71 | 40.45 | 45.92 | 62.52 | 0.24 | 67.97 |
| 경000 | 60.58 | 43.51 | 45.47 | 47.17 | 56.81 | 0.37 | 68.85 |
| 경000 | 77.43 | 36.90 | 36.54 | 38.99 | 0.46 | 0.01 | 86.68 |
| 경000 | 76.80 | 43.67 | 44.15 | 44.58 | 80.81 | 1.50 | 100.00 |
| 경000 | 86.05 | 78.13 | 61.66 | 58.60 | 76.09 | 0.80 | 71.73 |
| 경000 | 74.80 | 63.97 | 73.57 | 88.48 | 100.00 | 100.00 | 100.00 |
| 경000 | 82.04 | 38.18 | 35.84 | 39.95 | 65.60 | 65.32 | 63.52 |
| 계000 | 66.72 | 65.84 | 41.05 | 37.05 | 65.43 | 71.65 | 72.57 |
| 고000 | 58.15 | 35.71 | 34.95 | 32.90 | 56.12 | 60.49 | 49.26 |
| 고000 | 88.09 | 83.72 | 66.02 | 66.46 | 70.19 | 69.25 | 69.99 |
| 공000 | 73.32 | 73.57 | 74.16 | 74.28 | 72.72 | 78.70 | 79.06 |
| 관000 | 63.43 | 40.23 | 38.14 | 36.97 | 69.97 | 73.26 | 71.32 |
| 광000 | 63.50 | 65.19 | 65.30 | 63.53 | 61.89 | 61.10 | 62.42 |
| 광000 | 61.45 | 63.08 | 74.95 | 61.82 | 78.15 | 83.23 | 80.79 |
| 국000 | 70.39 | 70.85 | 34.33 | 34.81 | 64.03 | 69.34 | 43.88 |
| 금000 | 62.29 | 60.21 | 31.80 | 31.59 | 63.71 | 61.96 | 69.44 |
| 나000 | 100.00 | 57.50 | 51.48 | 50.42 | 84.29 | 82.61 | 84.21 |
| 단000 | 78.02 | 78.54 | 75.82 | 72.50 | 68.68 | 74.39 | 76.88 |
| 대000 | 83.66 | 46.94 | 44.98 | 47.33 | 72.66 | 79.21 | 75.82 |

| | | | | | | | |
|------|--------|--------|--------|--------|--------|--------|--------|
| 대000 | 58.88 | 42.58 | 49.07 | 45.74 | 65.77 | 66.99 | 65.87 |
| 대000 | 66.14 | 55.17 | 55.73 | 56.73 | 57.56 | 70.03 | 73.62 |
| 대000 | 61.06 | 68.96 | 72.75 | 51.65 | 77.84 | 76.32 | 75.45 |
| 대000 | 99.01 | 98.45 | 95.40 | 92.84 | 74.81 | 77.54 | 79.61 |
| 덕000 | 72.68 | 72.30 | 72.63 | 72.03 | 73.51 | 72.41 | 74.08 |
| 동000 | 55.01 | 64.17 | 34.67 | 35.33 | 59.60 | 64.55 | 68.08 |
| 동000 | 50.46 | 69.55 | 41.95 | 43.13 | 68.20 | 66.00 | 68.00 |
| 동000 | 100.00 | 64.28 | 51.16 | 44.68 | 88.47 | 91.61 | 95.82 |
| 동000 | 69.47 | 36.66 | 37.08 | 37.30 | 68.37 | 72.62 | 78.46 |
| 동000 | 58.31 | 58.45 | 61.33 | 61.81 | 64.85 | 66.50 | 65.92 |
| 동000 | 75.93 | 41.42 | 53.13 | 48.26 | 66.72 | 66.23 | 63.07 |
| 명000 | 73.50 | 36.64 | 35.14 | 37.04 | 67.84 | 71.30 | 71.71 |
| 목000 | 71.79 | 74.46 | 64.12 | 63.21 | 82.86 | 78.92 | 83.61 |
| 배000 | 86.91 | 60.27 | 59.07 | 58.80 | 81.39 | 73.91 | 78.50 |
| 부000 | 62.39 | 32.62 | 34.97 | 36.44 | 63.59 | 61.13 | 62.63 |
| 부000 | 70.55 | 51.88 | 51.30 | 50.72 | 74.67 | 78.45 | 77.37 |
| 부000 | 75.20 | 43.31 | 44.85 | 44.75 | 74.75 | 72.52 | 69.18 |
| 부000 | 72.02 | 72.25 | 40.47 | 41.09 | 75.38 | 77.01 | 81.14 |
| 삼000 | 80.53 | 100.00 | 95.15 | 89.90 | 87.78 | 84.87 | 87.53 |
| 상000 | 77.25 | 38.65 | 45.98 | 43.06 | 81.65 | 86.35 | 86.43 |
| 상000 | 67.78 | 49.73 | 47.01 | 57.62 | 76.40 | 79.04 | 75.82 |
| 서000 | 55.93 | 58.71 | 35.29 | 34.98 | 59.83 | 58.71 | 54.72 |
| 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서000 | 55.07 | 79.37 | 77.93 | 78.94 | 76.79 | 100.00 | 100.00 |
| 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서000 | 68.85 | 68.96 | 72.42 | 72.13 | 73.07 | 72.54 | 68.60 |
| 서000 | 72.27 | 44.18 | 43.87 | 44.63 | 68.64 | 66.01 | 57.95 |
| 서000 | 85.77 | 85.31 | 44.67 | 44.72 | 72.14 | 69.81 | 70.97 |
| 선000 | 75.68 | 79.89 | 80.06 | 47.84 | 75.77 | 75.34 | 84.07 |
| 청000 | 66.31 | 36.21 | 24.51 | 42.92 | 47.93 | 52.12 | 54.13 |

| | | | | | | | |
|------|--------|--------|-------|-------|-------|-------|--------|
| 성000 | 72.27 | 43.51 | 37.00 | 37.05 | 71.58 | 78.12 | 80.20 |
| 세000 | 70.50 | 41.87 | 42.69 | 41.34 | 76.37 | 77.29 | 77.56 |
| 세000 | 67.60 | 64.83 | 40.90 | 41.39 | 68.28 | 78.81 | 78.66 |
| 수000 | 67.22 | 55.09 | 56.96 | 55.33 | 89.75 | 91.18 | 92.28 |
| 숙000 | 68.10 | 34.25 | 34.61 | 36.26 | 87.51 | 83.03 | 86.33 |
| 순000 | 75.81 | 71.43 | 87.44 | 63.05 | 84.26 | 75.73 | 75.74 |
| 순000 | 61.45 | 62.90 | 64.37 | 57.38 | 69.67 | 72.77 | 67.25 |
| 송000 | 53.74 | 59.75 | 27.88 | 27.44 | 61.69 | 65.23 | 69.11 |
| 신000 | 49.19 | 49.35 | 50.42 | 53.63 | 79.30 | 78.84 | 81.08 |
| 아000 | 72.87 | 56.49 | 38.87 | 38.75 | 65.19 | 67.90 | 70.68 |
| 안000 | 77.16 | 51.46 | 58.05 | 59.96 | 82.75 | 79.88 | 78.80 |
| 안000 | 76.77 | 60.62 | 84.06 | 59.54 | 81.97 | 94.94 | 86.14 |
| 연000 | 52.90 | 51.47 | 51.40 | 55.55 | 56.26 | 59.82 | 61.38 |
| 영000 | 49.56 | 50.22 | 35.35 | 35.87 | 67.58 | 67.46 | 67.86 |
| 영000 | 100.00 | 100.00 | 82.14 | 95.50 | 97.19 | 86.55 | 87.95 |
| 용000 | 43.32 | 66.20 | 71.24 | 49.96 | 72.52 | 71.81 | 78.28 |
| 우000 | 75.07 | 57.50 | 61.65 | 63.43 | 71.82 | 70.16 | 65.29 |
| 우000 | 72.39 | 100.00 | 49.11 | 53.17 | 57.82 | 60.50 | 100.00 |
| 울000 | — | 70.64 | 63.94 | 28.00 | 23.66 | 42.26 | 52.42 |
| 울000 | 68.71 | 68.72 | 73.23 | 52.18 | 75.02 | 68.91 | 70.73 |
| 원000 | 56.49 | 38.82 | 36.97 | 38.92 | 67.73 | 68.19 | 71.26 |
| 이000 | 55.10 | 34.08 | 33.48 | 33.18 | 59.44 | 58.49 | 60.79 |
| 인000 | 73.40 | 48.85 | 48.75 | 49.13 | 89.39 | 85.11 | 86.48 |
| 인000 | 75.95 | 73.98 | 64.62 | 38.43 | 67.70 | 67.05 | 69.95 |
| 인000 | 58.36 | 33.84 | 36.51 | 37.11 | 55.16 | 55.03 | 55.55 |
| 전000 | 74.75 | 42.84 | 43.65 | 44.97 | 79.02 | 77.26 | 73.54 |
| 전000 | 69.88 | 66.41 | 58.79 | 47.40 | 77.88 | 76.40 | 73.49 |
| 전000 | 81.10 | 83.32 | 71.02 | 40.70 | 79.57 | 82.40 | 79.02 |
| 제000 | 84.70 | 86.54 | 85.32 | 65.66 | 86.96 | 83.17 | 81.49 |
| 조000 | 65.92 | 65.62 | 70.64 | 39.60 | 72.80 | 71.04 | 69.41 |

| | | | | | | | |
|------|-------|--------|--------|--------|--------|--------|-------|
| 중000 | 67.18 | 56.68 | 53.82 | 52.91 | 74.38 | 76.03 | 74.09 |
| 중000 | 46.30 | 34.63 | 34.38 | 33.64 | 56.42 | 58.14 | 58.52 |
| 창000 | 54.93 | 55.93 | 55.16 | 54.52 | 67.02 | 63.26 | 62.72 |
| 충000 | 59.10 | 100.00 | 100.00 | 100.00 | 68.75 | 72.32 | 80.67 |
| 충000 | 72.19 | 44.68 | 44.31 | 47.53 | 72.74 | 71.98 | 72.91 |
| 충000 | 66.89 | 46.35 | 49.10 | 49.37 | 73.13 | 65.45 | 66.62 |
| 포000 | 83.89 | 86.17 | 94.92 | 94.69 | 96.22 | 88.71 | 94.67 |
| 한000 | 73.70 | 66.84 | 58.42 | 48.80 | 76.47 | 78.00 | 75.25 |
| 한000 | 68.23 | 42.91 | 46.04 | 43.80 | 86.32 | 84.34 | 89.30 |
| 한000 | 65.18 | 54.47 | 55.40 | 57.24 | 100.00 | 100.00 | 76.66 |
| 한000 | 78.70 | 71.35 | 45.59 | 47.01 | 78.25 | 74.87 | 71.93 |
| 한000 | 70.53 | 70.38 | 47.68 | 46.56 | 70.06 | 70.69 | 70.44 |
| 한000 | 59.02 | 61.65 | 69.56 | 71.30 | 85.06 | 82.51 | 83.72 |
| 호000 | 78.10 | 62.28 | 61.34 | 62.30 | 73.78 | 72.93 | 80.35 |
| 호000 | 77.46 | 51.05 | 48.52 | 44.22 | 70.97 | 79.45 | 76.32 |
| 홍000 | 73.73 | 27.55 | 27.46 | 52.58 | 72.03 | 72.22 | 74.38 |

(4)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표> 일반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일반대학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가000 | 36.65 | 48.75 | 46.40 | 48.20 | 46.60 | 49.60 | 52.10 |
| 강000 | 57.10 | 53.15 | 52.65 | 56.00 | 52.90 | 55.60 | 57.50 |
| 강000 | 58.85 | 60.40 | 67.85 | 67.60 | 57.10 | 57.30 | 60.70 |
| 강000 | 58.70 | 57.65 | 63.25 | 63.30 | 56.15 | 54.50 | 58.60 |
| 건000 | 45.75 | 45.55 | 45.90 | 43.60 | 25.05 | 50.65 | 54.70 |
| 건000 | 62.30 | 67.85 | 59.95 | 58.95 | 63.15 | 66.05 | 69.10 |
| 경000 | 51.05 | 56.70 | 58.15 | 53.75 | 51.40 | 51.60 | 51.20 |
| 경000 | 69.75 | 78.90 | 79.65 | 79.85 | 68.75 | 72.45 | 72.80 |
| 경000 | 31.60 | 46.80 | 47.50 | 52.50 | 43.00 | 50.25 | 58.80 |
| 경000 | 46.25 | 54.95 | 56.70 | 55.00 | 51.95 | 52.55 | 65.20 |
| 경000 | 63.30 | 56.70 | 64.65 | 82.85 | 81.15 | 75.45 | 74.60 |
| 경000 | 53.95 | 58.90 | 49.35 | 70.50 | 78.55 | 77.30 | 79.40 |
| 경000 | 57.25 | 52.10 | 53.10 | 49.60 | 45.85 | 46.40 | 47.50 |
| 계000 | 52.35 | 51.80 | 69.60 | 68.75 | 59.95 | 60.90 | 58.70 |
| 고000 | 54.45 | 60.80 | 58.90 | 56.95 | 50.30 | 51.60 | 54.10 |
| 고000 | 42.00 | 45.10 | 46.00 | 47.45 | 60.90 | 70.65 | 68.10 |
| 공000 | 62.20 | 64.00 | 62.15 | 62.75 | 66.30 | 65.70 | 65.60 |
| 관000 | 54.90 | 63.55 | 66.50 | 69.45 | 64.60 | 68.20 | 73.40 |
| 광000 | 51.05 | 48.05 | 46.50 | 43.90 | 44.95 | 62.15 | 56.60 |
| 광000 | 60.55 | 70.70 | 65.75 | 66.90 | 68.90 | 66.90 | 64.90 |
| 국000 | 56.70 | 51.60 | 47.30 | 49.65 | 45.20 | 62.05 | 61.70 |
| 금000 | 55.20 | 55.80 | 71.60 | 73.40 | 63.30 | 63.90 | 63.40 |
| 나000 | 35.50 | 42.50 | 43.05 | 47.80 | 46.95 | 56.95 | 57.00 |
| 단000 | 38.65 | 39.35 | 51.50 | 55.75 | 57.70 | 64.20 | 67.20 |

| | | | | | | | |
|------|-------|-------|-------|-------|-------|-------|-------|
| 대000 | 35.35 | 48.80 | 58.70 | 60.35 | 48.35 | 50.60 | 62.80 |
| 대000 | 53.70 | 57.95 | 53.55 | 56.60 | 59.15 | 60.50 | 59.70 |
| 대000 | 54.85 | 56.55 | 61.20 | 63.70 | 66.40 | 64.85 | 79.40 |
| 대000 | 47.05 | 47.10 | 51.90 | 56.30 | 59.70 | 64.15 | 67.00 |
| 대000 | 45.20 | 44.80 | 43.00 | 42.80 | 50.60 | 58.30 | 62.10 |
| 덕000 | 41.50 | 44.00 | 46.10 | 49.00 | 45.95 | 47.40 | 46.40 |
| 동000 | 55.95 | 54.95 | 59.85 | 59.00 | 52.75 | 51.00 | 49.90 |
| 동000 | 49.45 | 47.70 | 41.75 | 45.00 | 53.65 | 58.65 | 56.20 |
| 동000 | 68.85 | 67.30 | 65.40 | 66.05 | 70.65 | 68.30 | 69.50 |
| 동000 | 57.95 | 57.65 | 59.65 | 57.30 | 55.70 | 56.65 | 64.60 |
| 동000 | 43.55 | 45.80 | 45.65 | 52.35 | 54.85 | 57.50 | 59.40 |
| 동000 | 43.50 | 44.05 | 50.05 | 56.85 | 53.70 | 60.05 | 67.60 |
| 명000 | 55.25 | 60.25 | 55.80 | 58.35 | 53.75 | 58.15 | 58.50 |
| 목000 | 61.30 | 60.85 | 67.45 | 63.50 | 61.35 | 66.70 | 71.30 |
| 배000 | 46.25 | 49.30 | 49.45 | 50.15 | 50.55 | 62.00 | 64.20 |
| 부000 | 49.60 | 60.25 | 57.35 | 64.00 | 53.65 | 56.05 | 57.50 |
| 부000 | 46.25 | 53.05 | 53.30 | 51.55 | 61.85 | 62.75 | 67.20 |
| 부000 | 48.30 | 56.85 | 55.25 | 53.65 | 47.00 | 51.10 | 54.00 |
| 부000 | 55.10 | 53.35 | 59.10 | 62.50 | 58.20 | 64.55 | 64.50 |
| 삼000 | 68.60 | 66.80 | 65.50 | 61.95 | 57.45 | 57.75 | 60.60 |
| 상000 | 35.30 | 38.80 | 37.15 | 42.20 | 56.45 | 54.05 | 61.40 |
| 상000 | 59.00 | 67.85 | 64.75 | 63.15 | 60.90 | 62.10 | 76.00 |
| 서000 | 50.45 | 49.40 | 52.60 | 53.15 | 50.25 | 55.20 | 60.00 |
| 서000 | 90.35 | 80.05 | 85.45 | 99.50 | 99.60 | 97.90 | 94.50 |
| 서000 | 52.55 | 40.40 | 48.30 | 48.50 | 50.00 | 50.35 | 51.70 |
| 서000 | 31.05 | 31.85 | 32.75 | 35.15 | 31.10 | 28.70 | 50.20 |
| 서000 | 55.40 | 54.95 | 55.05 | 55.60 | 54.80 | 55.30 | 57.70 |
| 서000 | 47.75 | 54.95 | 54.20 | 48.80 | 38.15 | 40.00 | 53.00 |
| 서000 | 48.40 | 48.30 | 45.45 | 50.10 | 46.15 | 50.55 | 54.40 |

| | | | | | | | |
|------|-------|-------|-------|-------|-------|-------|-------|
| 선000 | 49.20 | 53.30 | 53.30 | 60.00 | 57.60 | 58.30 | 70.50 |
| 성000 | 49.00 | 47.20 | 58.15 | 55.65 | 57.55 | 59.80 | 59.60 |
| 성000 | 36.85 | 42.50 | 42.00 | 42.55 | 52.20 | 51.50 | 52.60 |
| 세000 | 57.95 | 60.05 | 60.20 | 58.65 | 60.80 | 69.45 | 70.20 |
| 세000 | 43.80 | 45.70 | 47.70 | 52.00 | 56.15 | 62.75 | 62.00 |
| 수000 | 53.50 | 52.25 | 51.30 | 53.00 | 57.05 | 56.15 | 53.20 |
| 숙000 | 47.50 | 45.00 | 46.70 | 44.75 | 42.15 | 47.65 | 47.90 |
| 순000 | 53.90 | 51.70 | 55.50 | 62.10 | 62.25 | 60.05 | 60.80 |
| 순000 | 50.80 | 51.75 | 51.10 | 52.75 | 50.05 | 52.95 | 62.60 |
| 송000 | 52.95 | 54.45 | 53.65 | 54.50 | 53.95 | 54.50 | 56.30 |
| 신000 | 53.15 | 52.25 | 51.70 | 55.25 | 58.15 | 59.90 | 64.20 |
| 아000 | 60.00 | 52.25 | 70.30 | 68.30 | 62.85 | 62.20 | 61.90 |
| 안000 | 49.60 | 62.70 | 61.05 | 61.10 | 54.25 | 57.80 | 58.50 |
| 안000 | 53.65 | 49.80 | 52.60 | 44.10 | 51.35 | 50.05 | 54.50 |
| 연000 | 61.55 | 58.70 | 58.25 | 59.10 | 58.75 | 58.30 | 57.50 |
| 영000 | 57.00 | 53.35 | 55.05 | 53.85 | 46.10 | 48.25 | 60.90 |
| 영000 | 56.10 | 61.00 | 68.70 | 60.35 | 63.85 | 68.90 | 68.90 |
| 용000 | 59.10 | 45.75 | 43.50 | 53.45 | 54.40 | 56.15 | 61.10 |
| 우000 | 75.07 | 53.85 | 60.95 | 60.60 | 64.25 | 65.75 | 70.90 |
| 우000 | 34.35 | 34.05 | 36.30 | 35.05 | 41.30 | 47.35 | 57.20 |
| 울000 | — | 92.60 | 84.20 | 91.45 | 89.45 | 85.80 | 85.80 |
| 울000 | 59.45 | 61.00 | 63.00 | 57.75 | 55.50 | 55.55 | 58.60 |
| 원000 | 50.95 | 56.35 | 56.40 | 59.30 | 62.70 | 64.45 | 61.70 |
| 이000 | 57.05 | 56.25 | 53.80 | 50.05 | 51.60 | 54.70 | 57.00 |
| 인000 | 52.85 | 60.30 | 60.90 | 63.00 | 55.85 | 60.60 | 64.60 |
| 인000 | 43.35 | 40.70 | 44.60 | 51.20 | 42.15 | 43.10 | 45.70 |
| 인000 | 56.50 | 56.20 | 56.00 | 55.35 | 54.85 | 55.20 | 57.30 |
| 전000 | 49.10 | 63.50 | 63.65 | 62.60 | 52.90 | 54.95 | 59.80 |
| 전000 | 51.85 | 53.05 | 57.70 | 56.70 | 51.30 | 53.95 | 58.60 |

| | | | | | | | |
|------|-------|-------|-------|-------|-------|-------|-------|
| 전000 | 52.75 | 52.05 | 55.00 | 59.85 | 62.90 | 63.10 | 63.90 |
| 제000 | 59.30 | 59.65 | 55.95 | 66.05 | 57.70 | 59.80 | 60.00 |
| 조000 | 59.90 | 59.15 | 59.10 | 68.10 | 57.10 | 57.30 | 63.10 |
| 중000 | 45.30 | 50.85 | 46.35 | 53.25 | 59.45 | 60.00 | 66.20 |
| 중000 | 54.25 | 51.80 | 52.00 | 52.30 | 54.50 | 52.25 | 53.00 |
| 창000 | 55.30 | 55.45 | 54.80 | 55.40 | 50.80 | 56.60 | 59.90 |
| 총000 | 55.90 | 33.45 | 30.40 | 37.90 | 47.80 | 55.25 | 52.90 |
| 총000 | 47.25 | 54.95 | 54.90 | 55.70 | 46.80 | 51.80 | 55.00 |
| 총000 | 54.40 | 65.60 | 67.20 | 65.45 | 56.50 | 58.75 | 59.60 |
| 포000 | 73.10 | 69.25 | 58.00 | 58.40 | 56.90 | 61.25 | 61.10 |
| 한000 | 62.75 | 60.15 | 72.25 | 72.60 | 66.90 | 68.55 | 67.00 |
| 한000 | 42.30 | 44.15 | 40.45 | 43.70 | 48.90 | 51.70 | 46.70 |
| 한000 | 55.75 | 54.65 | 55.00 | 56.90 | 57.40 | 58.10 | 56.00 |
| 한000 | 57.10 | 57.05 | 65.50 | 62.25 | 54.45 | 55.55 | 60.50 |
| 한000 | 67.40 | 68.45 | 67.70 | 65.25 | 61.20 | 61.30 | 65.00 |
| 한000 | 51.70 | 62.20 | 57.10 | 58.85 | 55.55 | 57.40 | 56.00 |
| 호000 | 55.90 | 53.40 | 59.45 | 62.10 | 68.10 | 69.75 | 81.70 |
| 호000 | 46.35 | 49.95 | 52.30 | 57.85 | 59.25 | 58.15 | 61.10 |
| 홍000 | 60.15 | 57.05 | 57.20 | 53.20 | 57.00 | 60.55 | 64.60 |

(5)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표> 일반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일반대학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가000 | 70.64 | 58.32 | 55.45 | 56.12 | 74.69 | 81.71 | 87.87 |
| 강000 | 42.57 | 80.31 | 81.00 | 69.87 | 88.11 | 80.05 | 73.89 |
| 강000 | 73.67 | 75.21 | 64.23 | 65.70 | 75.40 | 73.53 | 80.37 |
| 강000 | 63.01 | 60.32 | 57.46 | 56.17 | 75.84 | 75.82 | 78.27 |
| 건000 | 68.31 | 69.52 | 69.48 | 68.04 | 72.96 | 69.49 | 65.91 |
| 건000 | 63.31 | 82.36 | 91.87 | 85.97 | 86.37 | 80.94 | 66.33 |
| 경000 | 49.58 | 48.29 | 44.84 | 46.19 | 60.79 | 66.05 | 66.49 |
| 경000 | 58.45 | 46.44 | 59.21 | 62.65 | 74.32 | 83.64 | 85.81 |
| 경000 | 78.77 | 54.09 | 54.61 | 62.33 | 76.92 | 95.02 | 84.00 |
| 경000 | 90.90 | 55.58 | 56.57 | 58.71 | 89.89 | 36.68 | 75.26 |
| 경000 | 97.97 | 81.35 | 78.94 | 85.72 | 58.36 | 91.02 | 81.43 |
| 경000 | 99.66 | 97.18 | 98.28 | 47.94 | 66.56 | 72.57 | 84.71 |
| 경000 | 88.56 | 21.56 | 37.26 | 41.15 | 62.83 | 58.71 | 60.25 |
| 계000 | 86.42 | 87.91 | 67.76 | 58.74 | 90.58 | 89.51 | 89.66 |
| 고000 | 37.67 | 25.79 | 24.54 | 22.22 | 34.64 | 34.14 | 33.01 |
| 고000 | 49.56 | 49.85 | 39.53 | 40.72 | 50.71 | 49.52 | 49.15 |
| 공000 | 87.92 | 89.51 | 87.79 | 90.03 | 97.31 | 96.83 | 97.46 |
| 관000 | 54.85 | 37.91 | 37.64 | 40.31 | 73.09 | 78.45 | 68.03 |
| 광000 | 79.66 | 77.35 | 77.76 | 68.30 | 69.11 | 85.64 | 82.08 |
| 광000 | 65.47 | 83.59 | 86.07 | 86.79 | 83.29 | 71.02 | 76.94 |
| 국000 | 90.23 | 79.79 | 38.53 | 42.51 | 74.08 | 86.25 | 89.43 |
| 금000 | 87.74 | 89.48 | 61.63 | 60.16 | 95.89 | 95.03 | 89.34 |
| 나000 | 88.89 | 55.54 | 51.23 | 57.83 | 99.70 | 89.49 | 84.79 |
| 단000 | 69.74 | 74.84 | 88.33 | 88.95 | 87.19 | 98.19 | 99.32 |

| | | | | | | | |
|------|-------|-------|-------|-------|-------|-------|-------|
| 대000 | 82.86 | 63.81 | 68.50 | 51.53 | 37.07 | 67.06 | 97.02 |
| 대000 | 97.64 | 73.27 | 74.73 | 72.50 | 97.00 | 99.03 | 98.23 |
| 대000 | 99.91 | 86.24 | 85.55 | 83.76 | 86.40 | 93.51 | 69.75 |
| 대000 | 78.67 | 85.73 | 94.58 | 67.15 | 97.06 | 47.73 | 86.47 |
| 대000 | 72.10 | 85.43 | 90.03 | 96.94 | 96.78 | 90.02 | 79.64 |
| 덕000 | 79.39 | 78.36 | 78.13 | 84.66 | 84.62 | 85.24 | 82.06 |
| 동000 | 60.84 | 66.77 | 39.29 | 40.17 | 64.17 | 61.03 | 61.30 |
| 동000 | 65.07 | 86.29 | 48.51 | 48.49 | 87.40 | 93.83 | 91.92 |
| 동000 | 67.58 | 66.64 | 59.11 | 74.24 | 35.93 | 36.03 | 28.36 |
| 동000 | 97.11 | 53.96 | 56.89 | 54.79 | 97.04 | 96.33 | 78.26 |
| 동000 | 65.23 | 69.88 | 69.14 | 75.66 | 29.63 | 78.45 | 79.28 |
| 동000 | 91.57 | 50.87 | 73.75 | 74.63 | 90.76 | 96.93 | 98.97 |
| 명000 | 73.61 | 39.31 | 71.50 | 37.65 | 78.20 | 79.75 | 78.41 |
| 목000 | 85.51 | 87.30 | 78.15 | 73.90 | 94.84 | 93.89 | 79.37 |
| 배000 | 94.64 | 69.15 | 70.37 | 72.39 | 98.97 | 86.67 | 80.68 |
| 부000 | 70.18 | 44.65 | 46.08 | 52.61 | 75.13 | 75.49 | 79.57 |
| 부000 | 99.97 | 81.19 | 79.14 | 74.01 | 89.02 | 86.26 | 83.77 |
| 부000 | 53.42 | 45.87 | 46.11 | 45.22 | 64.88 | 65.07 | 66.91 |
| 부000 | 89.54 | 93.26 | 68.08 | 70.55 | 79.47 | 64.35 | 58.58 |
| 삼000 | 80.09 | 39.74 | 56.55 | 64.92 | 82.15 | 86.11 | 76.96 |
| 상000 | 86.59 | 46.88 | 52.29 | 51.65 | 31.51 | 69.97 | 74.82 |
| 상000 | 97.01 | 81.59 | 70.91 | 85.11 | 89.50 | 85.39 | 70.26 |
| 서000 | 58.00 | 61.94 | 38.23 | 37.73 | 59.10 | 58.52 | 52.11 |
| 서000 | 96.17 | 73.35 | 94.82 | 78.30 | 83.77 | 95.92 | 45.36 |
| 서000 | 95.72 | 91.67 | 88.34 | 85.89 | 96.98 | 93.73 | 92.25 |
| 서000 | 95.71 | 11.78 | 93.39 | 92.75 | 68.94 | 90.34 | 52.89 |
| 서000 | 30.22 | 26.60 | 26.65 | 26.54 | 26.84 | 26.38 | 26.16 |
| 서000 | 59.86 | 44.19 | 43.83 | 41.43 | 53.49 | 54.52 | 62.35 |
| 서000 | 93.22 | 91.44 | 51.84 | 59.18 | 59.40 | 86.94 | 94.38 |

| | | | | | | | |
|------|-------|-------|-------|-------|-------|-------|-------|
| 선000 | 97.68 | 87.66 | 94.24 | 73.33 | 87.19 | 81.99 | 61.58 |
| 성000 | 79.44 | 48.83 | 20.14 | 30.62 | 33.98 | 34.98 | 37.14 |
| 성000 | 75.70 | 52.50 | 40.13 | 58.16 | 61.75 | 99.07 | 83.09 |
| 세000 | 79.76 | 72.49 | 72.74 | 69.70 | 82.60 | 78.62 | 73.39 |
| 세000 | 64.59 | 66.72 | 44.99 | 48.16 | 88.13 | 99.70 | 95.85 |
| 수000 | 94.41 | 91.30 | 87.83 | 96.75 | 56.77 | 93.32 | 86.52 |
| 숙000 | 72.70 | 34.81 | 34.26 | 34.17 | 76.06 | 78.29 | 82.94 |
| 순000 | 74.88 | 67.06 | 80.25 | 71.24 | 95.37 | 79.10 | 83.81 |
| 순000 | 37.57 | 35.98 | 37.27 | 35.02 | 19.79 | 21.27 | 42.67 |
| 송000 | 69.49 | 71.61 | 33.56 | 33.81 | 73.84 | 73.26 | 79.42 |
| 신000 | 65.22 | 90.66 | 62.96 | 72.29 | 69.74 | 84.04 | 82.73 |
| 아000 | 52.35 | 32.91 | 35.48 | 35.01 | 53.75 | 58.27 | 49.38 |
| 안000 | 75.83 | 63.07 | 68.51 | 70.01 | 92.05 | 91.79 | 93.64 |
| 안000 | 96.61 | 70.49 | 97.04 | 60.78 | 91.70 | 93.50 | 89.78 |
| 연000 | 32.34 | 31.25 | 30.90 | 32.96 | 36.67 | 34.66 | 35.35 |
| 영000 | 82.46 | 75.62 | 44.19 | 44.92 | 69.77 | 65.91 | 78.37 |
| 영000 | 79.56 | 85.56 | 65.29 | 80.62 | 69.16 | 72.91 | 68.31 |
| 용000 | 76.23 | 91.41 | 90.72 | 77.03 | 99.30 | 99.42 | 87.23 |
| 우000 | 93.83 | 81.36 | 77.34 | 84.86 | 99.46 | 96.12 | 97.03 |
| 우000 | 73.04 | 38.70 | 24.89 | 48.53 | 57.04 | 73.70 | 20.35 |
| 울000 | — | 59.08 | 56.19 | 28.71 | 27.57 | 38.02 | 45.45 |
| 울000 | 40.02 | 40.70 | 45.27 | 28.74 | 40.37 | 37.83 | 40.06 |
| 원000 | 61.15 | 45.59 | 44.39 | 46.19 | 71.46 | 75.06 | 79.84 |
| 이000 | 60.03 | 36.99 | 35.04 | 33.18 | 55.10 | 56.23 | 62.70 |
| 인000 | 89.97 | 68.43 | 69.89 | 69.48 | 96.66 | 92.11 | 79.48 |
| 인000 | 74.23 | 71.45 | 48.47 | 46.81 | 82.28 | 86.09 | 81.94 |
| 인000 | 60.08 | 47.25 | 46.84 | 45.95 | 72.51 | 71.43 | 76.12 |
| 전000 | 52.45 | 39.45 | 38.83 | 38.17 | 54.13 | 54.06 | 57.76 |
| 전000 | 50.42 | 49.67 | 47.26 | 49.84 | 71.23 | 73.08 | 77.01 |

| | | | | | | | |
|------|-------|-------|-------|-------|-------|-------|-------|
| 전000 | 99.63 | 98.55 | 99.30 | 67.31 | 74.76 | 67.27 | 66.76 |
| 제000 | 67.44 | 68.83 | 61.99 | 69.97 | 80.37 | 83.02 | 83.15 |
| 조000 | 84.04 | 80.40 | 81.83 | 52.64 | 77.49 | 76.70 | 76.69 |
| 중000 | 92.56 | 87.88 | 74.49 | 74.00 | 98.91 | 98.81 | 92.21 |
| 중000 | 41.82 | 30.18 | 28.55 | 26.38 | 40.74 | 45.18 | 47.40 |
| 창000 | 61.89 | 65.61 | 62.95 | 63.45 | 72.22 | 75.12 | 80.39 |
| 총000 | 45.50 | 68.74 | 72.03 | 59.37 | 48.51 | 46.93 | 51.24 |
| 충000 | 52.93 | 47.73 | 46.77 | 50.65 | 64.54 | 70.75 | 77.40 |
| 충000 | 58.93 | 49.96 | 51.84 | 50.27 | 64.17 | 61.28 | 63.90 |
| 포000 | 27.34 | 26.22 | 30.27 | 30.35 | 30.22 | 29.79 | 27.90 |
| 한000 | 93.14 | 91.28 | 25.00 | 20.39 | 87.30 | 83.44 | 85.94 |
| 한000 | 68.01 | 47.57 | 44.30 | 47.52 | 99.40 | 96.37 | 97.92 |
| 한000 | 74.50 | 27.85 | 64.33 | 67.40 | 88.06 | 94.18 | 93.20 |
| 한000 | 78.62 | 40.69 | 86.81 | 83.05 | 76.87 | 82.36 | 76.68 |
| 한000 | 32.89 | 25.13 | 23.93 | 24.22 | 34.04 | 34.48 | 36.58 |
| 한000 | 42.98 | 13.31 | 53.31 | 56.21 | 63.37 | 69.73 | 63.34 |
| 호000 | 99.37 | 29.75 | 78.40 | 84.08 | 85.17 | 82.77 | 71.72 |
| 호000 | 86.72 | 27.70 | 62.15 | 61.86 | 99.98 | 93.13 | 91.12 |
| 홍000 | 88.51 | 9.33 | 31.46 | 31.03 | 85.42 | 91.69 | 99.42 |

2. 전문대학

(1) 건전성 지수

<표> 전문대학 대학별 건전성 지수 추이

| 전문대학 | 건전성 지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강000 | 245.85 | 259.74 | 253.86 | 283.19 | 257.59 | 291.71 | 288.21 |
| 강000 | 286.55 | 302.16 | 329.82 | 302.50 | 253.72 | 298.62 | 309.54 |
| 강000 | 282.45 | 273.65 | 295.42 | 303.93 | 310.33 | 309.15 | 302.63 |
| 거000 | 298.65 | 300.38 | 303.04 | 295.55 | 307.28 | 313.48 | 314.67 |
| 경000 | 291.11 | 281.41 | 286.14 | 307.23 | 289.49 | 301.91 | 286.33 |
| 경000 | 313.18 | 301.06 | 299.15 | 291.65 | 285.70 | 291.10 | 286.87 |
| 경000 | 236.05 | 270.57 | 207.27 | 271.42 | 206.77 | 280.04 | 300.54 |
| 경000 | 239.73 | 199.27 | 209.20 | 216.17 | 301.69 | 299.00 | 304.67 |
| 경000 | 284.07 | 279.60 | 286.89 | 273.79 | 292.34 | 297.45 | 297.12 |
| 경000 | 319.50 | 305.01 | 302.89 | 298.16 | 294.49 | 313.52 | 303.93 |
| 경000 | 285.77 | 273.31 | 314.46 | 313.78 | 293.14 | 299.18 | 302.86 |
| 경000 | 248.84 | 267.58 | 291.79 | 290.54 | 273.92 | 265.17 | 278.27 |
| 구000 | 255.72 | 267.81 | 261.21 | 263.52 | 279.97 | 284.52 | 279.87 |
| 국000 | 283.63 | 290.34 | 305.57 | 294.79 | 311.98 | 300.34 | 299.59 |
| 김000 | 223.42 | 203.20 | 282.21 | 247.26 | 300.46 | 311.52 | 313.66 |
| 김000 | 241.45 | 240.73 | 234.80 | 243.49 | 287.16 | 286.35 | 282.16 |
| 김000 | 316.63 | 310.85 | 238.16 | 314.38 | 306.71 | 313.75 | 300.43 |
| 대000 | 301.10 | 299.69 | 301.07 | 306.04 | 309.61 | 314.24 | 309.39 |
| 대000 | 303.73 | 294.43 | 273.63 | 302.34 | 280.43 | 268.84 | 271.55 |
| 대000 | 270.42 | 261.51 | 272.00 | 272.83 | 277.88 | 277.72 | 285.58 |
| 동000 | 309.29 | 305.05 | 295.83 | 296.46 | 286.95 | 291.82 | 296.07 |
| 동000 | 291.75 | 295.72 | 282.95 | 274.63 | 283.34 | 284.82 | 275.53 |
| 동000 | 273.36 | 265.92 | 271.92 | 272.47 | 279.71 | 286.37 | 285.18 |
| 동000 | 278.33 | 271.97 | 247.82 | 317.02 | 278.32 | 272.58 | 266.41 |
| 두000 | 321.41 | 237.42 | 326.11 | 308.16 | 253.02 | 280.81 | 298.27 |

| | | | | | | | |
|------|--------|--------|--------|--------|--------|--------|--------|
| 명000 | 264.97 | 262.46 | 265.60 | 260.72 | 293.80 | 296.53 | 297.62 |
| 배000 | 272.52 | 276.33 | 282.32 | 250.78 | 280.38 | 281.23 | 297.13 |
| 부000 | 279.57 | 285.51 | 263.06 | 285.30 | 274.05 | 294.75 | 295.50 |
| 서000 | 287.68 | 306.14 | 338.47 | 321.16 | 322.51 | 323.09 | 305.57 |
| 서000 | 282.07 | 201.63 | 175.86 | 208.24 | 266.52 | 277.37 | 292.00 |
| 서000 | 261.32 | 311.74 | 314.79 | 274.53 | 302.67 | 289.11 | 297.57 |
| 선000 | 183.85 | 270.21 | 252.52 | 252.97 | 254.38 | 273.37 | 264.74 |
| 수000 | 256.92 | 256.38 | 253.73 | 249.57 | 298.18 | 240.72 | 294.12 |
| 수000 | 220.18 | 240.51 | 265.72 | 245.87 | 298.19 | 298.62 | 304.38 |
| 순000 | 247.27 | 245.82 | 255.31 | 267.33 | 251.07 | 251.15 | 256.76 |
| 송000 | 260.53 | 261.11 | 277.05 | 286.09 | 214.60 | 284.75 | 292.80 |
| 신000 | 263.64 | 275.03 | 250.39 | 252.45 | 235.35 | 238.12 | 250.15 |
| 신000 | 269.93 | 260.18 | 268.52 | 264.62 | 283.59 | 299.26 | 298.41 |
| 아000 | 287.39 | 314.11 | 283.28 | 209.42 | 283.17 | 297.62 | 264.76 |
| 안000 | 289.19 | 287.34 | 277.37 | 310.72 | 301.79 | 304.74 | 310.20 |
| 안000 | 268.14 | 211.58 | 269.12 | 276.65 | 280.77 | 278.61 | 281.34 |
| 여000 | 304.92 | 310.99 | 308.34 | 310.93 | 293.73 | 300.25 | 291.53 |
| 영000 | 280.54 | 314.98 | 305.75 | 312.80 | 333.40 | 311.56 | 318.38 |
| 영000 | 266.34 | 273.02 | 263.22 | 272.07 | 277.01 | 283.90 | 284.56 |
| 영000 | 293.29 | 276.78 | 274.84 | 278.70 | 297.93 | 308.28 | 320.47 |
| 오000 | 272.96 | 271.74 | 276.52 | 276.00 | 301.08 | 294.72 | 299.67 |
| 용000 | 280.67 | 251.09 | 246.92 | 239.65 | 306.85 | 304.30 | 288.00 |
| 우000 | 273.68 | 294.57 | 205.44 | 168.66 | 255.76 | 256.39 | 303.83 |
| 울000 | 272.88 | 281.63 | 287.56 | 289.82 | 285.04 | 290.32 | 290.72 |
| 원000 | 224.16 | 228.60 | 237.19 | 239.38 | 274.82 | 289.34 | 284.67 |
| 유000 | 292.53 | 293.96 | 251.73 | 284.12 | 296.69 | 289.82 | 308.21 |
| 인000 | 282.65 | 294.88 | 305.25 | 289.81 | 309.23 | 324.50 | 299.73 |
| 인000 | 260.31 | 261.76 | 199.55 | 172.46 | 233.50 | 275.06 | 260.17 |
| 장000 | 205.08 | 233.58 | 227.38 | 254.52 | 285.24 | 298.77 | 304.83 |
| 전000 | 242.69 | 240.59 | 227.74 | 262.74 | 296.97 | 274.75 | 281.18 |
| 전000 | 230.26 | 235.73 | 240.65 | 256.99 | 311.39 | 479.16 | 314.32 |

| | | | | | | | |
|------|--------|--------|--------|--------|--------|--------|--------|
| 전000 | 294.05 | 292.08 | 290.25 | 280.67 | 285.25 | 294.29 | 278.35 |
| 제000 | 308.40 | 293.58 | 296.29 | 308.44 | 304.81 | 307.88 | 304.39 |
| 제000 | 245.92 | 254.42 | 253.63 | 264.58 | 271.40 | 274.12 | 269.52 |
| 조000 | 287.93 | 281.74 | 312.06 | 304.62 | 319.01 | 304.65 | 295.67 |
| 천000 | 282.64 | 280.81 | 280.60 | 274.08 | 299.94 | 289.67 | 249.74 |
| 청000 | 256.81 | 266.49 | 237.86 | 237.96 | 249.41 | 294.74 | 284.78 |
| 충000 | 280.50 | 292.47 | 285.27 | 292.93 | 290.93 | 235.18 | 291.79 |
| 충000 | 294.55 | 298.42 | 311.20 | 306.04 | 306.08 | 224.76 | 301.43 |
| 충000 | 281.34 | 303.49 | 300.16 | 305.82 | 241.26 | 248.62 | 285.76 |
| 포000 | 219.12 | 239.26 | 240.69 | 260.01 | 266.28 | 289.18 | 287.66 |
| 한000 | 256.11 | 251.99 | 272.34 | 271.07 | 272.41 | 280.71 | 265.16 |
| 한000 | 328.14 | 344.13 | 326.93 | 335.72 | 292.33 | 289.09 | 300.18 |
| 한000 | 292.49 | 295.03 | 299.37 | 297.84 | 300.59 | 306.60 | 307.93 |
| 한000 | 235.91 | 235.08 | 245.95 | 251.09 | 248.18 | 272.98 | 298.74 |
| 혜000 | 289.25 | 268.30 | 280.86 | 278.50 | 288.80 | 277.18 | 291.22 |

(2)강좌 당 학생 수

<표> 전문대학 대학별 강좌 당 학생 수 추이

| 전문대학 | 강좌 당 학생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강000 | 38.18 | 52.90 | 0.00 | 19.59 | 46.61 | 52.29 | 47.36 |
| 강000 | 72.59 | 86.45 | 87.57 | 67.59 | 75.75 | 80.86 | 87.48 |
| 강000 | 64.94 | 67.36 | 57.32 | 72.00 | 77.20 | 73.10 | 66.75 |
| 거000 | 64.83 | 59.54 | 64.36 | 61.29 | 76.25 | 76.38 | 80.24 |
| 경000 | 85.71 | 77.68 | 64.36 | 78.73 | 81.77 | 84.91 | 84.84 |
| 경000 | 84.47 | 73.51 | 83.63 | 62.90 | 57.17 | 62.39 | 61.90 |
| 경000 | 0.16 | 40.04 | 0.00 | 59.63 | 0.36 | 76.39 | 76.16 |
| 경000 | 62.21 | 63.70 | 61.52 | 64.17 | 63.68 | 65.55 | 72.81 |
| 경000 | 69.81 | 72.39 | 72.13 | 70.54 | 83.96 | 88.65 | 81.31 |
| 경000 | 89.52 | 69.08 | 62.77 | 62.22 | 72.07 | 81.64 | 75.82 |
| 경000 | 69.36 | 67.14 | 67.51 | 67.15 | 65.64 | 69.19 | 72.43 |
| 경000 | 64.08 | 61.26 | 58.95 | 55.67 | 60.48 | 61.16 | 61.24 |
| 구000 | 71.29 | 75.89 | 75.27 | 77.30 | 83.82 | 68.96 | 76.40 |
| 국000 | 82.54 | 74.67 | 84.15 | 72.34 | 83.78 | 83.15 | 82.19 |
| 김000 | 41.10 | 18.59 | 73.05 | 47.31 | 73.05 | 83.36 | 70.25 |
| 김000 | 52.34 | 51.19 | 56.64 | 59.46 | 64.91 | 65.45 | 61.37 |
| 김000 | 79.69 | 77.39 | 62.20 | 95.02 | 92.58 | 87.58 | 87.48 |
| 대000 | 61.71 | 72.49 | 69.09 | 70.47 | 87.35 | 91.77 | 91.66 |
| 대000 | 63.99 | 65.43 | 67.82 | 65.47 | 71.81 | 67.01 | 60.53 |
| 대000 | 52.42 | 43.48 | 57.29 | 61.49 | 70.66 | 75.16 | 68.61 |
| 동000 | 78.78 | 77.04 | 75.33 | 75.75 | 78.72 | 77.05 | 77.79 |
| 동000 | 61.09 | 67.87 | 56.31 | 60.90 | 67.83 | 69.59 | 68.88 |
| 동000 | 78.08 | 85.43 | 89.14 | 83.31 | 76.95 | 83.11 | 83.49 |
| 동000 | 97.90 | 45.64 | 43.03 | 80.45 | 86.15 | 87.41 | 78.49 |
| 두000 | 97.90 | 80.60 | 82.75 | 77.76 | 83.13 | 94.43 | 89.25 |

| | | | | | | | |
|------|-------|-------|-------|-------|-------|-------|-------|
| 명000 | 60.63 | 62.64 | 61.37 | 61.54 | 75.91 | 78.18 | 78.73 |
| 배000 | 46.74 | 50.43 | 55.64 | 59.55 | 64.70 | 66.34 | 69.43 |
| 부000 | 65.62 | 69.74 | 65.06 | 64.95 | 64.57 | 74.34 | 66.98 |
| 서000 | 50.33 | 82.88 | 97.01 | 98.65 | 98.63 | 93.83 | 77.61 |
| 서000 | 36.23 | 43.87 | 25.31 | 44.45 | 51.67 | 65.17 | 73.50 |
| 서000 | 53.15 | 69.59 | 82.02 | 84.25 | 94.52 | 99.70 | 98.92 |
| 선000 | 0.00 | 88.55 | 84.23 | 84.29 | 81.35 | 94.85 | 98.15 |
| 수000 | 65.45 | 67.36 | 61.56 | 57.90 | 67.57 | 70.42 | 66.67 |
| 수000 | 42.22 | 64.13 | 61.61 | 61.43 | 65.93 | 67.84 | 69.03 |
| 순000 | 95.07 | 92.07 | 83.12 | 91.87 | 85.75 | 80.49 | 82.21 |
| 송000 | 60.42 | 65.13 | 58.01 | 64.78 | 62.56 | 63.06 | 68.98 |
| 신000 | 34.17 | 50.94 | 56.70 | 60.77 | 59.36 | 64.77 | 66.78 |
| 신000 | 64.33 | 67.82 | 68.32 | 60.95 | 66.20 | 72.00 | 68.65 |
| 아000 | 96.96 | 98.81 | 92.73 | 77.10 | 76.96 | 71.03 | 72.15 |
| 안000 | 63.00 | 60.00 | 56.03 | 72.00 | 71.84 | 69.62 | 76.68 |
| 안000 | 39.54 | 45.12 | 43.03 | 42.90 | 50.44 | 50.30 | 48.83 |
| 여000 | 85.90 | 85.90 | 78.97 | 86.66 | 91.27 | 77.21 | 75.40 |
| 영000 | 63.25 | 79.08 | 71.08 | 78.23 | 98.41 | 86.29 | 87.11 |
| 영000 | 40.72 | 51.98 | 39.63 | 47.57 | 54.55 | 57.29 | 63.08 |
| 영000 | 55.75 | 37.12 | 50.10 | 51.58 | 73.37 | 85.16 | 87.42 |
| 오000 | 62.91 | 71.64 | 74.33 | 67.87 | 72.19 | 73.90 | 70.04 |
| 용000 | 79.89 | 84.12 | 78.59 | 81.25 | 85.59 | 90.61 | 90.14 |
| 우000 | 69.32 | 68.86 | 65.74 | 68.35 | 82.16 | 78.45 | 78.81 |
| 울000 | 56.54 | 57.00 | 62.13 | 63.93 | 62.13 | 63.47 | 65.84 |
| 원000 | 1.17 | 16.33 | 24.58 | 33.15 | 51.68 | 64.42 | 63.27 |
| 유000 | 56.23 | 68.31 | 26.60 | 67.68 | 72.18 | 73.36 | 69.32 |
| 인000 | 63.98 | 66.48 | 92.13 | 87.52 | 95.48 | 99.07 | 84.69 |
| 인000 | 53.79 | 52.23 | 63.36 | 43.86 | 67.97 | 72.76 | 70.52 |
| 장000 | 72.42 | 74.64 | 76.86 | 79.64 | 75.21 | 83.16 | 85.97 |
| 전000 | 38.11 | 35.06 | 20.94 | 48.40 | 65.31 | 55.53 | 62.18 |

| | | | | | | | |
|------|-------|-------|-------|-------|-------|-------|-------|
| 전000 | 7.02 | 13.65 | 25.59 | 35.60 | 82.58 | 82.48 | 79.06 |
| 전000 | 73.84 | 73.51 | 66.24 | 64.07 | 68.75 | 67.12 | 63.66 |
| 제000 | 66.66 | 67.99 | 64.58 | 63.44 | 73.76 | 77.10 | 73.55 |
| 제000 | 72.88 | 74.41 | 70.96 | 66.35 | 70.27 | 71.33 | 66.03 |
| 조000 | 72.88 | 77.03 | 72.76 | 83.14 | 86.14 | 75.82 | 71.94 |
| 천000 | 42.17 | 45.52 | 46.96 | 47.62 | 70.93 | 55.53 | 32.60 |
| 청000 | 61.79 | 56.00 | 0.00 | 61.15 | 65.64 | 67.42 | 61.16 |
| 충000 | 56.00 | 60.38 | 61.42 | 64.11 | 65.33 | 10.06 | 66.88 |
| 충000 | 60.24 | 62.31 | 67.59 | 66.80 | 69.04 | 75.14 | 70.01 |
| 충000 | 74.33 | 74.29 | 71.35 | 70.36 | 70.07 | 71.01 | 72.57 |
| 포000 | 41.84 | 37.42 | 45.07 | 25.82 | 40.29 | 59.69 | 59.50 |
| 한000 | 59.43 | 59.73 | 58.78 | 59.53 | 61.22 | 72.75 | 62.09 |
| 한000 | 55.96 | 59.23 | 59.32 | 66.61 | 66.98 | 61.55 | 64.63 |
| 한000 | 68.01 | 68.05 | 70.61 | 71.49 | 75.58 | 78.02 | 79.45 |
| 한000 | 88.81 | 88.48 | 90.09 | 78.21 | 58.39 | 91.05 | 98.39 |
| 혜000 | 67.96 | 63.56 | 65.50 | 65.73 | 65.33 | 64.90 | 65.94 |

(3)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표> 전문대학 대학별 강좌 당 강좌개설 비율

| 전문대학 | 학점당 강좌개설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강000 | 100.00 | 100.00 | 85.43 | 96.56 | 100.00 | 100.00 | 100.00 |
| 강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강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거000 | 100.00 | 89.05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경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경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경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경000 | 100.00 | 46.96 | 47.08 | 53.07 | 89.53 | 98.72 | 100.00 |
| 경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경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경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경000 | 100.00 | 86.30 | 91.82 | 92.55 | 100.00 | 100.00 | 100.00 |
| 구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국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김000 | 100.00 | 80.58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김000 | 100.00 | 73.57 | 67.46 | 70.90 | 100.00 | 100.00 | 100.00 |
| 김000 | 100.00 | 100.00 | 34.31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대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대000 | 100.00 | 100.00 | 100.00 | 98.48 | 100.00 | 100.00 | 100.00 |
| 대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동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동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동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동000 | 69.22 | 92.70 | 100.00 | 97.16 | 100.00 | 100.00 | 100.00 |
| 두000 | 65.39 | 32.89 | 94.15 | 92.87 | 100.00 | 100.00 | 100.00 |

| | | | | | | | |
|------|--------|--------|--------|--------|--------|--------|--------|
| 명000 | 100.00 | 68.22 | 72.73 | 70.95 | 100.00 | 100.00 | 100.00 |
| 배000 | 100.00 | 100.00 | 100.00 | 92.24 | 85.30 | 82.32 | 100.00 |
| 부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서000 | 100.00 | 51.32 | 53.57 | 55.18 | 100.00 | 100.00 | 100.00 |
| 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선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수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90.75 | 91.52 | 100.00 |
| 수000 | 100.00 | 100.00 | 88.50 | 79.14 | 100.00 | 100.00 | 100.00 |
| 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송000 | 100.00 | 100.00 | 100.00 | 87.29 | 100.00 | 100.00 | 100.00 |
| 신000 | 100.00 | 84.84 | 65.41 | 60.98 | 65.12 | 61.52 | 68.64 |
| 신000 | 100.00 | 77.95 | 78.98 | 74.81 | 100.00 | 100.00 | 100.00 |
| 아000 | 100.00 | 91.34 | 67.44 | 60.40 | 100.00 | 100.00 | 100.00 |
| 안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안000 | 100.00 | 69.81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여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영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영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영000 | 100.00 | 100.00 | 92.18 | 95.56 | 100.00 | 100.00 | 100.00 |
| 오000 | 100.00 | 100.00 | 100.00 | 87.98 | 100.00 | 100.00 | 100.00 |
| 용000 | 100.00 | 71.85 | 74.37 | 66.26 | 100.00 | 100.00 | 100.00 |
| 우000 | 100.00 | 100.00 | 52.12 | 43.59 | 100.00 | 100.00 | 100.00 |
| 울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원000 | 100.00 | 63.14 | 72.37 | 74.75 | 100.00 | 100.00 | 100.00 |
| 유000 | 100.00 | 100.00 | 100.00 | 85.28 | 100.00 | 100.00 | 100.00 |
| 인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인000 | 100.00 | 100.00 | 43.53 | 42.34 | 100.00 | 100.00 | 100.00 |
| 장000 | 52.49 | 71.84 | 57.19 | 63.67 | 100.00 | 100.00 | 100.00 |
| 전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 | | | | | |
|------|--------|--------|--------|--------|--------|--------|--------|
| 전000 | 90.31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전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조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청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충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충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5.90 | 100.00 |
| 충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포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한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혜000 | 100.00 | 79.61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4)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표> 전문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문대학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강000 | 67.65 | 60.15 | 69.00 | 68.05 | 58.30 | 50.30 | 49.30 |
| 강000 | 55.55 | 54.25 | 48.60 | 52.85 | 47.70 | 43.65 | 32.00 |
| 강000 | 37.05 | 41.65 | 44.35 | 41.65 | 41.10 | 40.30 | 38.10 |
| 거000 | 48.20 | 57.30 | 56.00 | 44.75 | 46.90 | 44.20 | 41.50 |
| 경000 | 44.65 | 44.55 | 40.50 | 40.50 | 41.30 | 39.40 | 38.20 |
| 경000 | 43.20 | 43.45 | 43.90 | 40.85 | 38.00 | 42.60 | 35.70 |
| 경000 | 46.25 | 51.55 | 32.15 | 50.45 | 52.70 | 45.55 | 30.40 |
| 경000 | 37.90 | 36.80 | 40.50 | 35.80 | 49.55 | 51.50 | 49.20 |
| 경000 | 41.00 | 38.70 | 43.40 | 49.80 | 46.05 | 44.60 | 45.50 |
| 경000 | 52.20 | 49.15 | 45.10 | 48.85 | 44.45 | 40.30 | 37.00 |
| 경000 | 51.60 | 51.75 | 52.40 | 54.15 | 53.35 | 51.40 | 49.80 |
| 경000 | 38.75 | 40.50 | 45.50 | 44.05 | 43.30 | 46.10 | 42.50 |
| 구000 | 42.35 | 42.15 | 46.90 | 48.40 | 46.80 | 47.35 | 44.30 |
| 국000 | 35.80 | 37.60 | 31.45 | 34.50 | 34.50 | 34.75 | 31.00 |
| 김000 | 47.65 | 32.70 | 39.80 | 36.45 | 41.75 | 42.20 | 45.00 |
| 김000 | 39.35 | 42.75 | 41.65 | 40.65 | 49.55 | 52.25 | 53.00 |
| 김000 | 48.05 | 49.65 | 48.60 | 36.70 | 41.40 | 37.55 | 34.90 |
| 대000 | 39.60 | 41.45 | 41.60 | 41.85 | 39.95 | 38.95 | 34.20 |
| 대000 | 42.90 | 43.60 | 49.25 | 49.45 | 45.00 | 46.50 | 42.60 |
| 대000 | 50.05 | 53.90 | 53.60 | 55.60 | 54.30 | 52.30 | 41.80 |
| 동000 | 36.80 | 38.00 | 35.10 | 41.10 | 38.45 | 38.55 | 33.00 |
| 동000 | 48.35 | 50.45 | 48.80 | 53.55 | 50.75 | 52.60 | 52.70 |
| 동000 | 43.80 | 40.40 | 41.45 | 43.30 | 42.15 | 40.10 | 39.40 |
| 동000 | 45.35 | 46.05 | 45.85 | 45.30 | 50.20 | 55.05 | 53.20 |
| 두000 | 67.60 | 70.50 | 62.15 | 62.85 | 60.45 | 53.15 | 47.40 |

| | | | | | | | |
|------|-------|-------|-------|-------|-------|-------|-------|
| 명000 | 44.85 | 46.75 | 48.15 | 46.60 | 38.45 | 41.65 | 38.50 |
| 배000 | 38.75 | 41.10 | 40.70 | 34.50 | 40.15 | 41.90 | 42.60 |
| 부000 | 26.30 | 24.90 | 22.00 | 27.15 | 23.95 | 27.25 | 29.50 |
| 서000 | 37.50 | 32.45 | 45.95 | 43.60 | 43.80 | 36.40 | 36.80 |
| 서000 | 48.20 | 51.60 | 48.95 | 49.90 | 48.55 | 52.05 | 43.10 |
| 서000 | 42.30 | 45.40 | 48.45 | 43.80 | 47.45 | 51.10 | 50.90 |
| 선000 | 52.80 | 53.95 | 51.95 | 48.40 | 49.25 | 46.80 | 49.50 |
| 수000 | 32.85 | 35.00 | 40.55 | 40.05 | 40.20 | 36.00 | 40.20 |
| 수000 | 42.85 | 45.00 | 41.95 | 42.10 | 41.85 | 43.20 | 39.50 |
| 순000 | 52.20 | 53.75 | 54.40 | 56.20 | 57.45 | 57.70 | 57.40 |
| 승000 | 34.05 | 36.75 | 37.20 | 43.50 | 43.00 | 43.85 | 44.30 |
| 신000 | 50.35 | 52.05 | 51.10 | 53.05 | 46.75 | 47.45 | 46.20 |
| 신000 | 46.00 | 45.35 | 48.90 | 55.10 | 52.85 | 54.95 | 54.70 |
| 아000 | 58.95 | 57.65 | 61.35 | 38.85 | 51.05 | 70.25 | 68.40 |
| 안000 | 51.40 | 54.65 | 53.45 | 51.95 | 47.70 | 44.45 | 46.80 |
| 안000 | 43.50 | 39.80 | 45.15 | 45.45 | 37.25 | 43.10 | 42.50 |
| 역000 | 29.25 | 31.30 | 30.80 | 38.25 | 39.20 | 38.80 | 42.10 |
| 영000 | 36.60 | 45.10 | 46.35 | 39.05 | 39.05 | 35.90 | 37.40 |
| 영000 | 48.70 | 51.10 | 51.70 | 45.25 | 45.65 | 43.35 | 40.90 |
| 영000 | 45.90 | 49.10 | 50.45 | 49.40 | 38.50 | 39.60 | 39.40 |
| 오000 | 46.75 | 44.50 | 45.60 | 43.35 | 45.60 | 45.60 | 44.80 |
| 용000 | 34.65 | 39.10 | 40.25 | 41.65 | 42.35 | 43.90 | 42.00 |
| 우000 | 28.70 | 36.20 | 43.25 | 30.05 | 24.00 | 27.20 | 32.50 |
| 울000 | 49.80 | 47.45 | 46.05 | 45.45 | 49.30 | 52.80 | 53.60 |
| 원000 | 55.40 | 59.85 | 60.55 | 60.05 | 54.40 | 48.55 | 47.60 |
| 유000 | 48.50 | 49.65 | 48.30 | 46.20 | 46.80 | 50.20 | 45.10 |
| 인000 | 40.10 | 43.80 | 55.15 | 51.90 | 49.15 | 47.70 | 46.30 |
| 인000 | 52.95 | 56.10 | 50.45 | 46.05 | 13.65 | 43.25 | 44.80 |
| 장000 | 38.60 | 36.20 | 37.95 | 43.40 | 45.70 | 44.40 | 42.90 |

| | | | | | | | |
|------|-------|-------|-------|-------|-------|--------|-------|
| 전000 | 54.20 | 56.25 | 62.20 | 60.60 | 56.40 | 52.40 | 48.40 |
| 전000 | 51.10 | 45.05 | 46.10 | 39.25 | 34.25 | 197.35 | 35.70 |
| 전000 | 44.15 | 48.30 | 49.35 | 42.70 | 44.85 | 43.70 | 44.00 |
| 제000 | 44.45 | 46.35 | 50.55 | 48.80 | 48.65 | 46.60 | 45.00 |
| 제000 | 50.60 | 53.35 | 53.15 | 46.30 | 44.20 | 41.25 | 43.60 |
| 조000 | 49.35 | 46.25 | 42.45 | 33.35 | 34.70 | 36.55 | 38.90 |
| 천000 | 42.40 | 46.60 | 44.55 | 45.90 | 43.10 | 41.80 | 47.80 |
| 청000 | 49.75 | 50.40 | 47.05 | 53.55 | 51.80 | 50.80 | 51.00 |
| 충000 | 36.80 | 34.20 | 35.15 | 33.80 | 31.90 | 33.00 | 31.00 |
| 충000 | 41.40 | 43.20 | 43.70 | 42.50 | 40.10 | 37.30 | 34.30 |
| 충000 | 38.60 | 36.80 | 39.75 | 42.20 | 43.25 | 43.00 | 42.30 |
| 포000 | 55.25 | 57.40 | 53.70 | 55.20 | 44.05 | 51.95 | 51.30 |
| 한000 | 56.40 | 49.40 | 54.95 | 59.25 | 61.50 | 56.70 | 53.80 |
| 한000 | 78.85 | 85.45 | 83.40 | 73.00 | 37.75 | 41.95 | 37.90 |
| 한000 | 38.05 | 37.20 | 35.15 | 39.90 | 39.95 | 39.90 | 39.60 |
| 한000 | 47.10 | 46.60 | 41.70 | 47.00 | 51.95 | 49.85 | 49.40 |
| 혜000 | 47.60 | 47.40 | 45.30 | 43.15 | 39.10 | 46.30 | 44.20 |

(5)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표> 전문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전문대학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강000 | 40.01 | 46.69 | 99.44 | 98.99 | 52.68 | 89.12 | 91.55 |
| 강000 | 58.41 | 61.46 | 93.65 | 82.06 | 30.27 | 74.11 | 90.06 |
| 강000 | 80.47 | 64.65 | 93.75 | 90.28 | 92.04 | 95.74 | 97.78 |
| 거000 | 85.62 | 94.49 | 82.68 | 89.51 | 84.14 | 92.89 | 92.93 |
| 경000 | 60.74 | 59.18 | 81.28 | 88.00 | 66.42 | 77.60 | 63.29 |
| 경000 | 85.52 | 84.10 | 71.63 | 87.90 | 90.53 | 86.11 | 89.27 |
| 경000 | 89.65 | 78.99 | 75.12 | 61.34 | 53.70 | 58.10 | 93.98 |
| 경000 | 39.62 | 51.82 | 60.09 | 63.13 | 98.93 | 83.22 | 82.65 |
| 경000 | 73.26 | 68.52 | 71.35 | 53.45 | 62.33 | 64.20 | 70.31 |
| 경000 | 77.78 | 86.78 | 95.02 | 87.09 | 77.97 | 91.58 | 91.11 |
| 경000 | 64.81 | 54.42 | 94.55 | 92.48 | 74.15 | 78.59 | 80.62 |
| 경000 | 46.01 | 79.52 | 95.51 | 98.27 | 70.14 | 57.91 | 74.53 |
| 구000 | 42.08 | 49.77 | 39.04 | 37.82 | 49.35 | 68.21 | 59.18 |
| 국000 | 65.29 | 78.07 | 89.98 | 87.95 | 93.70 | 82.43 | 86.40 |
| 김000 | 34.67 | 71.33 | 69.36 | 63.50 | 85.66 | 85.96 | 98.41 |
| 김000 | 49.75 | 73.22 | 69.05 | 72.47 | 72.70 | 68.65 | 67.79 |
| 김000 | 88.89 | 83.81 | 93.06 | 82.66 | 72.73 | 88.62 | 78.05 |
| 대000 | 99.79 | 85.75 | 90.38 | 93.72 | 82.30 | 83.52 | 83.52 |
| 대000 | 96.85 | 85.40 | 56.56 | 88.94 | 63.62 | 55.33 | 68.42 |
| 대000 | 67.95 | 64.13 | 61.11 | 55.74 | 52.92 | 50.26 | 75.16 |
| 동000 | 93.71 | 90.02 | 85.40 | 79.61 | 69.78 | 76.22 | 85.29 |
| 동000 | 82.31 | 77.40 | 77.85 | 60.18 | 64.76 | 62.63 | 53.95 |
| 동000 | 51.48 | 40.10 | 41.33 | 45.86 | 60.61 | 63.15 | 62.29 |
| 동000 | 65.86 | 87.58 | 58.95 | 94.11 | 41.97 | 30.12 | 34.72 |

| | | | | | | | |
|------|-------|-------|-------|-------|-------|-------|-------|
| 두000 | 90.52 | 53.44 | 87.06 | 74.68 | 9.44 | 33.23 | 61.62 |
| 명000 | 59.50 | 84.85 | 83.36 | 81.63 | 79.44 | 76.70 | 80.39 |
| 배000 | 87.04 | 84.81 | 85.98 | 64.49 | 90.23 | 90.67 | 85.09 |
| 부000 | 87.65 | 90.88 | 75.99 | 93.20 | 85.53 | 93.16 | 99.02 |
| 서000 | 99.85 | 90.81 | 95.51 | 78.91 | 80.08 | 92.86 | 91.17 |
| 서000 | 97.63 | 54.85 | 48.03 | 58.71 | 66.30 | 60.15 | 75.39 |
| 서000 | 65.87 | 96.75 | 84.33 | 46.47 | 60.70 | 38.31 | 47.75 |
| 선000 | 31.05 | 27.71 | 16.34 | 20.28 | 23.78 | 31.71 | 17.09 |
| 수000 | 58.63 | 54.03 | 51.62 | 51.62 | 99.67 | 42.78 | 87.24 |
| 수000 | 35.10 | 31.39 | 73.65 | 63.20 | 90.41 | 87.58 | 95.85 |
| 순000 | 0.00 | 0.00 | 17.79 | 19.26 | 7.87 | 12.96 | 17.14 |
| 송000 | 66.06 | 59.23 | 81.84 | 90.52 | 9.04 | 77.84 | 79.51 |
| 신000 | 79.12 | 87.20 | 77.17 | 77.65 | 64.12 | 64.39 | 68.53 |
| 신000 | 59.60 | 69.06 | 72.33 | 73.76 | 64.54 | 72.31 | 75.06 |
| 아000 | 31.48 | 66.32 | 61.75 | 33.08 | 55.16 | 56.35 | 24.21 |
| 안000 | 74.79 | 72.69 | 67.89 | 86.76 | 82.25 | 90.68 | 86.71 |
| 안000 | 85.09 | 56.85 | 80.94 | 88.30 | 93.08 | 85.21 | 90.02 |
| 여000 | 89.77 | 93.79 | 98.57 | 86.02 | 63.26 | 84.25 | 74.04 |
| 영000 | 80.69 | 90.80 | 88.32 | 95.53 | 95.93 | 89.37 | 93.87 |
| 영000 | 76.91 | 69.93 | 71.89 | 79.26 | 76.81 | 83.26 | 80.59 |
| 영000 | 91.64 | 90.56 | 82.11 | 82.16 | 86.06 | 83.52 | 93.65 |
| 오000 | 63.30 | 55.60 | 56.59 | 76.81 | 83.30 | 75.21 | 84.83 |
| 용000 | 66.13 | 56.01 | 53.71 | 50.49 | 78.92 | 69.79 | 55.86 |
| 우000 | 75.66 | 89.52 | 44.33 | 26.67 | 49.60 | 50.74 | 92.52 |
| 울000 | 66.55 | 77.19 | 79.38 | 80.44 | 73.61 | 74.05 | 71.28 |
| 원000 | 67.59 | 89.28 | 79.68 | 71.43 | 68.74 | 76.38 | 73.80 |
| 유000 | 87.80 | 76.00 | 76.83 | 84.95 | 77.70 | 66.26 | 93.79 |
| 인000 | 78.58 | 84.60 | 57.97 | 50.39 | 64.60 | 77.72 | 68.74 |
| 인000 | 53.56 | 53.43 | 42.22 | 40.21 | 51.88 | 59.05 | 44.84 |

| | | | | | | | |
|------|-------|-------|-------|-------|-------|-------|-------|
| 장000 | 41.57 | 50.90 | 55.38 | 67.81 | 64.33 | 71.22 | 75.95 |
| 전000 | 50.38 | 49.28 | 44.60 | 53.74 | 75.25 | 66.81 | 70.61 |
| 전000 | 81.84 | 77.03 | 68.95 | 82.14 | 94.56 | 99.33 | 99.56 |
| 전000 | 76.06 | 70.27 | 74.67 | 73.90 | 71.65 | 83.47 | 70.69 |
| 제000 | 97.29 | 79.23 | 81.16 | 96.20 | 82.39 | 84.17 | 85.84 |
| 제000 | 22.44 | 26.67 | 29.52 | 51.93 | 56.93 | 61.54 | 59.90 |
| 조000 | 65.70 | 58.46 | 96.84 | 88.13 | 98.17 | 92.28 | 84.83 |
| 천000 | 98.08 | 88.69 | 89.09 | 80.56 | 85.91 | 92.34 | 69.35 |
| 청000 | 45.28 | 60.09 | 90.81 | 23.27 | 31.98 | 76.52 | 72.62 |
| 충000 | 87.70 | 97.89 | 88.70 | 95.02 | 93.70 | 92.11 | 93.91 |
| 충000 | 92.91 | 92.91 | 99.90 | 96.74 | 96.93 | 96.43 | 97.12 |
| 충000 | 68.41 | 92.40 | 89.06 | 93.25 | 27.93 | 34.61 | 70.89 |
| 포000 | 22.02 | 44.44 | 41.92 | 78.99 | 81.94 | 77.53 | 76.86 |
| 한000 | 40.28 | 42.86 | 58.61 | 52.29 | 49.69 | 51.26 | 49.27 |
| 한000 | 93.33 | 99.44 | 84.21 | 96.11 | 87.60 | 85.59 | 97.65 |
| 한000 | 86.43 | 89.78 | 93.61 | 86.45 | 85.06 | 88.68 | 88.88 |
| 한000 | 0.00 | 0.00 | 14.16 | 25.88 | 37.83 | 32.08 | 50.95 |
| 혜000 | 73.68 | 77.73 | 70.06 | 69.62 | 84.36 | 65.98 | 81.08 |

3. 사이버대학교

(1) 건전성 지수

<표> 사이버대학 대학별 건전성 지수 추이

| 사이버대학 | 건전성 지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건000 | - | - | - | - | 185.38 | 212.51 | 216.97 |
| 경000 | - | 229.87 | 143.85 | 208.08 | 239.12 | 231.12 | 244.04 |
| 고000 | - | 247.86 | 190.98 | 243.91 | 198.84 | 183.84 | 175.56 |
| 국000 | - | 218.29 | 157.16 | 229.65 | 228.15 | 217.82 | 224.88 |
| 글000 | - | - | 156.83 | 263.77 | 230.59 | 224.02 | 239.65 |
| 대000 | - | 204.81 | 205.37 | 186.11 | 191.04 | 207.42 | 214.33 |
| 디000 | - | - | 181.27 | 238.58 | 244.51 | 238.32 | 240.61 |
| 부000 | - | 201.79 | 166.49 | 256.31 | 237.28 | 244.69 | 246.16 |
| 사000 | - | 156.41 | 128.17 | 202.63 | 226.47 | 206.89 | 170.09 |
| 서000 | - | - | 153.05 | 219.90 | 224.36 | 233.00 | 236.30 |
| 서000 | - | 164.30 | 161.29 | 220.41 | 211.95 | 198.85 | 197.51 |
| 세000 | - | 234.02 | 165.14 | 215.53 | 232.23 | 252.90 | 240.13 |
| 승000 | - | 250.21 | 291.99 | 149.52 | 208.55 | 229.35 | 235.95 |
| 열000 | - | - | - | 219.91 | 242.39 | 246.50 | 232.40 |
| 원000 | - | 252.23 | 177.22 | 251.30 | 159.35 | 156.54 | 232.97 |
| 한000 | - | 233.61 | 158.30 | 220.38 | 211.33 | 210.03 | 213.30 |
| 화000 | - | 213.47 | 175.02 | 227.85 | 208.63 | 190.34 | 174.44 |
| 영000 | - | - | 205.28 | 211.25 | 226.96 | 229.83 | 248.39 |
| 한000 | - | - | - | - | 250.11 | 265.65 | 239.15 |

(2) 강좌 당 학생 수

<표> 사이버대학 대학별 강좌 당 학생 수

| 사이버대학 | 강좌 당 학생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건000 | — | | | | 77.43 | 77.43 | 91.92 |
| 경000 | — | 80.85 | 77.97 | 75.12 | 90.39 | 92.80 | 92.98 |
| 고000 | — | 93.85 | 97.67 | 88.96 | 81.31 | 77.06 | 73.50 |
| 국000 | — | 87.27 | 94.90 | 88.70 | 73.71 | 72.05 | 80.80 |
| 글000 | — | — | 92.93 | 97.40 | 81.65 | 76.43 | 75.02 |
| 대000 | — | 81.43 | 93.59 | 90.03 | 87.47 | 90.56 | 95.05 |
| 디000 | — | — | 94.11 | 90.85 | 94.47 | 93.58 | 91.69 |
| 부000 | — | 83.31 | 83.28 | 95.38 | 88.37 | 91.06 | 98.56 |
| 사000 | — | 64.82 | 66.42 | 69.46 | 89.48 | 87.82 | 78.34 |
| 서000 | — | — | 84.91 | 86.80 | 86.23 | 94.24 | 90.63 |
| 서000 | — | 70.44 | 65.14 | 62.48 | 64.86 | 65.94 | 75.87 |
| 세000 | — | 86.59 | 92.38 | 87.35 | 94.42 | 97.95 | 95.74 |
| 송000 | — | 95.76 | 95.00 | 93.20 | 83.90 | 86.10 | 81.46 |
| 열000 | — | — | — | 68.76 | 74.66 | 78.48 | 72.07 |
| 원000 | — | 98.76 | 98.29 | 99.94 | 94.36 | 79.44 | 91.63 |
| 한000 | — | 80.06 | 78.33 | 77.42 | 78.83 | 78.04 | 78.95 |
| 화000 | — | 17.71 | 37.60 | 39.14 | 53.09 | 55.94 | 55.51 |
| 영000 | — | — | 90.99 | 95.48 | 78.10 | 78.13 | 80.91 |
| 한000 | — | — | — | — | 71.83 | 90.02 | 86.29 |

(3)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표> 사이버대학 대학별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 사이버대학 |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건000 | - | - | - | - | 37.60 | 26.40 | 23.51 |
| 경000 | - | 15.99 | 16.53 | 15.42 | 19.50 | 19.84 | 24.14 |
| 고000 | - | 15.33 | 17.46 | 13.66 | 17.74 | 17.23 | 17.20 |
| 국000 | - | 28.70 | 27.82 | 30.12 | 33.40 | 42.45 | 37.92 |
| 글000 | - | - | 30.22 | 34.90 | 57.45 | 36.55 | 51.94 |
| 대000 | - | 28.46 | 29.05 | 27.31 | 26.57 | 25.44 | 26.15 |
| 디000 | - | - | 34.20 | 31.07 | 28.42 | 31.28 | 31.82 |
| 부000 | - | 21.15 | 32.66 | 31.28 | 33.10 | 30.54 | 26.02 |
| 사000 | - | 12.33 | 14.28 | 13.31 | 16.92 | 20.17 | 30.03 |
| 서000 | - | - | 15.80 | 16.75 | 17.47 | 17.41 | 17.32 |
| 서000 | - | 21.16 | 10.21 | 10.00 | 14.82 | 15.11 | 17.46 |
| 세000 | - | 19.54 | 20.71 | 24.47 | 18.71 | 20.12 | 21.56 |
| 승000 | - | 100.00 | 65.81 | 19.64 | 23.02 | 22.27 | 23.71 |
| 열000 | - | - | - | 37.48 | 42.80 | 49.24 | 42.09 |
| 원000 | - | 22.52 | 22.64 | 24.25 | 27.59 | 42.10 | 31.38 |
| 한000 | - | 11.80 | 11.31 | 11.21 | 16.23 | 16.58 | 18.36 |
| 화000 | - | 100.00 | 94.56 | 72.67 | 54.61 | 47.82 | 46.93 |
| 영000 | - | - | 32.95 | 31.85 | 35.10 | 35.01 | 63.68 |
| 한000 | - | - | - | - | 64.81 | 58.38 | 57.73 |

(4)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표> 사이버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사이버대학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건000 | - | - | - | - | 27.75 | 30.90 | 30.70 |
| 경000 | - | 35.25 | 33.00 | 31.10 | 32.00 | 31.55 | 30.70 |
| 고000 | - | 52.90 | 48.80 | 49.60 | 53.65 | 54.55 | 53.90 |
| 국000 | - | 25.65 | 24.00 | 24.40 | 26.60 | 26.65 | 32.20 |
| 글000 | - | - | 25.35 | 34.80 | 28.40 | 22.30 | 16.50 |
| 대000 | - | 37.90 | 44.55 | 49.65 | 51.00 | 56.45 | 52.10 |
| 디000 | - | - | 35.00 | 31.25 | 38.90 | 40.00 | 38.50 |
| 부000 | - | 29.60 | 33.40 | 33.35 | 40.95 | 39.20 | 43.80 |
| 사000 | - | 27.65 | 33.15 | 37.20 | 41.80 | 45.20 | 41.20 |
| 서000 | - | - | 36.45 | 35.40 | 32.70 | 32.10 | 35.00 |
| 서000 | - | 60.05 | 59.00 | 59.50 | 57.90 | 57.60 | 55.70 |
| 세000 | - | 33.95 | 33.10 | 36.25 | 38.75 | 38.75 | 39.00 |
| 송000 | - | 54.45 | 53.65 | 31.15 | 27.50 | 33.20 | 34.00 |
| 열000 | - | - | - | 23.85 | 25.80 | 22.30 | 23.80 |
| 원000 | - | 32.70 | 37.10 | 35.90 | 37.40 | 35.00 | 36.20 |
| 한000 | - | 44.10 | 46.35 | 51.10 | 57.50 | 58.85 | 60.20 |
| 화000 | - | 29.10 | 25.05 | 21.60 | 24.75 | 34.50 | 34.50 |
| 영000 | - | - | 25.60 | 27.95 | 27.15 | 29.80 | 35.00 |
| 한000 | - | - | - | - | 28.05 | 32.25 | 31.80 |

(5)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표> 사이버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사이버대학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건000 | - | - | - | - | 42.59 | 77.78 | 70.83 |
| 경000 | - | 97.78 | 16.35 | 86.45 | 97.22 | 86.93 | 96.23 |
| 고000 | - | 85.78 | 27.05 | 91.69 | 46.14 | 35.00 | 30.95 |
| 국000 | - | 76.67 | 10.44 | 86.43 | 94.44 | 76.67 | 73.96 |
| 글000 | - | - | 8.33 | 96.67 | 63.10 | 88.73 | 96.19 |
| 대000 | - | 57.02 | 38.17 | 19.11 | 26.00 | 34.98 | 41.03 |
| 디000 | - | - | 17.95 | 85.42 | 82.72 | 73.46 | 78.60 |
| 부000 | - | 67.74 | 17.15 | 96.30 | 74.85 | 83.89 | 77.78 |
| 사000 | - | 51.62 | 14.32 | 82.67 | 78.26 | 53.70 | 20.51 |
| 서000 | - | - | 15.90 | 80.96 | 87.96 | 89.24 | 93.35 |
| 서000 | - | 12.65 | 26.94 | 88.42 | 74.37 | 60.20 | 48.48 |
| 세000 | - | 93.94 | 18.94 | 67.46 | 80.36 | 96.08 | 83.84 |
| 숭000 | - | 0.00 | 77.53 | 5.53 | 74.14 | 87.78 | 96.77 |
| 열000 | - | - | - | 89.81 | 99.12 | 96.49 | 94.44 |
| 원000 | - | 98.25 | 19.19 | 91.20 | 0.00 | 0.00 | 73.76 |
| 한000 | - | 97.64 | 22.31 | 80.64 | 58.77 | 56.56 | 55.78 |
| 화000 | - | 66.67 | 17.82 | 94.44 | 76.19 | 52.08 | 37.50 |
| 영000 | - | - | 55.74 | 55.97 | 86.62 | 86.89 | 68.80 |
| 한000 | - | - | - | - | 85.42 | 85.00 | 63.33 |

4. 교육대학

(1) 건전성 지수

<표> 교육대학 대학별 건전성 지수 추이

| 교육대학 | 건전성 지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경000 | 210.88 | 185.97 | 161.96 | 187.95 | 234.72 | 215.38 | 202.14 |
| 공000 | 291.83 | 295.06 | 246.18 | 299.66 | 299.53 | 302.49 | 305.77 |
| 광000 | 296.58 | 288.98 | 236.84 | 296.85 | 312.56 | 303.08 | 301.82 |
| 대000 | 266.51 | 275.46 | 214.32 | 287.33 | 259.89 | 271.55 | 277.45 |
| 부000 | 182.21 | 275.63 | 196.76 | 249.62 | 251.19 | 264.40 | 264.58 |
| 서000 | 248.05 | 241.69 | 204.43 | 252.64 | 240.87 | 257.70 | 256.55 |
| 전000 | 287.47 | 282.48 | 219.74 | 279.70 | 305.75 | 319.36 | 318.38 |
| 진000 | 268.81 | 273.60 | 240.92 | 280.77 | 296.27 | 307.90 | 291.20 |
| 청000 | 279.39 | 301.61 | 227.16 | 294.89 | 288.32 | 302.58 | 305.02 |
| 춘000 | 284.72 | 298.07 | 240.02 | 287.78 | 298.31 | 300.50 | 306.12 |

(2) 강좌 당 학생 수

<표> 교육대학 대학별 강좌 당 학생 수 추이

| 교육대학 | 강좌 당 학생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경000 | 66.99 | 71.20 | 70.91 | 74.69 | 78.40 | 81.52 | 56.99 |
| 공000 | 60.12 | 67.36 | 66.69 | 68.03 | 70.11 | 69.17 | 70.64 |
| 광000 | 63.87 | 64.33 | 65.16 | 65.43 | 71.81 | 71.36 | 71.29 |
| 대000 | 55.50 | 61.93 | 64.52 | 82.26 | 63.23 | 51.17 | 61.44 |
| 부000 | 0.00 | 55.88 | 62.64 | 62.66 | 68.09 | 67.32 | 62.24 |
| 서000 | 63.71 | 62.58 | 65.88 | 67.73 | 72.16 | 74.82 | 72.58 |
| 전000 | 68.93 | 69.81 | 67.17 | 68.49 | 66.63 | 75.64 | 64.00 |
| 진000 | 56.11 | 66.79 | 78.42 | 78.82 | 76.88 | 80.70 | 64.26 |
| 청000 | 64.62 | 65.04 | 65.45 | 64.77 | 69.97 | 69.67 | 72.72 |
| 춘000 | 63.08 | 63.73 | 65.51 | 67.25 | 65.30 | 66.38 | 67.66 |

(3)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표> 교육대학 대학별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추이

| 교육대학 |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경000 | 73.97 | 37.88 | 42.45 | 44.45 | 84.08 | 79.67 | 88.84 |
| 공000 | 100.00 | 100.00 | 89.47 | 86.42 | 88.39 | 86.94 | 87.75 |
| 광000 | 75.63 | 80.68 | 77.59 | 80.17 | 86.18 | 86.57 | 85.36 |
| 대000 | 77.49 | 76.88 | 74.95 | 77.66 | 62.98 | 84.76 | 82.22 |
| 부000 | 64.09 | 83.33 | 72.84 | 74.18 | 74.87 | 80.57 | 80.06 |
| 서000 | 72.47 | 76.29 | 79.98 | 86.04 | 84.52 | 90.08 | 90.90 |
| 전000 | 76.57 | 75.72 | 76.98 | 82.05 | 89.64 | 97.68 | 100.00 |
| 진000 | 67.10 | 69.93 | 75.94 | 74.55 | 75.80 | 81.23 | 84.05 |
| 청000 | 75.17 | 86.03 | 88.02 | 88.74 | 87.89 | 91.86 | 99.60 |
| 춘000 | 77.26 | 82.96 | 86.17 | 89.37 | 92.55 | 88.19 | 91.16 |

(4)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표> 교육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교육대학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경000 | 35.50 | 41.20 | 36.30 | 37.10 | 41.45 | 35.90 | 41.70 |
| 공000 | 45.60 | 49.65 | 55.55 | 56.20 | 56.90 | 61.70 | 61.20 |
| 광000 | 61.95 | 52.30 | 56.10 | 58.55 | 61.20 | 59.35 | 62.40 |
| 대000 | 50.00 | 50.80 | 51.55 | 50.70 | 55.55 | 58.20 | 59.50 |
| 부000 | 43.35 | 47.45 | 42.10 | 46.75 | 46.90 | 49.85 | 54.90 |
| 서000 | 46.60 | 43.15 | 41.25 | 39.50 | 36.50 | 41.10 | 42.90 |
| 전000 | 49.55 | 49.20 | 51.00 | 44.60 | 51.20 | 51.00 | 56.10 |
| 진000 | 56.00 | 53.00 | 52.70 | 50.90 | 61.60 | 62.10 | 60.80 |
| 청000 | 52.15 | 53.45 | 45.25 | 52.15 | 51.10 | 55.60 | 52.80 |
| 춘000 | 51.20 | 51.70 | 52.45 | 49.40 | 54.35 | 59.45 | 61.00 |

(5)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표> 교육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추이

| 교육대학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경000 | 34.43 | 35.70 | 12.29 | 31.71 | 30.79 | 18.29 | 14.62 |
| 공000 | 86.11 | 78.05 | 34.48 | 89.01 | 84.12 | 84.68 | 86.18 |
| 광000 | 95.13 | 91.67 | 37.99 | 92.71 | 93.37 | 85.80 | 82.77 |
| 대000 | 83.52 | 85.85 | 23.31 | 76.72 | 78.13 | 77.41 | 74.29 |
| 부000 | 74.77 | 88.96 | 19.18 | 66.03 | 61.32 | 66.67 | 67.38 |
| 서000 | 65.26 | 59.66 | 17.32 | 59.37 | 47.69 | 51.70 | 50.18 |
| 전000 | 92.42 | 87.76 | 24.59 | 84.56 | 98.28 | 95.05 | 98.28 |
| 진000 | 89.60 | 83.88 | 33.87 | 76.51 | 82.00 | 83.87 | 82.10 |
| 청000 | 87.46 | 97.10 | 28.43 | 89.23 | 79.36 | 85.45 | 79.90 |
| 춘000 | 93.17 | 99.67 | 35.89 | 81.76 | 86.11 | 86.48 | 86.30 |

5. 산업대학

(1) 건전성 지수

<표> 산업대학 대학별 건전성 지수 추이

| 산업대학 | 건전성 지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청000 | 268.61 | 293.50 | 224.49 | 287.85 | 267.88 | 274.77 | 287.82 |
| 호000 | 296.41 | 299.44 | 242.98 | 313.56 | 312.60 | 321.98 | 317.34 |

(2) 강좌 당 학생 수

<표> 산업대학 대학별 강좌 당 학생 수 추이

| 산업대학 | 강좌 당 학생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청000 | 70.17 | 82.30 | 78.77 | 82.35 | 83.49 | 83.55 | 87.01 |
| 호000 | 98.21 | 93.82 | 90.76 | 91.05 | 84.72 | 96.98 | 99.60 |

(3)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표> 산업대학 대학별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추이

| 산업대학 | 학점 당 강좌개설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청000 | 85.30 | 71.69 | 71.14 | 70.74 | 89.78 | 82.55 | 89.72 |
| 호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93.82 | 89.42 |

(4)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표> 산업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추이

| 산업대학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청000 | 48.20 | 49.20 | 46.10 | 47.50 | 54.70 | 53.60 | 51.30 |
| 호000 | 27.25 | 30.35 | 31.25 | 35.30 | 37.00 | 49.95 | 56.20 |

(5)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수

<표> 산업대학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산업대학 |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점 수 | | | | | |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청000 | 64.94 | 90.31 | 28.47 | 87.26 | 39.91 | 55.07 | 59.79 |
| 호000 | 70.94 | 75.27 | 20.97 | 87.21 | 90.88 | 81.22 | 72.11 |

RR2014-02

국내 대학 교육과정의 건전성 추세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 |
|-----|--|
| 발 행 | 2014년 10월 |
| 발행인 | 변 기 용 |
| 발행처 |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 주 소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본관 213호 전화 : (02) 3290-2658 팩스 : (02) 3290-2985 http://hepri.korea.ac.kr |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